

석사학위논문

제주 무가의 저승 형상화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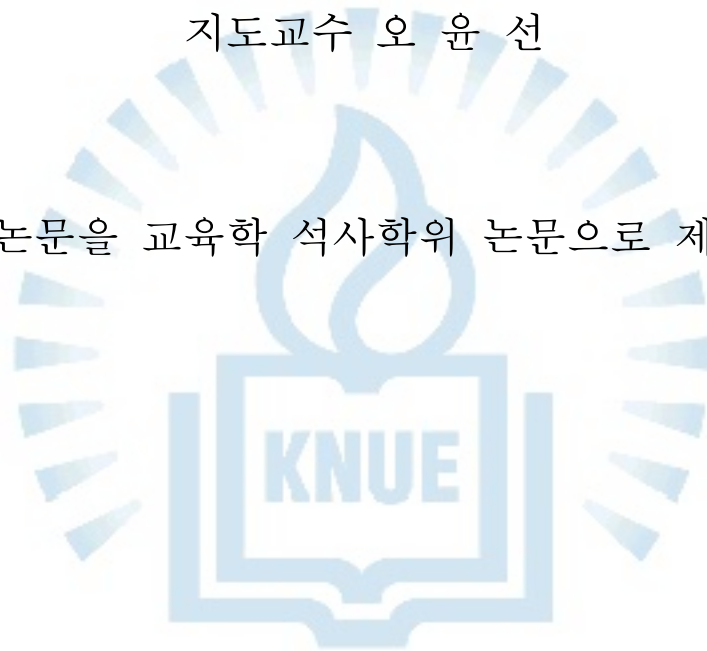
전 경 회

2013년 2월

제주 무가의 저승 형상화 양상 연구

지도교수 오 윤 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전 경 회

2013년 2월

전경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3년 2월

목 차

논문 요약	v
I.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대상 및 방법	9
II. 무가의 공간	15
1. 육지 무가의 공간	15
2. 제주 무가의 공간	26
1) 원형적인 공간	26
2) 분화·발전된 공간	33
III. 제주 무가의 저승	63
1. 저승 형상화의 양상	63
1) 노정을 통한 형상화	63
2) 공간요소를 통한 형상화	73
3) 등장인물을 통한 형상화	89
2. 저승 형상화의 특징	114
1) 육지 무가와 비교	114
2) 제주 무가 속 저승의 형성 배경	119
IV. 제주 무가의 저승관과 생사관	128
1. 저승에 대한 인식	128
1) 저승 범주의 다층성	128

2) 저승관의 이중성	136
2. 생사에 대한 인식	145
V. 결 론	151
참 고 문 헌	156
ABSTRACT	161



표 목 차

<표 1> 기본 자료에 공통된 본풀이의 종류	11
<표 2> 큰굿의 구조와 원리	12
<표 3> <바리공주>의 공간 구조	21
<표 4> <천지왕본풀이>의 공간 구조	35
<표 5> <생불할망본풀이>의 공간 구조	37
<표 6> <초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40
<표 7> <이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42
<표 8> <삼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43
<표 9> <혜심곡>의 공간 구조	45
<표 10> <강님차사본풀이>의 공간 구조	47
<표 11> <사만이본풀이>의 공간 구조	49
<표 12> <지장본풀이>의 공간 구조	50
<표 13> <세경본풀이>의 공간 구조	53
<표 14> <문전본풀이>의 공간 구조	56
<표 15> <칠성본풀이>의 공간 구조	58
<표 16> 강님의 저승 이동 경로 및 저승 양상	68
<표 17> 저승 시왕과 지옥의 제 양상	75
<표 18> 동자판관의 판결 내용 및 저승 마을	80
<표 19> 꽃밭과 꽃화소가 나타나는 무가	83
<표 20> 서천꽃밭의 변화 양상과 의미	86
<표 21> 시왕들의 심판 내용과 형벌	99
<표 22> 차사의 소속과 이름	102
<표 23> 본풀이 속 죽음과 환생 양상	113
<표 24> <이공본풀이>의 이본에 나타나는 환생꽃의 종류	149

그 립 목 차

<그림 1> <바리공주>의 공간 및 이동 양상	17
<그림 2> 본풀이의 공간 분화 과정	58
<그림 3> <초감제>의 공간 구조	132
<그림 4> 저승 공간	136
<그림 5> 저승 공간의 성격	136



논문 요약

제주 무가의 저승 형상화 양상 연구

전 경 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오 윤 선)

이 연구는 제주 무(巫)의 큰굿에서 구송되는 제의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저승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여, 저승에 대한 인식 및 저승 공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제주 무(巫)는 여타의 지역에 비해 무속제약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무가의 종류가 다양하고 서사가 풍부하며 체계가 정연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저승의 공간 양상을 살피고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저승은 기본적으로 이승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저 세상, 피생(彼生)’을 말하며, 흔히 인간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의미한다. 죽음을 삶의 단절로 여기지 않고 일종의 통과 의례로 간주함으로써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형상화한 비가시적인 관념 공간이다.

무(巫)에서는 저승의 범주와 저승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저승은 망자들에게는 죽자마자 맞닥뜨리는 절망과 죽음의 공간이면서, 천년만년 사는 영생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신들의 세계로 관념되기도 한다. 또한 저승은 이승과 달리 맑고 맑은 능수능장의 세계로 인식되면서 동시에 인정이 통하는 세계로도 인식된다. 저승은 죽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원천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생명의 탄생은 물론 이들 생명꽃으로 질서와 조화를 잃은 현실 세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 무가의 저승 형상화 양상을 노정과 공간요소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의 저승은 기능이나 의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저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는 데는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승이 기본적으로 멀고 먼 미지의 어떤 곳으로 상정되는데, 제주 무가에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한라산이라는 높고 험한 산을 반영하여 저승을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저승으로 가는 길에 많은 갈림길과 거칠고 험한 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기뭇에 빠지게’ 하여 존재와 층위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저승 노정뿐 아니라 저승의 하위 공간들에 대한 구획 개념도 육지 무가에 비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왕의 심판을 통과하고 저승 마을에서 영생하는 일련의 과정은 나름의 원칙과 체계가 있다. 망자를 심판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심판과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아, 영생을 위한 통과 의례의 성격을 보인다.

제주 무가의 저승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 요소는 꽃밭이며, 이는 생명의 원천 공간이면서 이승의 질서 유지와 회복 기능도 아울러 수행한다. 꽃밭에는 태어나게 하는 꽃, 살리는 꽃, 죽이는 꽃이 함께 있는데 이 꽃들은 모두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여 대상 존재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다. 그리고 꽃밭은 신성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소망 실현이 더욱 용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저승왕과 차사를 통해 형상화된 저승은 사회제도와 생활환경을 가장 많이 닮아있다. 때로 무섭고 엄하게, 때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서 현실의 인간 군상들에게서 느끼는 친근함을 유발하여, 인간의 죽음 이후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저승 차사들이 인정에 약한 모습을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운명이나 죽음을 회피 혹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망자들은 죽어 저승에서 영생을 하고 조상신으로서 대접받고 자손을 돕는 존재가 되기도 하나 원한이 많은 망자의 경우는 굿을 통해 조령(祖靈)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가에 등장하는 여러 망자들은 죽음과 환생을 통해 신으로 좌정하기도 하는데 망자들의 형상과 역할을 통해서 저승이 새남과 통과의례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승이 관념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형상화하는 데는 현실 세계를 투영할 수밖에 없다. 현실 세계의 투영이라는 측면에서 제주 무가 속의 저승은 제주의 자연지리, 역사, 무가 향유 집단의 사유 방식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형상화 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 무가를 대상으로 저승의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여, 제주 무가의 큰굿과 일반본풀이의 연원이 육지 무가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제주의 역사와 자연·문화·지리를 수용하면서 변모한 점을 포착하고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상상력이나 환상의 측면에서 서사무가를 재조명하면서 신화를 영상정보화하고 다른 장르로 콘텐츠화 하는 데 기본 자료로서 기능할 것이다.

주요어 : 저승, 저승의 형상화, 저승관, 생사관, 제주 무가

※ 이 논문은 2013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제주 무(巫)¹⁾의 큰굿에서 구송되는 제의언어²⁾를 중심으로 저승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여, 저승에 대한 인식 및 저승 공간의 의미를 밝히면서 아울러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독특한 저승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면, 제주 무(巫)의 큰굿과 큰굿 연행 시에 구송되는 일반본풀이는 본토에서 유입된 것으로, 본토에서는 중세화 및 근대화를 거치면서 원래의 큰굿이 위축·변모된 것으로 보이나, 제주도에서는 상당 부분 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³⁾ 즉 육지 무가⁴⁾와 제주 무가 중 일반본풀이는 상당 부분

1) 무격(巫覡)을 둘러싼 주술 종교를 관점에 따라 무속(巫俗), 무교, 무(巫), 샤머니즘 등의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무속은 불교학자 이능화가 샤머니즘을 전통적인 관습으로 이해하여 처음 사용한 말이며, 지금은 국문학자들과 민속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무교는 개신교 신학자 유동식이 처음 사용한 단어이며, 샤머니즘을 기독교, 불교, 이슬람처럼 독립된 종교로 존중하는 중립적 입장의 종교학자들이 사용한다. 무(巫)는 인류학자 조흥윤이 사용한 말이며, 무(巫)를 종교의 입장에서 보며, 한국의 샤머니즘이 만주·시베리아 샤머니즘과 그 본질이나 구조는 같으나 역사·사회·자연적 환경 차이로 인해 독특한 개성을 가진 전통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흥윤의 주장에 동의하여 전체 종교현상을 설명해 주는 적절한 용어로 무(巫)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이길용,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선교신학회』 제28집,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2011, p.131 참조.

조흥윤, 『巫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pp.12~15 참조.

2) 제의(祭儀)와 관련된 말을 총칭하는 것으로, 심방이 굿을 진행하며 구송하는 말 전부를 뜻한다. 이 제의언어를 문학적 관점에서는 서사무가, 교술무가, 회곡무가, 서정무가로 부른다. 즉 제의언어를 다른 말로 무가(巫歌)라고 부를 수 있으며, 무가 중에서도 신의 내력을 말하는 신화 부분, 즉 서사무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주 무(巫)에서는 본풀이라 부른다. 이 연구에서는 서사무가와 본풀이라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병용하겠다.

3) 장주근, 「고대 한일양국의 민간신앙」,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p.99 참조. ‘제주도는 지난날 절해고도였는데, 민속전반, 특히 무속은 아주 창연한 고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518 참조. 제주도의 서사무가 중 큰굿의 맨 첫 순서인 초감제에서 구송되는 <천지왕본풀이> 같은 것이 천지창조와 인간세계의 내력을 다루고 있는 점을 중시, ‘본토에서 두루 보이는 같은 유형보다 한층 고형이 아닌가 싶다.’고 하였다.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pp.22~24 참조. 한평효, 서대석, 장주근, 조동일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섬 지방에는 일반적으로 고문화가 잔존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본풀이는 제주 무가의 당본풀이나 조상본풀 이와는 오히려 서사구조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육지 무가와 일반본풀이의 이러한 유사성은 일반본풀이의 가치를 조명하거나 혹은 더 심화된 연구를 하는데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무(巫)와 무가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이 육지의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거나, 육지와 제주의 것을 아울러 연구하거나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다룬 것이 많고, 특히 무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인 저승에 대한 연구에서는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를 ‘신화의 섬’이라고 자연스럽게 명명하고 있고, 또 제주의 무(巫)에는 일만 팔천 신이 있다고 하며, 현재도 여타 지역에 비해 무속제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육지 무가와 비록 비슷한 소재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주 무가는 충분히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왜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저승을 다룬 연구는 없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제주 무(巫)와 무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개척 단계일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동소이하다 함은 보는 관점에 따라 ‘같다’고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래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이 연구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의미 없는 연구일 수도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동(大同)’에 초점을 두어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저승 공간을 연구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은 것에 비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에는 어쩌면 우리민족이 보유했었던 큰곳의 본래적 모습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4) 이 연구가 제주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불리는 무가의 독자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무가를 대등한 비교 대상으로 인식하여, 제주 지역의 무가는 ‘제주 무가’로, 이와 비교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무가를 ‘육지 무가’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흔히 ‘본토(의) 무가’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적 주종 개념이 내재해 있으므로, 각 지역의 무가를 대등한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육지 무가’로 고쳐 부르하고자 한다.

해, 이 연구에서는 ‘소이(小異)’에 중점을 두어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저승 공간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⁵⁾

제주 무가만의 독자성 혹은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박경신과 권태효의 연구⁶⁾가 있으며, 제주학의 중심 연구소인 탐라문화연구소의 연구들도 제주 문화와 무가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천착하고 있어,⁷⁾ 이 연구가 앞으로의 제주 무가의 연구 방향과도 일정 부분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무가의 독자성에 관심을 가진 선행 연구들이 서사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무가에 나타나는 공간, 특히 저승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집약되어 나타나므로,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⁸⁾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세계관의 기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巫)에서는 신격의 존재태가 공간영역과 관련하여 관념되고 있으며, 신의 강림은 신의 존재성을 함축하며 그것은 공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⁹⁾ 무가가 의례 속에서 불릴 때 그 존재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때, 무가 연구에서 공간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5) 대동(大同)과 소이(小異)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이며, 소이(小異)에 주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점과 보편성을 전제로 하면서 양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이때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 즉 변별성의 차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가가 그 지역의 여러 환경과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제주 무가에서 이러한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6)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는 소재적인 면에서는 육지 무가에 원천을 두면서도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적 성격을 토대로 하여 서사구조와 내용 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가정하고 당신본풀이와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있다.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 한국민속학회, 2000.

7) 허남춘,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1.

8)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8, p.138.

이수자, 「한국 설화문학의 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p.1.

9)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6.

있다.

무가의 공간 중 특히 저승은 죽음을 계기로 하여 경험되는 어떠한 공간이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의 하나는 죽음인데, 저승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정된 비가시적인 관념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저승의 설정은 인간의 물음, 즉 이 세계는 왜 존재하며, 인간은 왜 유한한가, 인간의 유한성은 극복될 수 있는가, 극복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인가에 대한 해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승은 비가시적 관념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므로 그것의 형상화 과정에서 인간이 처한 지역적 자연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내세의 형태로서 어떤 체계화된 수식이 가해지지 않은 내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내세관에 고등종교의 종교적 특성이나 도덕적 가치기준이 다양한 시대·사회적 조건하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개입되면서 내세의 양상이 극락과 지옥으로 이원적 분화 양상을 보이게도 되고, 혹은 동일 무가권 내에서도 심방(巫覡)에 따라 저승의 양상과 층위가 달라지고, 같은 심방이라 하더라도 본풀이마다 저승의 양상과 층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의 수용으로 인한 표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巫) 본연의 기본 내세인 저승의 본질적 특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양상의 측면에서도 각 지역별 무가는 그 차이점과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무가에서 저승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육지 무가와는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그리고 육지 무가와 같은 뿌리를 가지면서 제주 무가가 달라졌다면 특히 달라진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보편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별적인 것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굴화위지(橘化爲枳) 혹은 동성이속(同聲異俗)처럼 원래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작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내어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면서 연구의 필요성이기도 한 것이다.

10) 김태곤, 『한국 무속 연구』, 집문당, 1995, p.325.

2. 선행 연구 검토

제주 무가의 연구는 자료 채록에서부터 시작한다. 제주 무가의 채록에는 다음의 자료들이 있다.

- ①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 大阪屋號書店, 1937.¹¹⁾
- ② 현용준·김영돈, 『제주도무당굿놀이』, 문교부, 1965.
- ③ 진성기, 『남국의 무가』 (프린트본), 1968.¹²⁾
- ④ 장주근, 『韓國의 民間信仰』 자료편, 1973.¹³⁾
- ⑤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¹⁴⁾
- ⑥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본풀이 연구』, 보고사, 2006.
- ⑦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준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⑧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09.
- ⑨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①은 당시 출간된 무가집 중 가장 방대한 것으로 특히 제주 무가를 채록한 것으로는 최초의 자료라는 데 의의가 있다. ②는 제주도의 무극(巫劇)이라 할 수 있는 굿놀이 무가를 채록한 것이다. ③은 완전히 제주도 무가만을 집대성한 자료집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제주 무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④는 대체로 남무(男巫) 고대중(1962년 당시 46세)에 의해 구술된 자료들이 채록되어 있는데, 앞서의 자료들과는 다른 구연자이며, 큰굿에서 구송되는 신화가 전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⑤는 앞의 자료들이 서사무가만 채록

11) 이 책은 후에 심우성(역), 『朝鮮巫俗의 研究』, 東文選, 1991로 출간되었다.

12) 이 책은 후일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로 다시 출간되었으며, 제주방언으로 쓰인 무속 언어를 표준어로 주석을 달아 해석한 것을 첨부하였다.

13) 이 책은 후일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로 다시 출간되었다.

14) 이 책은 후일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로 다시 개정 출간되었다.

한 것에 비해, 무속의례의 진행 전체를 중심으로 제주도 무의(巫儀)와 무가(巫歌)를 채록·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 ⑥은 기존의 자료가 일반 본풀이 중심의 자료인데 비해 조상신본풀이로 그 자료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⑦은 굿의 진행상황이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자연조건에서 채록한 현장감 있는 무가집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⑧과 ⑨는 제주 굿과 본풀이가 사라져 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본풀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자료 보존을 위해 연구 목적으로 본풀이만 구연·채록한 것이다.

무가 자료의 채록은 이후 무가 각 편 연구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으며, 특히 당본풀이의 경우, 당굿이 전승되는 신당이 대폭 줄어들고 본풀이의 구송 기회가 없어지는 전승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들 당신본풀이 채록본들은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¹⁵⁾

제주 무가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 면에서 일반본풀이 연구와 당본풀이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본풀이 각 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고 특히 일반본풀이 전체를 대상으로 무속의례와 함께 살핀 것으로 이수자의 연구¹⁶⁾를 들 수 있다.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리를 해명하여, 이를 근거로 육지 큰굿의 구조적 실체를 밝히고자 시도하였으며, 제주도 큰굿과 신화가 가지는 문화사적, 문학사적 의의를 살핀 연구이다.

당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현용준의 연구가 20여 편이 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1992)』¹⁷⁾에 정리·수록되어 있다. 당본풀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로 신화론·전파론 등을 토대로 한 비교민속학적 관점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진성기의 이 분야의 논문은 10여 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당신앙에 관한 논

15)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1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이 책은 이수자(1989)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간한 책으로 본고에서는 주로 책의 내용을 인용 대상으로 삼았다.

17)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문들은 『남국의 무속』 18)에서 요약되고 있으며, 사회민속학적 관점에서 당본풀이를 다루고 있다.

문무병은 당의 형태, 당신의 종류, 당본풀이의 신화적 구조, 당곳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 제주도 당신앙의 체계를 밝혔다.¹⁹⁾

무가의 저승에 대한 연구는 저승의 특징을 밝혀 세계관을 고찰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태곤은 죽은 이를 극락에 보내기 위하여 곳에서 구송되는 무가를 황천무가라고 명명하고 그 속에서 영혼불멸관과 저승관을 살펴보고 황천무가에 나타난 하계관을 분석하여 불교의 유입 관계를 밝혔다.²⁰⁾ 그러나 ‘황천’이 중국 고유의 사후세계 명칭이며, 실제 한국 무가에 사후세계가 수직하방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승 무가 연구의 선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수정될 부분이 많이 있다. 저승의 특징을 고찰하고 세계관을 고찰하는 유형의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향이다.

홍태한은 <바리공주> 무가를 중심으로 한국 무가의 저승 공간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²¹⁾, 이외에도 <바리공주>의 저승을 고찰하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²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육지 무가의 저승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최진봉은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를 아울러 저승의 특징을 밝혀 공간에 대한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는데, 한국 무가 전반에 나타나는 저승의 의미를 정리하였다.²³⁾ 인간의 입장에서 무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신을 위한 신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무의 공간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남국의 무속』, 민속원, 2003.

19) 문무병, 같은 글.

20) 김태곤, 「황천 무가 연구 -한국무가의 민속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5.

21) 홍태한, 「서울 진오귀곳 <바리공주>의 저승관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홍태한, 「한국 무가에 나타난 저승」,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3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22) 김영민,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 영육관과 저승관」, 『문화연구』 제7집, 한국문화학회, 2002.

김태기, 「오구곳의 원리 연구」, 『배달말』 24, 배달말학회, 1999.

23) 최진봉,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이수자는 제주 무(巫)의 큰굿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주 무가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내고 있는데 특히 <시왕맞이>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²⁴⁾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저승을 고찰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하나이다.

저승을 고찰한 연구의 대부분은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를 아울러 대상으로 삼거나, 무가 전체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되 저승은 그 일부로서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²⁵⁾ 제주 무가와 저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진한 아쉬움이 있다.

저승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무가 전반의 공간을 정리하고 무가의 공간을 콘텐츠화 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새롭게 펼쳐지는 신화의 나라(<http://www.koreamyth.culturecontent.com>)'를 들 수 있다. 신화 상상체계의 중핵이 공간에 있다고 보아, 우리 신화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공간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시각화했다. 신화공간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원경과 세부 모습을 형상화한 근경, 그리고 그 공간과 관련 있는 신들의 캐릭터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원천 서사 외에 새롭게 기획한 신화 시나리오까지 소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의 발전의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육지와 제주도 무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신화의 공간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육지와 제주도의 무가가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독자적 개성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24)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 여러 종교에서 본 죽음의 문제』, 창, 1990.

25) 권태효, 「서사무가에 나타난 이계여행의 양상」, 『한국문학연구』 제3집, 경기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1993.

오선근, 「서사문학에 나타난 타계여행 모티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조홍윤, 「한국지옥 연구-무(巫)의 저승」, 『민족과 문화』 제7집,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8.

이선근, 「서사무가에 나타난 저승인식과 그 교육적 가치」,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오세정,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 the other world) 연구: 수평적 방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신성계와 현실계의 복합양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무가의 공간, 특히 저승에 대한 선행 연구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육지의 무가와 제주도 무가를 함께, 혹은 무가와 설화를 함께, 또는 문헌 신화와 구비 신화(무가)를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무가와 공간에 대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의미 찾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어느 것 하나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무가와 무가의 저승에 대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특성을 찾아 전체 무가와 무가 공간의 보편적인 특성과 비교·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 무(巫)의 큰굿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를 중심으로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여 저승의 공간적 특성과 저승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큰굿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일반 본풀이를 말하며, 본풀이만으로는 제주 무(巫)에 나타나는 공간 및 저승양상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큰굿에서 구송되는 모든 제의언어(祭儀言語)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제의언어는 심방이 굿을 진행하면서 구송하는 모든 말을 뜻한다. 이를 대별하면 신의 내력을 풀이한 본풀이인 서사무가, 굿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공수와 축원하는 말과 제차(第次)를 진행하는 말인 교술무가, 본풀이의 내용을 연극적으로 구현하는 ‘굿놀이’에서 구송되는 대사인 희곡무가, 신이나 인간의 주관적 정감을 표현한 것으로 노랫가락이나 타령을 뜻하는 서정무가 등이 있다.²⁶⁾ 서사무가뿐 아니라 교술·희곡·서정무가를 아울러 대상으로 삼는다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기는 하나 제의양식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26)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pp.72~76 참조.

의도이다.

물론 큰굿이 하나의 제의이므로, 제의양식과 제의언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巫)의 실상이나 본질을 제대로 해명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 굿의 실연 상황을 대상으로 조사해야하겠으나, 지리적, 시대·사회적 여건 상 큰 굿의 실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의언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제의양식도 일정 부분 함께 고찰할 수 있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주무가를 채록한 여러 자료들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로서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²⁷⁾을 구체적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이 자료에 수록된 큰굿의 31개 굿거리를 대상으로 삼고, 내용의 보완을 위해 다른 자료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기본 자료와 작품²⁸⁾은 다음과 같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赤松智城·秋葉隆,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東文選, 199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27) 이 자료는 제주도 북부의 제의 집행 체계를 담고 있으며, 실제 굿을 녹음 전사(轉寫)하거나 무격의 구송을 필사 채록하고, 타 무격의 제의 실연과 관찰·대조·확인하여 첨삭한 자료이다. 각 제차의 통일적 이해를 위해 가급적 1인의 행제과정(行祭過程)을 수록하였는데, 특히 큰굿은 시종(始終), 제의 집행, 제차(祭次) 순으로 엮었고, 큰굿의 31개 굿거리를 담고 있다. 그 외 작은굿, 비뚤, 당굿의 자료도 함께 실려 있다. 큰심방인 안사인(安仕仁)의 보유 무가를 모두 채록하였고, 무가 중 아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타 무격의 자료를 함께 실었다.

본 자료는 자료의 조사·정리에 8년이 걸렸으며, 1969년에 탈고하고 1980년에 신구문화사에서 초판이 출판되었으며, 2007년에 개정판이 다시 출간되었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p.4~11 참조.

안사인(1928.7.3.~1990.1.5.) 심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무가 부문 기예능 보유자로, 제주시 용담동에서 21대 세습무인 임생(任生)의 장남으로 태어나 무계 집안에서 부모의 굿판을 따라다니며 성장했다. 19세 때 무업을 계승했으며, 49세에 심방의 최고위인 상신층에 올랐다. 못하는 굿이 없어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대의 굿을 도맡아 하였으며 굿의 예술화에 기여했다.

다음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참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4a3127n10>, 2012.08.24. 검색.

28) 이수자, 같은 책, p.41 참조. 본풀이 앞의 번호는 각 자료에 표기된 번호 및 차례.

이본의 내용을 함께 고찰할 때 구별하기 위한 기호로 *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 (조선무속의 연구 상), ***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기본 자료에 공통된 본풀이의 종류

제주도무속료사전		제주도무가본 풀이사전*	조선무속의연구**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본풀이의 공통성
제차명	본풀이의 종류	본풀이의 종류	본풀이의 종류	본풀이의 종류	
1. 초감제	1) 천지왕본풀이	11) 천지왕본	3) 초감제 8) 천지왕본푸리	1) 천지왕본풀이	4/4
5. 석살림	2) 군웅본편 3) 선양참봉본풀이, 조상본풀이	.	.	.	.
8. 불도맞이	4) 할망본풀이 (+ 저승할망본풀이) 5) 마누라본풀이	5) 할망본 (+ 저승할망본 + 마누라본풀이)	11) 명진국생불할망 본푸리	2) 삼승할망본풀이 3) 마누라본풀이	4/4(할망) 2/4(마누라)
	6) 이공본풀이	×	×		.
10. 초공본풀이	7) 초공본풀이	1) 초공본	4) 초공본푸리	4) 초공보풀이	4/4
12. 이공본풀이	8) 이공본풀이	2) 이공본	5) 이공본푸리	5) 이공본풀이	4/4
14. 삼공본풀이	9) 삼공본풀이	3) 삼공본	6) 삼공본푸리	6) 삼공본풀이	4/4
16. 시왕맞이	10) 강님차사본풀이 해십곡	8) 저승본 10) 차사본	13) 체사본푸리	7) 차사본풀이	4/4(차사) 2/4(저승)
	11) 스만이본풀이	9) 맹감본		8) 맹감본풀이	3/4
	12) 지장본풀이 [14]와 동일]	.	.	.	.
17. 세경본풀이	13) 세경본풀이	12) 세경본	7) 세경본푸리	10) 세경본풀이	4/4
21. 양궁숙임	14) 지장본풀이 [12]와 동일]	7) 지장본		9) 지장본풀이	3/4
23. 문전본풀이	15) 문전본풀이	4) 문전본	16) 문전본푸리	11) 문전본풀이	4/4
24. 본향드리	16) 본향본풀이	.	1) 서귀본당본푸리 2) 토산당본풀이	.	.
25. 각도비님	17) 칠성본풀이	6) 칠성본	14) 칠성본푸리	12) 칠성본풀이	4/4
.		.	9) 원탄강본푸리 10) 세민향데본푸리 12) 신중도푸리 15) 군농본푸리	.	.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큰곳의 제차에 따라 31개 곳거리를 실제 곳의 진행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이수자는 이것을 곳의 원리에 따라 큰곳 열두거리로 재조정하여 제시하였다.²⁹⁾

29) 이수자, 같은 책.

<표 2> 큰굿의 구조와 원리

제의명	의례 내용 또는 대상	의례 원리	본풀이
1) 초감제	종합 영신(迎神)	창세신에 대한 의례	천지왕본풀이
2) 불도제	아기산육신	탄생의 원리	생불할당본풀이, 마누라본풀이
3) 초공제	무조신(巫祖神)	의식(儀式)창조의 원리	초공본풀이
4) 이공제	주화(呪花) 관장신	죽음과 환생의 원리	이공본풀이
5) 삼공제	전상차지신	운명의 원리	삼공본풀이
6) 시왕제	저승시왕과 저승차사	사후세계에 대한 원리	(해심곡) 강림차사본풀이
7) 명감제	방액법 창조신	장수의 원리	사만이본풀이
8) 세경제	농경신과 목축신	.	세경본풀이
9) 칠성제	풍농신·부신(富神)	.	칠성본풀이
10) 성주제	주거공간 수호신	주거의 원리	문전본풀이
11) 분향제	지역 수호신	.	당본풀이
12) 일월조상제	한 집단의 조상신·수호신	.	조상본풀이
13) 종합송신의례	종합 송신(送神)	송신 의례	

위에서 재조정한 큰굿의 원리를 바탕으로 제시한 일반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저승은, 흔히 망자가 죽으면 가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巫)에서 저승의 개념과 범주는 상당히 다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승을 망자가 죽으면 즉시 맞닥뜨리게 되는 세계로서의 저승, 무가에서 흔히 원만한 영혼이 가서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저승, 그리고 신의 세계인 저승으로 대별하여, 저승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층위가 다른 저승을 동시에 다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제의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저

승의 다양한 층위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의 층위로 오인 또는 혼용하고 있는 실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저승의 개념과 범주에서는 그 층위를 구별한다 해도 무가에 나타나는 공간의 양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층위가 뒤섞일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II장에서는 무가의 공간 양상 전반을 살펴볼 것이다. 육지 무가는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제주 무가는 일반본풀이를 중심으로 공간 양상을 살핀 다음 육지 무가와 다른 제주 무가의 공간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제주 무가의 저승 형상화 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II장에서 추출한 공간 양상의 특징이 제주 무가의 저승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노정’과 ‘공간 요소’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승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살펴며, 각 요소에 따른 저승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 무가 속 저승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 무가의 풍부한 서사 속에 묘사된 저승의 공간 양상과 등장인물을 살핀 후 I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에 대한 인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후의 비가시적 세계인 저승은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여 형상화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저승의 모습과 기능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가에 형상화된 저승의 모습에서 무가 향유자들의 세계관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세계관이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진오귀굿에서 구송되는 <바리공주> 무가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진오귀굿이 망자천도굿인 점을 감안하여 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저승을 비교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 연구가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제주 무가의 저승 양상을 드러내거나, 특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교 자료로 <바리공주>를 검토함에 있어 홍태한의 연구³⁰⁾를 참고로 하며 필

30)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요한 경우 『한국무가집』³¹⁾의 내용을 보충하여 살펴보겠다.

제주 무가에서 저승이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 그리고 육지 무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그리고 육지 무가와 같은 뿌리를 가지면서 제주 무가가 달라졌다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왜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저승을 연구한 것이 없을까’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질문이 해결될 때 신화의 섬임을 자처하고 일만 팔천 신이 있다고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도 큰곳이 보존·전승되고 있는 제주 무(巫)와 무가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이 현대 문학이나 문화 콘텐츠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1) 김태곤, 『한국무가집』 1~3, 집문당, 1979.

Ⅱ. 무가의 공간

이 장에서는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 형상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공간 양상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육지 무가의 경우는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공간 양상과 공간 인식을 고찰하여, 이후 III장에서 저승의 특징을 비교·고찰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제주 무가의 경우 <초감제>와 무의(巫儀)에서의 청신(請神) 방식과 신들의 출현 방식을 통해서 원형적 공간을 도출한 다음 각 본풀이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각 공간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육지 무가의 공간

1) 공간 양상

<바리공주>는 한국 서사무가 가운데 대표적인 무가이다.³²⁾ <당금애기>와 더불어 전국적인 전승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곳의 현장뿐 아니라 여러 출판물을 통해서도 꾸준히 발간되어 읽히고 있다. <바리공주>는 특히 망자천도굿에서 구송되므로 저승관과 생사관을 확인하기에 유효한 비교 자료가 되며, 전국적 분포에도 불구하고 제주 무가에는 <바리공주>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육지 무가의 대표작으로서 제주 무가와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바리공주>는 초기 채록본인 배경재 구송 「바리공주」를 기본 자료로 삼고, 다양한 이본과 다양한 서사를 감안하여 홍태한의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³³⁾

32)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p.9.

33)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김진영,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2, 민속원, 1997.

홍태한, 이경엽, 『바리공주 전집』 3, 민속원, 2001.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4, 민속원, 2004.

(1) 기본 서사

홍태한은 <바리공주>의 서사단락을 모두 40개로 보고 이들 서사 단락의 유무와 공통성을 기반으로 무가권의 구획 자료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서사 단락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 양상을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서사 단락을 정리하고자 한다.

- ①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하기 위해 점복자에게 점을 치나 점의 결과를 무시하고 결혼하여, 연이어 딸만 일곱을 낳게 된다.
- ②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으나 구조자가 나타나 양육자에게 인도한다.
- ③ 바리공주가 성장하여 부모의 존재를 찾는다.
- ④ 부모가 병에 걸리는데,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물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약수물³⁴⁾을 구해 올 이가 바리공주임을 알게 되어 부모가 바리공주를 찾게 된다.
- ⑤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나며, 약수물을 구하러 길을 떠난다.
- ⑥ 바리공주는 도중에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 ⑦ 바리공주는 도중에 주어진 과업을 해결한다.
- ⑧ 바리공주는 도중에 지옥에 갇히나, 죄인들을 모두 지옥에서 구제한다.
- ⑨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나고 약수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른다.
- ⑩ 바리공주가 부모의 위독함을 알게 되어 부모에게 돌아오며, 오는 도중 도움을 받는다.
- ⑪ 바리공주가 꽃구경을 하다가 사람 살리는 꽃을 얻고, 저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구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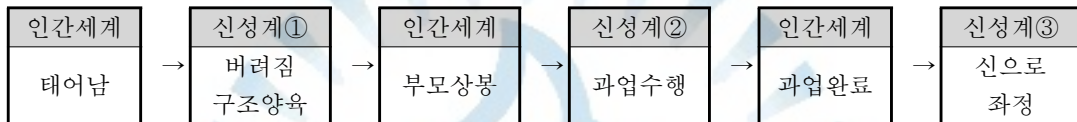
34) 약수(藥水)라는 말에 이미 ‘물’의 의미가 들어있으며, 표기도 맞춤법에 맞지 않으나 선행 연구자의 연구를 존중하고, 이본에서 구송자가 쓰는 용어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연구에서는 ‘약수물’이라고 쓰겠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중첩을 통해 의미를 더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바리공주> 이본에서 바리공주 부모의 병을 고치는 약을 ‘약수물’, ‘약물’, ‘약수’, ‘약려수’ 등으로 쓰고 있다.

- ⑫ 바리공주는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들으며, 언니들의 방해를 받지만 이를 물리치고 부모의 상여 행렬을 만나 부모를 살려낸다.
- ⑬ 바리공주와 배필, 그 아들과 주변 인물들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2) 공간 구조

서사 전개 순서에 따른 기본 공간 및 이동 양상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바리공주>의 공간 및 이동 양상



<바리공주>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오구대왕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인 인간계와 바리공주가 자라고 약수를 구해오고, 신으로 좌정하는 비일상적인 세계인 신성계가 그것이다.³⁵⁾ 일상적인 세계는 제약이 존재하는 세계로 시·공의 제약은 물론 병들고 죽음, 아들을 마음대로 낳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비일상적 세계는 시·공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 세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공간이기도 하다.

신성계①의 공간은 '(궁궐)→뫼동산 후원→육로 삼천리→황천강,유사강 피바다→동해바다 어느 곳→태양서촌'으로 나타나는데 이곳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나 인간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상의 신성계로 추정된다. 이곳은 인간 세상에서도 험로 삼천리를 가고 다시 까치여울 피바다 건너의 공간인 곳이다. 이곳은 석가세존이 목련존자와 가섭존자를 거느리고 사해(四海)를 구경하며 인간을 점지하러 오는 곳이다. 바리공주를 넣은 옥함조차도 까막까치와 초목의 인도와 금거북에 의해 이동 가능한 곳으로 조력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다. 또한 대왕마

35)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p.233 참조.

마의 병이 위중해지고 이를 위해 바리공주를 다시 찾으려 예대신이 이곳을 올 때 비리공덕할미와 할아버가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날짐승 버리지도 못 들어오는 곳을 엿지하여 들어 왔는가. <서울 배경재본>³⁶⁾

라고 하는데, 문맥 상 이곳은 귀신이거나 신인이라야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바로 ‘하늘이 아는 자식’인 바리공주가 버려졌는데도 살아날 수 있었던 공간인 것이며, 이후 바리공주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일종의 준비과정이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통과의례적인 성격을 지닌 곳으로 볼 수 있다.³⁷⁾

신성계②의 공간에서는 부모를 만난 후, 부모의 병을 고칠 약수를 구하러 떠나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전개되는 곳이다. 세부 과정은 ‘(인간세계)→평지 삼천리→석가세존이 설법하는 곳→힘로 삼천리(대해, 가시철성)→지옥→서천서역국(무장신선의 약수)→꽃밭→황천강(저승 길목)→(인간세계)’의 노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 삼천리는 바리공주가 주령을 한 번, 두 번, 세 번 흔들 때마다 길을 단축하여 도착하지만 이후의 힘로 삼천리는 석가세존이 내어준 ‘라화’의 도움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라화를 흔들면 큰 바다가 육지가 되고 가시철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이 가시철성이 무너짐으로써 팔만사천 여러 지옥문이 열려서 팔·다리·눈 없는 귀신들이 십왕(十王)으로 갈 이는 십왕으로, 지옥으로 갈 이는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³⁸⁾ 바리공주의 이러한 공적으로 인해 오구곳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혹은 극락으로 인도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한편 라화를 흔들어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에 갇혔던 이들이 가게 되는 정토문은 바로 지옥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6)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36.

37) 박종성, 「서사무가의 세계관 일고」, 『국문학연구』 제6호, 국문학회, 2001, p.23.

38)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39. <서울 배경재본>

그제서야 애기씨 깜짝 놀라 품안에 낙화를 꺼내어 흔들으시니
 잠졌던 문이 철커덩 열리는구려 담이 무너지니 그 많은 죄인들이
 나도 저승보내주 나도 극락보내주 야단났고도 변사나서
 또 한 번 굴러 동쪽을 바라보니 동에 문이요
 남쪽을 바라보니 남에 문이요 서쪽을 바라보니 서의문이요
 북쪽은 북에문이요 중앙을 바라보니 정토문이로구려
 정토문 당도하니. <공주 노재용본>³⁹⁾

또 <영덕 김석출본>에서는 길을 가다가 삼거리를 만나는데 오른쪽은 극락가는 길이고, 왼쪽은 지옥 가는 길, 가운데는 서천서역국 가는 길로 설정되어 있어 지옥과 극락은 수직 상·하방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이동도 수평적이다. 이후 서천서역국도 역시 걸어서 가는 곳으로 표현된다.

서천서역국은 동·서·남·북에 청·백·홍·흑의 유리문이 있고 가운데는 정렬문이 있는 곳으로, 무장신선이 약수물을 지키고 있는 곳이다.⁴⁰⁾ 역시 이곳은 날짐승과 벌레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곳에서 물값과 나무값을 위해 석삼년을 물 길고 불 때고 나무 베어주고, 아들 칠형제를 낳아준다. 그리고 꿈을 통해 부모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면서 꽃밭을 거치게 되는데, 꽃밭의 묘사는 화려하나 <유산가>류의 상투적인 꽃밭이 묘사되고 끝부분에서 ‘온갖 화초 각색 실과 온갖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파초구경 들어가면서 그 중에는 살아나는 갱선화 꽃이 피어 만발하였더라.’하고 하여 사람 살리는 꽃이 여러 꽃 중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 화려하나 신성함은 다소 미진하다.⁴¹⁾

39)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pp.235~236.

40) 약수가 있는 곳은 서천서역국, 삼신산골, 시황산, 시영산, 대왕산, 바위골, 세천세국 등으로 나타나는 데, 전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천서역국으로 나타난다. 약수를 지키는 존재는, 경기 지역 본에서는 무장승 혹은 무장선관으로 나타나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약수를 지키는 존재가 동수자로 나온다. 동수자는 하늘에서 죄를 얻어 약수터를 지키는 이로 아들 삼형제를 낳아야 하늘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41) 대개 약수를 길던 곳에 피어있던 꽃이 사람 살리는 꽃으로 기술되고, 대체로 별다른 언급없이 쉽게

돌아오는 길에 황천강에서 여러 배를 보게 되는데, 이승에서의 선악의 행위에 따라 그 타고 가는 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살아서 충·효·예·우애·화목한 사람 또는 선행자·진부정·사재삼성 등 사령공양의 곳을 받은 사람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배를 타고 간다. 살아서 불효·불충·역적·우애 없고 되를 속인 경우, 못 먹을 것을 동냥주고 남을 모해한 경우 등은 억만사천 제 지옥으로 율고 가는 배이며, 임자 없는 배는 전생에서 자식 없는 귀신이 해상으로 가는 배라고 한다. 타고 가는 배의 종류로 보아 무(巫)에서 중요시하는 관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석가세존이 준 라화를 통해서 지옥에 있는 이들을 구하여 정토 문을 열어준 경우와 삼거리에서 극락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서천서역국 가는 길이 나뉘는 경우와 저승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경우는 저승에 대한 공간 인식이 서로 다르다. 이를 통해 볼 때 육지 무가에서도 서로 다른 저승관이 여러 층위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성계③은 죽었던 부모를 살리고 바리공주가 신으로 좌정한 이후의 거쳐 공간이다. 대체로 ‘신으로 좌정했다’는 것으로 서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묘사는 찾을 수 없으나 무조신(巫祖神)으로서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므로 신성계의 어느 공간에 좌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꽃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부 이본 중에서 꽃밭을 따로 설정하였는데 꽃밭에 대한 묘사는 특히 <통영 박복개본>이 치밀하다. 그러나 꽃밭의 화려함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사람 살리는 꽃이 핵심 묘사 대상은 아닌 듯하다.

<표 3> <바리공주>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공간 특징
하늘	천상계	·하늘 ·(동수자)	·천상 개념은 있으나 직접 묘사되지 않음 ⁴²⁾ ·신적인 존재의 거쳐, 죄값을 다 치른 동수자가 돌아갈 곳
땅	부모국	바리공주의 부모	·제약이 존재하는 일상적 공간
	뒷동산 후원	바리공주	·바리공주가 일차로 버려진 공간 ·까막까치가 보호해 주는 공간
	태양 서촌	비리공덕할아버지 비리공덕할미 석가세존 바리공주	·궁에서 삼천리를 지나 황천강, 유사강, 까치여울 피 바다를 지나 동해 바다 건너 어느 곳 ·날짐승, 벌레도 못 들어오는 곳 ·석가세존의 명으로 바리공주가 양육되는 곳
	육로 삼천리	바리공주	·주령을 흔드니 천리씩 단축되는 비밀상적 공간
	석가세존 설법지	석가세존 등 보살	·바리공주를 돕는 조력자의 공간 ·라화를 얻음
	힘로 삼천리	대해, 가시철성	·라화를 이용하여 극복함
	지옥	억만귀졸	·바리공주가 죄인을 구원하는 공간
	서천서역국	무장신선	·약수와 사람 살리는 꽃이 있는 곳 ·인간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간
	극락과 지옥	망자	·이승에서의 행적에 따라 망자들이 가는 곳 ·심판의 공간
	꽃밭	(각종 꽃)	·사람을 살리는 갱신화가 있는 곳 ·생명의 원천 공간
물	황천강, 유사강, 까치노을 피바다	·	·태양서촌을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의 공간 ·극락과 지옥을 가는 배가 떠 가는 곳
	약수탕	·	·약수물이 있는 곳 ·일상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42) 바리공주에 대해 ‘하늘 아는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하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나타남. 동해안 지역본에서 나타나는 ‘동수자’는 하늘에서 죄를 지어 약수를 지키러 내려온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2) 공간 인식

<바리공주>에 나타나는 공간은 지상계이며, 전체 공간이 수평적으로 확장·연결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에 대해 홍태한은 <바리공주>의 공간 구조가 일상적 세계와 비일상 세계의 이원 구조이며, 일상계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일상계의 문제와 제약을 비일상 세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상의 현실세계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서천서역국에 도달한다는 인식은 극락 또는 신성의 세계를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결핍과 문제를 해결할 원천 공간이 천상에 있다고 보는 것보다도 인간의 소망 실현이 더 용이하기를 바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천상계의 경우, 천상계에 대한 공간은 상정되어 있지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일부 동해안 지역 이본에서 언급되는 정도이다.

동대산 동대천 동수자란 카는 수자 산정에는 천상 사람인데 베리데기도 천상사람이지마는 동수자도 천상 사람이라
동수자는 천상에 득죄하고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나왔는데 삼십년으로 <영일 김석출본>⁴³⁾

천상계에서 죄 지은 존재가 귀양 오는 곳이 지상계라는 관념을 통해, 천상계는 죄 없는 존재들이 있는 곳으로 이상화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천상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상의 먼 곳에 '서천서역국'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천상계는 극락과 상통하는 곳이고, 이는 다시 서천서역국의 공간 특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바리공주가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노정 중에 여러 공간들이 나오는데, 이들 공간들은 그 공간들의 성격과 개념이 모호하게 혼재되어 나타난다. 노정의 순서대

43)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pp.236~237.

로 지옥, 시왕, 서천서역국, 약수탕, 저승, 꽃밭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시왕(十王)의 경우는 사후심판을 하는 저승왕이다. 공간적으로는 지옥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극락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도산지옥에 흑탄지옥에 한빙지옥 금수지옥 발설지옥 철상지옥 거애지옥 흑악지옥 <공주 노재용본>⁴⁴⁾

밝은 길은 시왕길이요 넓고도 어둔 길은 칼산지옥 좁고도 밝은 길은 찾아가면
개똥밭이 유리되고 황모란 백모란 철쭉 진달래 노간주 상나무 맨드라미 봉숭아
영크러지고 뒤틀어졌으니 꽃가지 꺾지 말고 마늘밭 밟지 말고 뒤돌아 보지 말고
시왕세계 삼삼구품 연하대 시연으로 왕생극락하소서. <서울 새우젓집본>⁴⁵⁾

시왕들이 지배하고 심판하는 각각의 지옥을 인식하고 나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왕을 극락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죄인들이 나도 저승보내주 나도 극락보내주 야단났고도 변사나서
...중략...
중앙을 바라보니 정토문이로구려
정토문 당도하니. <공주 노재용본>⁴⁶⁾

압흐로는 황천강, 뒤흐로는 류사강
까치여울 피바다에 주줄이 써오는 배는 무슨 배뇨
...중략...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염불하고 가는 배로성이다
...중략...
억만사천 계 디옥으로 올고 가는 배요

44) 홍태한, 같은 책, p.239.

45) 홍태한, 같은 책, p.237.

46) 홍태한, 같은 책, pp.235~236.

…중략…

무자귀신(無子鬼神)이 해상으로 가는 배로성이다 <서울 배경재본>⁴⁷⁾

저승과 극락과 정토를 같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래 인용문에서 저승은 망자들이 가는 곳이면서, 전생(이승)에서의 행위에 따라 서방정토극락과 억만사천 제지옥과 망망대해의 공간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공간 성격과 층위의 혼재는 여러 이본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비밀상적 세계는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다. 바리공주가 많은 과업을 해결하고 아들 구형제를 낳아주고 일상세계로 돌아와도 일상 세계에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것으로 표현된다.

산신이 허시는 말씀 여기라 하는 디는 일년이 하루다 이년이 이틀이다 삼년이 사흘이로다 그렇지령 석삼년 아홉해를 살고나니 <보성 김행연본>⁴⁸⁾

비밀상적 세계의 시간과 일상적 세계의 시간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는 방식도 일상적 세계와는 차이가 난다.

아기가 유량을 한 번 휘둘너 집흐시니, 한 천리를 가나이다
두 번을 휘둘너 집흐시니, 두 천리를 가나이다
세 번을 휘둘너 집흐시니, 세 천리를 가나이다
…중략…

험로(險路) 삼천리는 엇지 갈여는야
가다가 죽사와도 가갓나이다
라화(羅花)를 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큰바다가 잇슬테니, 이것을 흔들면은
대해(大海)가 른디(陸地)가 되나니라 <서울 배경재본>⁴⁹⁾

47)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p.41~42.

48)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p.233.

인간의 입장에서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노정은 일상적 세계에서보다도 더욱 험난한 곳이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서라면 이러한 제약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약이 없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이곳은 일상적 세계의 결핍을 해소하고 인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기능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결국 이 공간 역시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생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계의 필요에 의해 무엇을 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도 인식된다. 바리공주가 도중에 지옥에 갇히는 내용이 있는데, <주옥선 소장본>에서는 나뭇값, 물값이 없어서 일직사자에 의해 지옥에 갇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⁴⁹⁾ 서천서역국에서는 무장신선에게서 약수를 얻기 위해 석삼년을 물 길고, 불 때고, 나무 해주고 그리고 아들도 칠형제를 낳아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에게는 반드시 인정을 걸어야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희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관념한다.

한편 망자가 이 공간을 갈 때는 공간의 양상이나 성격이 이승에서의 행적에 따라 달라진다. 살아서 충·효·예·우애·화목한 사람 또는 선행자·진부정·사재삼성 등 사령공양의 곳을 받은 사람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며, 살아서 불효·불충·역적·우애 없고 되를 속인 경우, 못 먹을 것을 동냥주고 남을 모해한 경우에는 역만사천 제 지옥으로 울고 가며, 전생에서 자식이 없었던 귀신은 임자 없는 배를 타고 해상으로 간다고 한다.⁵¹⁾

그리고 이승에서의 선악에 따라 심판을 하는 십대왕이 언급되고 지옥의 종류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으며 지옥으로 가는 길과 극락으로 가는 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49)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p.38~39.

50)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p.51.

51)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42.

이승에서의 삶의 결과대로 저승에서의 행적이 결정된다는 관념이 나타난다. 하지만 사령공양 곳을 통해 이승에서의 과오를 정정·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 결정된 세계로서 저승을 인식하면서도 미결정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를 희망하는 의식이 표현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2. 제주 무가의 공간

1) 원형적인 공간

(1) 하늘·땅의 이원적 공간

제주 무가에서 가장 원형적인 공간 인식을 보이는 것은 창세신화소가 있는 <초감제>⁵²⁾라고 할 수 있다. <초감제> 내의 「베포도엮침」⁵³⁾에는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의 공간, 신과 인간의 기본 거처로서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창세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공간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간 생성의 기본 축은 하늘과 땅의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각 공간의 형질 요소가 혼재, 혼합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하늘과 땅이 재배치된다.⁵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여 새로운 공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지혼합시 시절(時節), 하늘과 땅이 곱이 엮어 너 귀 줍썩허여 올 때 천지가 일무꿍뒤웁데다. 천지가 일무꿍뒤여올 때 계벽시(開闢時) 도업(都業)이 뒤웁데다.

52) 신을 청하는 제차이다. 굿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큰굿의 첫째 번 굿거리이다. 정장한 수심방이 가무로써 집행해 나가며 전 과정이 6단계의 소제차로 구성되어 있다.

53)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해설하여 바치는 부분으로 초감제의 첫째 번 소제차이다. 천지개벽에서부터 한국의 역사지리까지 자연·인문 사상(事象)의 발생을 차례차례 노래한다.

54)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신성계와 현실계의 복합양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21.

개벽시 도업으로 제이르자.

개벽시 시절, 천과이(天開)는 족(子)호고 지벽(地闢) 축(丑會)호야 인개이(人開)인이(寅會) 도업(都業)호야, 하늘 머리 올립고 땅의 머리 올려 올 때 상갑즈년(上甲子年) 갑즈월 갑즈일 갑즈시(甲子時)에 하늘 땅 새(間) 떡징ㄴ찌 곱이 나옴데다. 상경 계문 도업(三更開門都業) 제일롭긴, 요 하늘엔 하늘로 청이슬(靑露) 땅으론 흑이슬(黑露) 중앙(中央) 황이슬(黃露) 느려 합수(合水)될 때 천지인왕(天地人皇)도 업으로 제이르자.⁵⁵⁾

천지혼합 시절, 즉 태초의 공간은 하늘과 땅이 경계가 없고 사방이 캄캄하고 한 묶음이었다. 그러다가 하늘과 땅 사이에 떡징같은 금이 생겨나 천·지·인이 개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벽의 시작은 작은 금에서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서 청이슬, 땅에서 흑이슬, 중앙에서 황이슬이 내려 서로 합수(合水)하여 이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다. 각 공간에 속한 형질(이슬)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공간들이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생겨난 공간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인간 세상이다.

박봉춘 구송 「초감제」에서도 천지개벽의 방법과 기본적인 공간 인식이 유사하다.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천지혼합입니까
하날과 땅이 맞붓튼 것이 혼합이요
혼합한 우에 개벽이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개벽이뇨
하날과 땅이 각각 갈나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엇떠케 되엿스릿가
하날로부터 조이슬이 나리고
따으로부터 물이슬이 소사나와서

5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9.

음양이 상통한직,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⁵⁶⁾

천지가 ‘혼합’되었다는 것은 천(天)의 요소와 지(地)의 요소가 서로 뒤섞여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갈라서면서 개벽이 되되, 하늘에서 조이슬, 땅에서 물이슬이 내리고 솟아나 서로 상통하여 천·지·인이 생겼다고 인식한다.⁵⁷⁾ 기본 공간 구조는 하늘과 땅이며 그 사이에 인간 세상이 생겨났다는 것으로, 안사인 구송본과 같이 각 공간에 속한 형질(이슬)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공간들이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고대 신화들에 의하면 고대 한국인들은 세계가 기본적으로 ‘하늘(天)’, ‘땅(地)’, ‘물(水)’의 세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⁵⁸⁾ 이러한 한국적 사유구조가 제주 무가 중에서도 가장 원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신화소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유구조는 육지 무가와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특히 ‘물’의 요소가 제주 무가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⁵⁹⁾ 제주가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의한 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과 땅이라는 이원적 공간 인식은 굿의 형식에서도 나타난다. 제주도의 무의(巫儀)에서 청신의 방식은 두 가지 특징적 형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큰대’

56)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晨 옮김, 같은 책, p.231. 박봉춘 구송. (띄어쓰기 필자)

57) 하늘의 청이슬(조이슬)과 땅의 흑이슬(물이슬)이 합수되어 천지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관념은 천부지모(天父地母)적 관념으로 한국 신화의 천부지모적 신화 구조 관념과 흡사하며, 이는 우리나라 신화의 독특한 창세신화소이다.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96.

58) 한상우, 「제주 민담·설화의 한국적 사유구조와의 동질성 및 이질성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집, 한국교원대학교, 2003, p.180.

59) 김쌍돌이 구송 「창세가」에는,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님이 탄생하였고, 하늘과 땅은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륵님이 땅의 네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워 천지를 분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천지가 분리되고 인간 세상의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 제주 무가에서는 각 공간에서 나온 물의 상호작용으로, 육지 무가에서는 그 역할을 미륵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차이가 있다.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p.42~43 참조.

제주 무가 중에도 이본(진성기, 「도엽」, 같은 책, p.655, 고창학 구송)에 따라서는 김쌍돌이 구송본처럼 물이나 이슬의 작용보다는 도수문장이라는 옥황의 존재가 ‘한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또 한 손으로는 지하를 짓눌러’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기도 하나, 천지개벽 신화소를 비교적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본들(박봉춘 구송 「조감제」, 고대중 구송 「천지왕본풀이」, 안사인 구송 「베포도업침」)에서는 천지간의 이슬이 교합하여 세상을 만드는 천부지모적 신화 구조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긴 신목을 세우고 제상(祭床)과 신목 사이에 ‘뗏드리’라고 부르는 긴 무명으로 연결시켜 신을 청하는 방식이다. 천상의 신들이 이 ‘큰대’를 통하여 내려와서 큰대와 제상 사이의 무명으로 된 ‘뗏드리’를 건너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들이 수직적으로 강림하는 형식을 구현한 것이고, 신들의 세계가 수직적인 위치인 천상계에 있다는 관념의 소산이다.

다른 하나는 신들이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서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들이 오는 길을 ‘질침’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다. 질침은 신이 오는 길을 치운다는 뜻으로 신이 내림하는 길을 치워 닦아 맞이하여 소지를 살라 기원하고, 그 신을 집안의 기본 켓상에다 모셔 앉히는 과정이다. 신이 오는 길에 초목이 우거지고 돌이 많아 울퉁불퉁하니 풀을 베고 돌을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신이 걸어오기 좋게 다리를 놓는 과정으로 이는 수평적 우주관에서 나온 것으로 신들의 세계가 수평적인 지상의 어느 곳에 있다는 관념의 소산이다.⁶⁰⁾

하늘과 땅을 기본 공간으로 인식하는 양상은 굿을 할 때 청신이나 송신의 가사에서도 나타난다.

청신(請神)의 가사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올라 옥황상제, 내려 지부스천대왕, 산신대왕, 산신백관 …중략… 별런뒹게 쌍가매 둘러타명 오색 구름 번구름 둘러타명 호호호명 신느립서”와 같이 일군의 신명을 부른 다음 탈것에 타서 ‘신느립서’라는 말로 청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을 부르고 ‘신수품서’하는 말로 청하는 형식이다.⁶¹⁾

‘신느립서(내리십시오)’로 청해지는 신들은 천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거처가 수직적인 하늘이므로 내려오시라고 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신들은

60) 이에 대해 현용준은 전자를 수직적 강림형의 의례형식으로, 후자를 수평적 내림형 의례형식이라고 보고, 이는 그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신앙 형태가 복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 큰굿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체의 제차가 또한 이 두 가지 의례 형식의 복합으로 보고 이는 제주도 무속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신앙 형태가 결합된 복합 구조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212, pp.268~269.

61)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211.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58~65에서는 모든 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살려옵서’라는 말로 청신을 하고 있으며, ‘신느립서’와 ‘신수품서’를 간간히 섞어 쓰고 있다.

송신(送神) 때에 ‘돌아삼서(돌아가십시오)’라는 말로 보낸다.

‘신수품서(모이십시오)’라고 청해지는 신들은 문신, 당신(堂神), 혼령, 칠성, 조왕, 오방토신, 주목지신, 울담신, 눌왓신 등으로 이들 신들은 마을이나 집을 수호하는 신들로 신의 거처가 지상의 수평적 위치에 있으므로 모이시라고 청하는 것이다. 이들 신들은 송신 때에 ‘~에 점주(占住)함서’라는 말로 보낸다.⁶²⁾

청신이나 송신의 말을 통해 신들이 수직적으로 강림하거나 수평적으로 내림하는 형식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신들의 세계가 수직적인 위치인 천상에 있다는 관념의 소산이고, 후자는 신들의 세계가 지상의 어떤 곳에 있다는 관념의 소산이다. 공간을 ‘하늘·땅’의 이원적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2) 하늘·땅·물의 삼원적 공간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기본 인식이 ‘하늘·땅’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늘·땅·물’이라고 보았는데, 이후 땅의 공간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면서 ‘땅’과 ‘물’의 공간으로 분화된다. 이는 제주 무(巫)의 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신의 출자(出自)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무(巫)에서 신들은 대체로 그 형성 과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래부터 특수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계기에 의해서 특수한 능력을 지니게 되어 신이 된 것이다.⁶³⁾ 전자의 경우로는 하늘을 차지한 옥황상제 또는 천지왕, 땅을 차지한 지부사천대왕 또는 박이왕⁶⁴⁾, 저승을 차지한 대별왕, 이승을 차지

62)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66.

63)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206.

64) 옥황상제와 지부사천대왕은 무와 도교의 습합의 결과로 명칭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주 무가의 본래 하늘·땅차지 신은 천지왕과 박이왕이다. 박이왕은 원래 인간이지만 천지왕과 부부가 되어, 천지왕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인은 박이왕이 되어 인간 차재하고’라고 하여 인간차지 왕으로 봉해진다. 「초감제」에서 박이왕과 지부사천대왕은 같은 층위로 인지되고 있으므로, 지부사천대왕이나 박이왕이나 모두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신격으로 보고 있다. 赤松智城, 秋葉隆, 심우성 역, 같은 책, p.237, p.289.

박이왕은 정주병 구송본에서는 총명부인으로 되어 있다.

한 소별왕⁶⁵⁾, 산을 차지한 산신대왕, 물을 차지한 사마용신, 인간 목숨과 저승⁶⁶⁾을 차지한 시왕 등 일반신과 옥황상제의 막내딸, 동해 용왕의 막내딸 등 부락을 차지한 당신(堂神) 등이 있다.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신들은 일반신의 경우 원래부터 하늘, 땅, 산, 물의 공간을 점하고 있고, 당신(堂神)의 경우 신으로 좌정하기 위하여 출자(出自)하는 곳을 통해 무(巫)에서의 공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마을의 당신(堂神)들이 출현하는 곳은 크게 하늘·땅·바다(물)이다.

하늘에서 하강한 신들은 천상계의 규범을 어겨 추방되고, 지상의 산악·언덕·수림 등에 하강하여 당신(堂神)이 되고 있다.⁶⁷⁾

땅에서 솟아난 신들도 있는데, 탐라의 시조신인 삼을라 신인이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에서 솟아났다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남신들이 한라산이나 기타 제주도 내의 여러 곳에서 솟아났다고 되어 있다.⁶⁸⁾

바다 건너의 나라에서 내방한 신들도 있는데, 바다 건너의 나라에는 서울·나주·강원도·강남천자국·일본 등 국내외의 실재 지명도 있고, 홍토나라·오동나라·주년국·동경국·동해벽랑국 등 위치 불명의 국명, 동해요왕국·외눈백이섬 등 상상의 나라나 섬도 있다. 실재 지명이든 상상의 나라든 바다 건너 육지든 바다

65) 소별왕과 대별왕은 아버지는 천지왕으로 신이며, 어머니는 원래 인간으로 반인반신으로도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무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다스리므로 초자연적인 신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봉춘 구송본에서는 이들의 어머니를 박이왕으로 신격화하였고, 정주병 구송본에서는 신격화되지 않았다.

66) 망자들의 공간으로서, 대별왕이 차지한 저승, 즉 인간 세상과 대별되는 신의 공간으로서의 저승과는 층위가 다르다. 시왕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신격이며, 또한 이때의 저승은 인간 목숨차지 신으로서 망자를 심판하는 공간이다.

67) 조천면 와산리의 불도당신은 본래 옥황상제의 막내딸이었는데 불효죄로 추방되어 와산리 당오름의 꼭대기에 내려 왔다. 현용준, 「눈미 불도당」,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540~541.

제주시 삼도동의 각시당은 옥황상제의 막내딸인데, 부모의 지시를 어기고 궁녀들을 굶겨 죽인 죄로 추방되어 제주시 삼도동의 청대밭에 내려와 당신이 되었다. 현용준, 「각시당」, 같은 책, pp.522~523.

68) 구좌면 송당리의 당신은 알송당의 ‘고부니물’이라는 곳에서 솟아났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552~561.

구좌면 세화리 본향당신 ‘천조또’는 한라산의 백록담에서 솟아났다. 현용준, 같은 책, pp.570~571.

중문면 중문리 일대의 당신들은 한라산 서쪽 중턱의 소뫼된반에서 솟아났다. 현용준, 같은 책, pp.643~646.

기타 제주 당신의 남신들은 대체로 땅에서 솟아난 지중용출형 신들이다.

속이든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다 건너의 어떤 곳을 신이 출현하는 것으로 관념하고 있으며, 물(바다)을 공간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⁹⁾

기본적인 공간 구조인 하늘과 땅에서, 땅의 공간이 땅과 그 수평적 연장인 바다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이라는 기본 공간 구조에서 땅의 수평적 확대를 통한 공간의 분화 발전은 「젯드리앗혀살려움」⁷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차지 천주왕, 땅차지 박에왕
저승차지 대별왕, 이승차지 소별왕
옥황차지 옥황상재, 지왕상재
인간차지 인황상재
산차지 산신백관, 물차지 사마용신⁷¹⁾

본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신들이 차지한 영역을 통해 신의 직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제주 무가에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간은 하늘과 땅과 인간 세상 그리고 산과 물이다. 창세신화소와 비교했을 때 기본 공간 구조는 같으면서 지상 공간이 산과 물의 세계로 더 분화되어 나타난다.

69)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난 백죽도마누라는 천정배필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들어왔으며, 그 여섯째 아들은 아버지 수업을 잡아채어서 그 죄로 무죄석함에 넣어져 동해바다로 버려진다. 이후 요왕국에 도착하여 용왕의 셋째딸과 결혼하여 강남천자국으로 갔다가 세번란을 평정하고 다시 제주도에 들어온다. 현용준, 「케네깃당」,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552~561.

표선면 토산리 일월당의 처신은 본래 용왕황제국의 막내딸이다. 현용준, 같은 책, pp.606~610.

구좌면 월정리 본향당의 서당할마님은 본래 황도고를 황정승의 따님인데, 돌함에 담아 띄워 버려져서 제주도에 도착한 신이다. 현용준, 같은 책, pp.562~566.

구좌면 세화리당의 금상님은 본래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 명장인데, 역적으로 몰려서 제주도로 도망하여 백주또와 결혼한 신이다. 현용준, 같은 책, pp. 576~581.

바다 건너은 남신은 주로 역적으로 몰려서 혹은 제주도로 구경을 와서 신이 되며 주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고, 여신의 경우는 주로 상상의 나라에서 왔으며 신앙적 기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나라는 농업이나 기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물자가 풍요한 나라, 인간에게 복리는 주는 나라로 상정되어 있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208.

70) 큰곳에서 제향되는 모든 신들을 제의가 진행되는 제청(祭廳)으로 위계대로 자리에 앉혀 모시는 의식을 말한다. 젯드리란 ‘제(祭)’와 ‘드리(橋)’의 복합명사이며, 이때 드리는 “드리대로 말혼다.(순서대로 말한다.)”는 용례처럼 ‘순서’, ‘순위’의 뜻이 있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188.

71)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晨 옮김, 같은 책, p.237.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에 의거해 볼 때, 제주 무가에서 공간을 생성하는 기본 요소는 '하늘·땅·물'이며, 이들 요소로 생성된 원형적인 공간은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무의에서 청신되는 방식에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신과 지상의 연장선상에서 먼 길을 걸어오는 신을 통해 천상의 공간과 확장된 지상 공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신의 출현과 관련하여 땅의 공간이 수평적으로 연장되고 땅과 물(바다)의 공간으로 분화되어, 하늘, 땅, 물의 공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젯드리앗혀살려움」에서는 원래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신의 직능을 통해서 공간이 하늘, 땅, 물, 산으로 분화·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공간은 하늘·땅의 이원적 구조에서 하늘·땅·물, 즉 천상계·지상계·해양계로 분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이후 각 본풀이에서 더욱 분화·발전된 공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 분화·발전된 공간

제주 무(巫)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천상계·지상계·해양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각 본풀이에서는 공간들이 어떻게 분화·발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공간의 양상을 두루 살피는 작업이며 아울러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저승의 양상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기본 자료에 3곳 이상 수록된 일반본풀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서사 내용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⁷²⁾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서사 단락별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인물과 사건, 인물의 공간적 이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 등을 중심으로 공간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72)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1) 본풀이에 나타나는 공간

<천지왕본풀이>

- ① 해 둘, 달 둘인 이변을 해결할 꿈을 꾸고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와 총맹 부인을 부인으로 얻어 아이를 잉태시킨 후 이름과 본메를 주고 하늘로 돌아간다.
- ② 천지왕이 인색한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 ③ 쌍둥이 대별왕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올라간다.
- ④ 두 형제가 천 근 활과 백 근 화살로 해와 달을 쏘아 그 수를 조정한다.
- ⑤ 두 형제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수수께끼 내기와 꽃피우기 시합을 하여, 형인 대별왕은 저승을, 동생인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한다.

기본 공간 구조가 천상계와 지상계임을 알 수 있다.(①) 천상계의 천지왕은 천상과 지상의 질서를 모두 관장하고 있고, 지상의 질서는 직접 처리하였으나 천상의 질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 나타난다.(①,②,④)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연하는데 이를 통해 천상과 지상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세가에서 혼합되어 있던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고 각각에서 이슬이 나와 합수되어 이 세상을 만든 천부지모적 성격과 동일한 모습이다. 또한 천상계와 지상계는 단절되어 있지 않음도 알 수 있으며,(③) 천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두 형제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⑤)

<표 4> <천지왕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천상계	→저승	천지왕, 대별왕	·천상계와 지상계 상호보완적 ·궁73) 줄 타고 천상과 지상 왕래 가능 ·공간이 구체화 됨
땅	지상계	→이승	총맹부인, 소별왕	
			수명장자	

<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 ① 동해용왕 따님애기가 부모에게 불효하여, 인간생불 노릇을 하기 위해 무쇠철갑 속에 넣어져 쫓겨난다. 임박사에게 구조되어 그 부인에게 생불(아기)을 마련해 주나 해복(解腹)을 못 시켜 죽을 지경이 되도록 한다.
- ② 임박사가 옥황에 호소를 하여, 옥황에서 명진국따님애기를 생불로 내려 보낸다.
- ③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우연히 만나 서로 생불왕이라며 다투다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꽃피우기 내기를 한다. 사만오천육백 가지의 변성꽃을 피운 명진국따님애기는 생불왕이 되고, 검뉴울꽃(시드는 꽃)을 피운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저승할망으로 들어선다.
- ④ 생불할망은 옥황에서 가위·실 등과 꽃씨를 얻어 인간 세상 석해산에 불법당을 마련하고, 서천꽃밭을 만들어 오방에 오색꽃을 심는다. 생불할망이 이 꽃밭의 꽃으로 부부 사이를 다니며 아기를 점지한다.*
- ⑤ 생불할망이 생불을 점지하러 다니다 마마신인 대별상신의 행차를 만나 공손히 절하고 자신이 점지한 생불에게 마마를 곱게 시켜주기를 빈다.
- ⑥ 대별상은 여자가 갈 길을 막았다고 화를 내며 생불 자손들에게 더 심하게 마마를 앓게 만든다.
- ⑦ 생불할망이 복수를 위해 대별상의 부인에게 생불꽃으로 잉태시키고 해복

73) 박(匏)과 같은 말.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42, 주)113.

(解腹)을 시키지 않아 죽을 지경이 된다. 대별상이 용서를 빌고 생불할망을 위해 서천강 연다리를 놓아 대별상의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기본 공간 구조는 천상계와 지상계, 지상계는 다시 인간계와 수계로 나타난다. 수계인 동해용궁은 옥황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독자적 공간으로 나타난다.(①,③) 동해용왕이 딸을 직접 인간으로 보내 생불왕을 하라고 하며, 두 생불왕이 다룰 때, 옥황상제가 일방적 결정을 하지 않고 내기를 통해 생불왕을 가린 점을 볼 때, 옥황과 용궁은 독자적 권력 세계임을 알 수 있다.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가 생불왕 자리를 두고 대립관계를 형성하며,(③) 또 생불할망과 대별상신의 대립 관계도 나타난다.(⑤~⑦) 두 대립관계에서 모두 명진국따님애기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인간이면서 인간의 생명을 점지하는 명진국따님애기가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사고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용왕따님애기가 부모에게 버림 받을 때는 무쇠 석갑에 넣어져 바다에서 육지로 수평적으로 이동해 오고, 명진국따님애기는 옥황의 명에 따라 노각성자 부줄을 이용해 수직 이동을 한다. 대별상은 앞뒤로 영기, 몸기, 영서기, 파랑당돌영기를 세우고 별련독교, 쌍가마를 타고 삼만관속 육방하인 거느리고 인물도 감과 이승 장적, 저승 장적을 거느리고 이동한다.

<표 5> <생불할망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공간 특징
하늘	옥황	옥황상제	·인간계와 신계의 질서를 관장함 ·노각성자부줄로 지상과 왕래 가능
	저승	저승할망	·인간 아기의 생명을 앗아감
땅	명진국	명진국따님애기 (생불할망)	·생불할망 출신국, 미지의 먼 나라
	서천서역국모래밭		·생불할망 되기 위해 내기하던 곳
	석해산 서천꽃밭		·지상의 신성계, 인간 생불 접지 ·방위, 꽃색 따라 인간의 운명 달라짐
	대별상신의 집	대별상, 서신국	·지상의 신성계, 가마 타고 행차 ·저승장적과 이승장적 함께 관리 ·인간에게 마마를 앗게 함
물	동해용궁	동해용왕따님애기 (저승할망)	·천상과 대등하면서 독자적인 공간 ·인간 지상계를 귀양처로 생각 ·무쇠 석갑에 애기를 넣어 띄워보냄

<초공본풀이>

- ① 주년국에 사는 천하 임정국 대감과 지하 김진국 부인은 천하거부이지만 나이 원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권재 나온 황금산 도단땅 소사중의 권유로 불당에 원불수룩을 드리고 재물이 한 근이 부족하여 딸 자지멩왕아기 씨⁷⁴⁾를 낳는다. 아기씨가 십오 세가 되었을 때 부모는 벼슬을 살려 가게 되고 딸을 일흔여덟 구멍 살창에 넣어두고 여종인 느진덕정하님과 함께 남겨 두고 집을 떠난다.
- ② 황금산 도단땅 삼천선비들이 자지멩왕아기씨의 미모를 듣고 권재삼문 받아내는 내기를 하게 되고, 주자대선생이 중의 차림으로 권재삼문을 받으러 와서 아기씨의 상가마를 세 번 끌어 잉태를 시킨 후 본메를 남기고 떠나간다.

74) 본풀이에서 여주인공의 본 이름은 ‘저 산줄이 벌고 이 산 줄이 벌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즈지 멩왕아기씨’이다. 이하 자지멩왕아기씨로 약술한다.

- ③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여종과 함께 내쫓는다. 자지멩왕아기씨는 황금산으로 남편을 찾아가 시험을 통과하고 부인임을 인정받는다.
- ④ 주자선생이 아기씨를 불도땅으로 보내 살게하고 여기서 세 쌍둥이 아들,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를 낳는다.
- ⑤ 삼형제가 여덟 살에 서당에서 잡일을 도우며 글공부를 하고 열다섯 살에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데 삼천선비의 방해로 고난을 겪지만 결국 삼형제가 모두 장원급제를 한다. 그러나 중의 아들이라 낙방했다가, 다시 연추문을 활로 쏘아 맞추어 합격을 하나 다시 삼천선비의 농간에 의해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과거 합격을 포기한다.
- ⑥ 외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황금산으로 주자대선생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듣는데 전생팔자를 그르쳐야, 즉 심방이 되어 곳을 해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 ⑦ 너사메 너도령과 형제의식을 맺어 무악기⁷⁵⁾를 만들고, 삼천천제석궁에서 열나흘 간 무악기를 울리니 자지멩왕아기씨가 제석궁 밖으로 나온다.(살아난다.)
- ⑧ 천하대궐 금법당을 짓고 어머니는 이당을 지키고 이당에 삼만제기와 일천기덕을 보관하고 너사메 너도령은 일천기덕을 지키게 한다. 동해바다 쇠철이 아들을 불러 계상잔, 계천문, 천앙낙화, 시왕대반지 등 일월삼멩두⁷⁶⁾를 만들게 하여 금법당에 보관하게 하고, 이후 남자가 오면 아들 삼고 여자가 오면 딸을 삼아 무구와 제기를 내주어 곳을 하도록 돕는다.
- ⑨ 유정승따님애기는 여섯 살에 엽전을 받았으나 장난하고 놀다가 말판돌 아래 두었는데, 일곱 살 되던 해부터 생사의 고통을 받다가 일흔일곱 살

75) 무악기를 울랑국범천왕(북과 장구 등)이라고도 함. 무악기로는 소무들이 반주로 치는 징, 북, 설채(쟁과리와 유사), 장구가 있고, 심방이 손에 들어 울리는 악기는 요령과 바랑(바라)가 있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417.

76) 일월삼멩두는 신칼, 산판, 요령의 총칭으로 무점구(巫占具)를 말한다. 시왕대반지는 신칼을 말하고, 계상잔과 계천문은 산판을 말하는 것으로 천문, 상잔, 산대로 구성되어 있고, 천앙낙화는 요령을 말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48,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421.

에 곳을 잘하여 심방이 된다. 아랫마을 장자집 외딸이 신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유정승따님애기가 금법당에서 무구와 무악기를 빌려 열나흘 동안 전새남굿을 하고 장자집 외딸을 살려낸다.

기본 공간 구조는 천상계, 지상계, 수계로 나타나는데, 천상계는 죽음의 공간으로(⑤,⑦), 수계는 지상계에 필요한 기술과 물품을 공급해 주는 협력의 공간이면서(⑧) 지상의 존재를 도와주는 곳으로 형상화된다.⁷⁷⁾ ①, ②에 나오는 황금산 도단땅은 지상의 신성계로 나타나며, 인간의 소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면서도(①) 등장인물에게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②), 죽은 이를 살리는 방도를 알려주는 곳으로도(⑥) 작용한다. 주자대선생이 자지멩왕아기씨에게 가서 살도록 한 불도땅은 무조신 삼형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재생한 자지멩왕아기씨가 지키는 금법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④,⑧) 등장인물이 시련을 받는 세속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세속의 존재인 자지멩왕아기씨가 부모에게 쫓겨 황금산 도단땅을 찾아가는 과정은 남해산, 북해산, 칼쫂다리, 애순다리, 울은드리, 거은물, 조심드리, 청수와당(바다), 흑수와당을 건너고 다시 수삼천릿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길은 부모 자식이 이별하고 자식이 부모 품을 떠날 때, 이별하는 부모의 심정을 자식이 길을 가는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⁷⁸⁾ 또한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자식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불도땅은 지상의 인간계에 있지만 신성공간이므로, 인간인 자지멩왕아기씨가 가기에는 너

77) 임신한 자지멩왕아기씨가 부모에게 쫓겨나서 황금산 도단땅으로 주자대선생을 찾아갈 때, 청수와당, 흑수와당을 지나서 나타난 수삼천리 길을 가지 못해 울고 있을 때, 용왕국 거북사자가 나타나 일행을 등에 태우고 수삼천리길을 가도록 돕는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39~140.

78) ‘부모가 우릴 죽이젠 할 때 칼쫂으로 죽이젠 허난 칼쫂다리가 뛴읍니다.’

‘부모가 죽식을 내여눌 때 애순 먹슴(마음) 먹으난 애순드리 뛴읍네다’

‘부모 죽식 이별허연 등을 지고 나아오난 등진드리 뛴읍네다.’

‘부모 죽식 이별할 때 죽식상엿 먹슴이라 울은 먹슴 먹어네 금봉채(金扇)를 내여주니 울은드리 뛴읍네다.’

‘부모 죽식간에 죽식이 나고가니 거은물(거슬러 흐르는 물) 뛴읍네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38~139.

무 먼 길이로 험난한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도달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⁷⁹⁾

<표 6> <초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삼천천제석궁 (≡저승)	자지멩왕아기씨	·죽음의 공간
	삼시왕	삼형제	·신칼을 마련하여 양반에게 원수 갚기 위해 올라간 곳
땅	황금산 도단땅	주자대선생	·지상의 신성계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
	불도땅	자지멩왕아기씨 삼형제	·자지멩왕아기씨가 고난을 겪고 삼형제를 낳는 곳
	천하대궐 금법당	자지멩왕아기씨 너사메너도령	·불도땅의 어주에 삼죽거리에 위치 ·무역을 위한 삼만제기와 일천기덕 보관 ·인간계에 있는 신성한 곳
	주년국	임정국대감 김진국부인	·삼형제의 외조부모가 있는 곳
	삼천서당 과거시험장	삼천선비 삼형제	·세속적 공간 ·삼형제가 시련을 겪고 세속적 욕망이 좌절되는 곳
물	동해바다	쇠철이	·무구 만들 기술과 쇠를 공급해주는 곳
	용왕국	거북사자 백강아지	·지상의 인간을 도와주는 곳
	청수·흑수와당	자지멩왕아기씨	·신성계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곳

<이공본풀이>

- ① 천하거부 임진국과 가난한 김진국은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절에 원불수룩을 드리고 임진국은 딸 원강암이를, 김진국은 아들 원강도령⁸⁰⁾을 낳

79) 아버지가 준 금풍채(금부채)를 이용해 청수와당 흑수와당에 다리를 놓아 건너며, 이후의 수삼천리길은 용왕국 사자가 등에 태워 건네준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39.

80) 네 자료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름을 살펴보면 원강아미와 활락궁이는 거의 같으나 원강도령은 자료에 따라 원강도령, 사라도령*, 김생원**, 사라도령***이라고 되어 있다. 원강도령은 원강아미에서 전이됐을 가능성이 크고, 김생원은 개별적인 고유 명사가 아니다. 여주인공과 아들의 이름이 특별히 개별

고 서로 구덕혼사를 맺고 자식이 십오 세가 되어 결혼시킨다.

- ② 원강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가게 되자 원강아미도 함께 길을 떠나
나 임신한 몸이라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제인장자집에 종으로 팔려
남게 된다. 원강도령은 아이 이름과 본떼를 남기고 떠난다.
- ③ 제인장자가 원강아미를 탐내나 끝까지 이겨내고 아들을 낳아 신산만산할
락궁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 ④ 제인장자에게 뽕박을 받다가 할락궁이가 십오 세가 되자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떠난다.
- ⑤ 제인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여버린다.
- ⑥ 먼 길을 가서 독막립친 물, 잔등친 물, 목친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당도
한다.⁸¹⁾ 아버지 원강도령은 본떼로 부자관계를 확인한 후 어머니 원강아미
가 죽음을 알려주고 서천꽃밭의 여러 꽃을 주고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살
려서 데리고 오라고 한다.
- ⑦ 할락궁이는 '수레멸망악심꽃'으로 장자 일족을 죽이고, '도환생꽃'으로 어
머니를 살려 서천꽃밭으로 돌아간다.
- ⑧ 원강도령은 서천꽃밭 대왕이 되고, 할락궁이는 꽃감관이 되며, 원강아미
는 서천꽃밭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신이 된다.*

지상계가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서천꽃밭을 들어가기 전에 세 종류의 물을 건
너는 것으로 되어 있다.⁸²⁾(⑥) 서천꽃밭은 제인장자 집에서도 천리, 수만리를 지

성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라도령이 원래의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본
풀이의 소설본인 <안락국전>이나 『월인석보』 중의 「안락국태자경」에는 주인공 이름이 각각 사라
수대왕, 원앙부인, 안락국으로 되어 있다. 이수자, 같은 책, p.56 참조

본고에서는 기본 자료에 의거 원강도령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81) 무릎까지 차는 물, 잔등까지 차는 물, 목까지 차는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당도한다. 아버지 원강도령
은 어머니 원강아미가 제인장자에게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고문당할 때 흘린 피눈물이 바로 할락궁이
가 건너온 물이라고 설명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12~113.

82) 다른 구송본에서는 서천꽃밭이 저승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으로 떠날 때 저
승에서 삼차사가 **내려와서** 함께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p.72~73, pp.84~85.

안사인 구송본에서는 시종일관 수평적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에 준하여 공간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서 다시 물을 건너야 있는 곳으로, 사람을 살리는 도환생꽃, 감정을 조절하는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수레멸망악심꽃이 있는 곳이다. 생불할망이 주관하는 꽃밭이 인간에게 아기를 점지해주는 꽃밭이라면 이곳이 관리하는 꽃밭은 수레멸망악심꽃의 내력을 설명하는 꽃밭으로 이전의 꽃밭보다는 꽃의 종류와 기능이 더 분화되어 나타난다.(⑦)

<표 7> <이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땅	서천도산국 ⁸³⁾	원강도령, 원강아미의 고향	·인간계
	제인장자집	제인장자와 일족 원강아미, 할락궁이	·인간계 ·죽음의 공간이면서 환생 공간 ·악인을 정치하는 공간
	서천꽃밭	꽃감관, 할락궁이	·각종 주화가 있는 신성공간
		원강아미 15세 이전 죽은 아이들	·보상과 위무의 공간
물	독막립친 물 잔등친 물, 목친 물	할락궁이	·인간계와 신성계의 경계 공간

<삼공본풀이>

- ① 거지였던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궁에궁전궁납은 결혼하여 딸을 셋 낳는데, 셋째딸 가문장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차츰 부자가 된다.
- ② 어느 날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놓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고 묻는데, 언니 둘은 부모 덕에 먹고 산다고 하였다. 가문장아기는 자기의 배꼽 밑 선그릇⁸⁴⁾ 덕으로 먹고 산다고 하여 부모에게 내쫓긴다.
- ③ 언니들이 떠나가는 가문장아기에게 부모의 말을 거짓으로 전달해서, 가문

83)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60.

84) 선금(立線). 여자의 성기를 일컬음.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69, 주)52.

장아기가 언니들을 청지네와 버섯으로 환생시켜버리고, 아버지는 딸 소식을 들으려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눈이 찢려 장님이 되고 다시 가난하게 된다.

④ 마통이네 집에 머물게 된 가문장아기는 죽은마통이와 결혼을 하고, 죽은 마통이가 마를 캐던 곳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⑤ 안맹한 부친이 거지가 된 것을 안 가문장아기는 결인잔치를 베풀게 되고, 부모는 잔치 마지막 날 잔치를 베풀 부자가 바로 자신이 내쫓은 딸 가문장아기임을 알고 깜짝 놀라 눈을 뜨게 된다.

지상의 공간만 나타나고 그 공간들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공간이지만 가문장아기가 가난을 부로 바꾸어 주고, ①, ④ 거짓말하는 언니들을 징치하여 청지네와 버섯으로 환생시키고 ③ 눈 먼 부모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은 ⑤ 전상신⁸⁵⁾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므로, 가문장아기가 있는 곳은 세속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삼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땅	가문장아기 부모집 (주년국)	가문장아기, 가족들	·가문장아기가 있는 공간=풍요의 공간 ·가문장아기가 없는 공간=결핍의 공간 ·마음보 나쁜 악인 정치의 공간
	가문장아기와 마통 이집	가문장아기, 마통이, 안맹한 부모	·가문장아기가 있는 공간=풍요의 공간 ·가문장아기가 있는 공간=존재변환의 공간 (아버지의 개명(開明))
	마통이가 마 캐는 곳	가문장아기, 마통이	·가문장아기가 있는 공간=풍요의 공간 (궁정·성실함이 복 받음)

85) 삼공신은 가문장아기를 말하며, 전상차지 신이다. 전상이란

① 전생(前生)의 와음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나 그러한 마음, 곧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마음을 말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60, 주)446.

② 전상신이 보여준 능력은 아버지나 두 언니, 그리고 죽은마통이의 삶의 양상과 질을 바꾼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 여하에 따라 그들의 삶의 양상을 결정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운명의 신으로 보기도 한다. 이수자, 같은 책, p.213.

<혜심곡(저승본)>⁸⁶⁾

- ① 병자의 정명이 다 되어 강님차사가 적패지를 들고 병자의 이름을 세 번 불러 혼정을 빼낸다. 손에 홍사줄 발에 족쇄를 채워 걸리면서 저승을 들어간다.
- ② 멀고 먼 길을 걸어 저승 초군문에서부터 오군문까지 옷을 찢어 인정을 걸고 통과하여 감옥으로 들어간다.
- ③ 제1 진강대왕부터 제12 생불대왕을 거치고 제13~14 대왕이 서류를 정리하여 제15 동자판관이 판결을 내린다.
- ④ 죄가 극심한 자는 인간 세상에 귀양 가서 초목이나 벌레, 뱀으로 환생하고 그 외 죄값을 치르거나 선업을 쌓은 망자는 저승 마을에서 영생하거나 원할 때는 새나 나비로 환생한다.

인간계의 병자의 집에서부터 수평적 이동을 통하여 저승 초군문에서 오군문을 지나 감옥으로 들어가고 다시 여러 대왕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흔히 지옥이라고 하면 지하에 있는 감옥을 연상하고 수직 하방을 연상하지만 본풀이에서 수직 하방의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86)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혜심곡」으로 되어 있으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서는 「저승본」이라 되어 있다. 그 외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불교계 회심곡 중의 하나인 「별회심곡」과 서사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표 9> <해심곡>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땅	병자의 집 안	병자	이승, 인간 세계
	병자의 집 바깥	망자와 차사	저승의 시작
	멀고 험한 길	망자와 차사	저승 가기의 어려움
	초군문~오군문	도대장, 망자	인정을 걸어야 통과 가능
	십오 대왕 지옥	대왕과 망자	심판의 공간
	저승 마을	선업 쌓은 망자	영생의 공간
	인간 세계	죄업이 큰 망자	귀양지로서의 인간계, 축생·초목

<강님차사본풀이>⁸⁷⁾

- ① 버무왕의 아들 중 아래 삼형제가 사주팔자가 굿어 단명할 것이라 하여 동개남 은중절 소사중이 방액을 알려주는데, 삼형제가 절에서 3년 동안 공양을 드려야 한다고 한다.
- ② 법당에서 공양을 드리다가 만 3년이 되는 날 버무왕 아들 삼형제는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져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사님이 과양땅을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금기를 알려준다.
- ③ 삼형제가 과양땅을 지나는데 갑자기 시장기가 돌아 걸음을 뚝 수가 없어 부자집에 들어가 밥을 청하는데, 주인 여자는 삼형제의 재물이 탐나서 그들을 죽이고 시체를 주천강 연못에 버린다.
- ④ 칠일 후 주천강 연못에 삼색꽃이 피어 있어 과양생이 처가 이것을 꺾어다 집 출입문에 걸었더니 지날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므로, 꽃을 불속에 던져버린다.
- ⑤ 불을 빌리러 온 이웃 할망이 구슬을 발견하고, 과양생이 처가 이를 빼앗아 입 속에 굴리며 놀다가 삼키고 이후 태기가 있어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8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본풀이」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본풀이와의 구별을 위해 「강님차사본풀이」라고 명기한다.

- ⑥ 삼형제가 과거에 동시에 합격하고 집에 돌아온 날, 부모에게 절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리자, 과양생이치는 김치원에게 그 죽은 이유를 묻는 소지를 올린다.
- ⑦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원은 강님을 이승차사로 삼아 저승으로 가서 염라왕을 잡아오도록 한다.
- ⑧ 강님은 첫날밤 소박을 놓은 큰부인의 도움과 큰부인집 조왕할망과 일문전의 도움, 그리고 저승 길나장 이원차사의 도움으로 행기뫼를 지나 염라왕이 있는 궁궐의 연주문 앞에 당도한다.
- ⑨ 강님에게 잡힌 염라왕은 강님의 용맹함을 인정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과양생이 부부의 죄상을 밝혀 징치하고 버무왕 아들 삼형제를 살려내어 집으로 돌려보낸다.
- ⑩ 염라왕이 강님의 용맹함을 알고 저승 차사로 삼고자하여 김치원과 강님을 나누기로 하고 혼정으로 빼서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
- ⑪ 강님이 인간의 정명대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오게 하는 적패지를 돌리러 가다가 까마귀에게 말기는데 까마귀의 실수로 인간이 죽는 순서가 엉망이 된다.
- ⑫ 삼천 년이나 살던 동방삭을 강님의 지혜로 잡게 되어, 이승차사였던 강님은 용맹과 똑똑함을 인정받고 사람 잡는 인간차사로 들어서게 되었다.

천상계, 지상계, 수계의 공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계는 인간의 생사의 원리와 운명에 대해 해명을 해 주는 존재가 있는 공간이다.(⑨) 수계로서 행기뫼는 특히 공간의 층위가 달라지는 경계 공간으로 작용하며,(⑧) 주천강은 죽은 버무왕 아들들에게는 죽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환생의 공간이 된다.(③,④,⑨) 지상계는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공간(①,②)과 결국 운명에 굴복하는 공간(③), 그리고 천상계 존재의 도움으로 다시 운명을 극복하여 환생하는 공간들로 구성된다. 강님이 저승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조력자들이 나타나는데, 신의 현현과 동시에 이승 공간은 저승 공간으로 그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⑧)

<표 10> <강림차사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염라국	염라왕	·이승 인간의 생사의 원리 해명 공간
땅	동경국	버무왕과 아들	·인간계 ·수명연장을 욕망하는 공간
	동개남 은중절	대사중, 버무왕 아들	·인간계 내 신성 공간 ·운명 회피의 공간
	과양땅 ⁸⁸⁾	과양생이 부부 버무왕(과양생이) 아들	·금기의 공간, 죽음의 공간 ·운명에 휘말리는 공간
	김치원의 동헌	김치원, 강림, 과양생이 처 염라왕	·인간사 의문 해결 공간 ·죄악을 판단·징치하는 공간
	강림의 큰부인집	강림의 큰부인	·저승을 가도록 돕는 조력자의 공간 ·기다림의 공간
	제주성 남문 밖	강림	·이승과 저승의 경계 공간 ·출발과 도착 공간
	일흔여덟 갈림길	강림, 이원사제	·저승을 가기 위한 전용 길
물	주천강	버무왕 아들 시체 삼색 꽃	·버무왕 아들의 죽음과 환생의 공간
	행기못	강림, 저승 못 간 원혼들	·새로운 세계 진입의 경계 공간

<사만이본풀이>

- ① 주년국 땅 소사만이 조실부모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동네 존장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 ② 손재주 좋은 부인이 살림을 꾸려가나 살기가 힘들어 살 방도를 마련하고자 돈 석냥을 사만에게 주니 사만이는 이 돈으로 마상총(馬上銃)을 사서

88) 제주시 광양을 말하며 지금의 제주시 이도동 일대이다. 흔히 ‘과양’이라고도 발음한다. 제주시 이도2동에 과양당이 있으며, 전통적인 무속의 굿당 또는 신당이였으며, 본향당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새롭게 펼쳐지는 구전 신화의 나라’에서는 구전 신화의 서사와 공간을 소개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과양’을 전라도 광양의 위치에 표시하고 있다.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육지무가의 입장에서 공간을 정리하다 보니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연구가 필요하다. http://koreamyth.culturecontent.com/space/space_depth.asp?area=5

사냥을 하게 된다.

- ③ 사냥을 하나 계속 허탕만 치다가 어느 날 풀숲에서 백년해골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와 조상으로 모시게 된다.
- ④ 사만이가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 정명이 다되어 삼차사가 사만이를 잡으러 오는데, 이때 백년해골이 꿈에 나타나 방액을 알려준다.
- ⑤ 차사가 오는 삼도전 길에 정갈한 음식을 마련하고 집에서는 재물을 후하게 차려 대시왕연맞이를 하여 천수방액을 하게 한다.
- ⑥ 사만이의 음식을 얻어 먹은 삼차사는 할 수 없이 동자판관의 저승 장적을 고쳐 사만이는 삼십삼 세 정명을 삼천으로 고쳐 삼천 년을 살게 된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공간이 나타난다.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지상계이지만(⑤) 염라왕을 비롯하여 동자판관과 저승차사들이 나타난 공간은 신의 세계로 변모한 공간이며,(⑤) 이 공간에서 사만이와 그 아내가 차사와 염라대왕을 잘 대접하여 방액을 성공하게 된다.(⑥) 차사들은 먼 길을 걸어서 와서 피곤하고 시장한 것으로 표현되고 수평의 공간을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염라대왕과 판관은 이승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저승은 수직 상방의 천상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차사들은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이 걸리는 법이라고 하여 사만이의 정명을 연장하게 되는데,(⑥) 인간의 음식을 먹고 저승 규칙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접 받은 것에 대해 보상을 꼭 한다는 점에서 저승은 인간 소망 실현의 공간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신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표 11> <사만이본풀이>의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저승	삼차사	·사만의 정명을 연장, 방액이 가능하게 되는 공간
땅	주년국	사만이 가족	·사만이 사는 인간 세상
	삼도전거리	삼차사 사만이	·차사가 오는 곳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화 된 공간 ·사만의 방액을 위한 공간
	사 만 이 의 집	염라대왕 등 시왕	·대시왕연맞이를 행하는 동안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 ·굿하는 동안 저승 차사들이 저승 장적을 고쳐 씌

<지장본풀이>

- ① 남산과 여산이 자식이 없어 절에다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낳는데 지장아기라 이름 짓는다.
- ② 지장아기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사는데, 네 살에 할망, 하르방이 죽고, 다섯 살에는 아버지가 죽고, 여섯 살에는 어머니가 죽는다.
- ③ 외삼촌댁에서 구박을 받으며 사는데, 옥황에서 부엌새를 보내 보호하고 키워준다. 열다섯 살이 되어 서쪽의 문수 님의 아들과 결혼을 한다.
- ④ 아들을 낳고 재산도 물려받는데 열여섯에 시할망과 시하르방이 죽고, 열일곱에 시아방이 죽고, 열여덟에 시어머니 죽고 열아홉에 낭군이 죽고 아들도 죽는다.
- ⑤ 지장아기가 팔자를 한탄하며 시누이 방으로 가니 시누이가 사납게 욕을 하여 집을 나온다.
- ⑥ 지장아기가 주천강에서 지나가는 대사에게 자신의 사주팔자를 묻는다. 초년 운은 좋으나 만년 운은 나쁘므로 양가부모와 자식의 전세남곳과 후세남

89) 전세남은 병자를 살려주기를 기원하는 곳이고, 후세남은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비는 곳이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44, 주)1380, 주)1381.

- ⑦ 지장아기는 새남굿을 위해 직접 험난한 고초를 겪으며 고통을 장만한다. 뽕나무 심고 누에 키워 새남굿에 쓸 비단을 짜고, 각 신들을 맞이할 신 맞이용 다리를 만들고 무기구의 끈을 만든다. 호름춤치와 아강에베포, 극보야잘리⁹⁰⁾ 등을 만들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재를 올릴 곡물을 모은다.
- ⑧ 심방을 불러 양가부모와 남편, 아들을 위한 새남굿을 하고 이후 지장아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 새(鳥) 몸으로 환생하는데, 이 새는 사람들에게 풍문조화를 주는 새(邪)이다.

서사 진행은 모두 지상계에서 일어난다. 지장아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은 모두 죽게 되는데 이러한 지상은 지장아기에게 슬픈 숙명의 공간이다.(②~⑤) 어느 날 대사를 만나 숙명의 굴레를 벗어날 방도를 알게 되는 주천강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공간이다.(⑥) 이후 손수 새남굿의 재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새남굿을 모두 한 후 새(鳥) 몸으로 환생을 하게 된다.(⑦,⑧)

<표 12 > <지장본풀이>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옥황	(옥황상제)	·부영이로 하여금 지장아기를 보호하게 하는 공간
땅	지장아기의 친정	지장아기, 친정부모	·사랑받고 인정 받으나, 가족이 모두 죽는 공간
	지장아기 외삼촌집	지장아기, 부영새	·박대받는 공간 ·부영이를 통해 하늘의 보살핌 받는 공간
	지장아기 시택	지장아기, 시부모	·사랑받고 인정 받으나, 가족이 모두 죽는 공간
	지장아기 시누이 방	지장아기, 시누이	·박대받고 내침을 받는 공간
	주천강	지장아기, 대사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공간
	새남굿관	지장아기	·원혼의 새남을 위한 공간

90) 시주를 받아 넣을 자루, 가방, 주머니 등을 말함.

<세경본풀이>

- ① 김진국대감과 자지국부인은 천하거부이지만 권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절에 원불수룩을 드리고, 한 근이 모자라 딸을 낳고 자청비라고 이름을 짓는다.
- ②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가 주천강 연못에서 빨래를 하다가 글공부 가는 문도령을 만나게 되고,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떠난다.
- ③ 서당에서 삼 년 동안 한 방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문도령이 하늘 옥황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장가를 가기 위해 서당을 떠나자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이 여자임을 알리게 된다.
- ④ 문도령은 자청비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인연을 맺고 꼭써 한 방울과 본메를 주고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떠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
- ⑤ 자청비는 게으른 정수남에게 일을 시키지만 오히려 정수남은 말 아홉 마리 소 아홉 마리를 잡아먹고, 혼이 날까봐 굴미굴산에서 문도령을 봤다고 거짓말을 한다.
- ⑥ 굴미굴산으로 문도령을 만나러 간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속았음을 알고 정수남의 겁간을 피하기 위해 정수남을 죽이게 되고 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 ⑦ 남장을 하고 길을 가던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흥협을 주는 부엉새를 잡아주고 사위가 된다. 생명꽃을 얻어 정수남을 살려내지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다시 부모에게서 쫓겨난다.
- ⑧ 주모땅 주모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살면서 비단을 짜는데, 문도령 혼수용 비단에 자청비 이름자를 새겨 문도령을 만나게 되지만 문도령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⁹¹⁾ 화가 난 문도령은 돌아가 버리고, 이로 인해 주모할망에게서도

91) 사랑하는 문도령이 왔는데도 자청비가 바늘로 문도령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고 결국 문도령이 화가 나 돌아가게 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달춘 구송본에서는 그 이유를 ‘생인인지 귀신인지 갑갈라보기 위해서’ 바늘로 찌른 것으로 나와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253.

쫓겨난다.

- ⑨ 자청비는 중이 되어 떠돌다가 문도령과 자청비가 목욕했던 물을 길러온 선녀를 도와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난다.
- ⑩ 자청비를 숨겨놓고 사랑을 나누던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문도령의 부모가 낸 시험을 통과한 후 결혼을 하게 된다. 먼저 결혼이 약속 되어 있던 서수왕 아기는 이열에 바쳐 자살을 하게 되고 온갖 흉험을 주는 새 몸으로 환생한다.
- ⑪ 궁안에서는 자청비가 예쁘다고 소문이 나서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썸하려고 한다. 자청비의 지혜로 일차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 외눈백이 할망에게 속아 문도령은 죽는다. 그러나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하여 푸대썸을 모면하고 서천꽃밭에서 도환생꽃을 가져와 문도령을 살린다.
- ⑫ 천제국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수레밀망악심꽃을 가져와 변란을 물리치고 천제왕에게서 오곡 열두시만국을 얻어 문도령과 함께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 ⑬ 굶어서 죽어가는 정수남에게 밥을 준 늙은이의 밭에는 풍작을 주고, 밥을 주지 않은 아홉 형제의 밭에는 흉작을 준다. 이후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으로 좌정한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교차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천상의 공간은 문도령의 원래 거처인 하늘옥황과 변란이 일어나는 천제국, 자청비를 푸대썸하려는 선비들이 있는 궁안, 문도령에게 독주를 주어 죽게 하는 외눈백이 할망 등이 거주하는 다양한 공간 성격을 내포하며, (⑪, ⑫) 인간 세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다소 세속화된 천상 공간의 모습을 보인다. 다만 천제국의 난을 제압한 자청비에게 오곡과 열두시만국을 내리고 신직을 부여할 때는 다소 옥황의 권능이 보이기도 한다. (⑫) 서천꽃밭과 주화(呪花)가 서사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공간 역시 천상의 신비한 공간의 느낌보다는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변모한 공간이다. (⑦, ⑪, ⑫) 주천강은 문도령과 자

청비가 처음 만난 곳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랑의 공간이면서 자청비의 정체를 확인하는 공간으로도 기능한다.(②,③) 깊고 깊은 굴미굴산은 정수남의 음험한 욕망의 공간이면서, 정수남의 죽음과 환생 공간이기도 하다.(⑤,⑥)

천상과 지상은 허락된 자에 한해서는 노각성자부줄로 쉽게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13> <세경본풀이>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하늘옥황	.	·하늘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공간
	문도령집	문도령 부모	·자청비가 며느리임을 확인받는 공간
	천제국	천제왕 백제왕	·자청비가 변란을 제압하고 신직을 부여받는 공간
	궁안과 밖	선비, 외눈백이할망	·문도령의 죽음의 공간 ·악한 하늘 존재의 공간
땅	서천꽃밭	황세곤간, 딸, 자청비, 문도령	·주화 관장의 공간 ·사건 해결의 공간
		부영새	·자청비가 황세곤간의 사위의 지위를 부여받는 계기 제공
	주모땅	주모할망	·문도령과 재회와 이별의 공간 ·노각성자부줄로 하늘과 연결되는 공간
	서당	자청비, 문도령	·문도령과 자청비의 공동생활의 공간
	주년국	자청비 부모	.
	굴미굴산	자청비, 정수남	·정수남의 욕망의 공간, 죽음과 환생 공간
	삼도전거리	옥황궁녀, 중(자청비)	·문도령 재회의 기회를 부여한 공간
	늪은이의 밭 아홉형제의 밭	늪은 부부, 아홉형제	·세경신의 권능을 처음 보인 공간
	물	주천강	·사랑이 싹트고 확인되는 공간

<문전본풀이>

- ①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은 가난하게 살았으며 아들 일곱 형제가 있다.
- ②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무곡장사를 권하여, 남선비는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무곡장사를 하러 간다.
- ③ 재물이 탐난 오동고을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꼬여 재산을 탕진하게 한다.
- ④ 삼 년이 지나도록 남편의 소식이 없어 여산부인은 아들들에게 굴미굴산 나무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남선비를 찾아 떠난다.
- ⑤ 오동고을에 당도하여 새 쫓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남선비가 노일제데귀일의 딸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그녀와 함께 초막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남편을 찾아가 상봉한다.
- ⑥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에게 아양을 떨며 목욕이나 같이 하자고 하면서 주천강 연못에 밀어 죽여 버린다.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본부인인 척하는 노일제데귀일의 딸과 남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 ⑦ 아들들은 부모가 오는 줄 알고 옷을 벗어 다리를 놓는데, 막내 아들 녹디생인은 그 어머니가 다슴어멍(계모)인 것을 알아본다.
- ⑧ 다슴어멍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거짓으로 배가 아픈 척 하면서 남선비에게 문복(問卜)을 하고 오라고 하고, 자신이 점쟁이로 꾸며 일곱 아들의 애를 먹어야 낫는다고 한다.
- ⑨ 남선비가 일곱 아들의 애(肝)를 꺼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데 녹디생인이 부친에게 형제들의 간을 대신 가져오겠다고 하며 굴미굴산으로 들어간다. 꿈에 죽은 어머니가 현몽하여 알려준 대로 노루에게 방법을 물어 산돼지 새끼 여섯 마리의 간을 가지고 다슴어멍에게 가져다 준다.
- ⑩ 다슴어멍은 거짓으로 애를 먹는 척하다가 자리 밑에 넣어 둔다. 이것을 지켜보던 녹디생인이 다슴어멍의 머리를 잡아채어 엎어지게 한 후 증거물

을 가지고 온 동네에 다습어명의 죄상을 밝혀 알린다.

- ⑪ 일곱형제가 동서로 달려드니 다습어명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도망가다가 통시(화장실)에서 목매어 자살한다. 남선비는 도망가다가 먼 올레 정살에 목이 걸려 죽는다. 일곱형제는 노일제테귀일의 딸 몸을 찢어 화장실 기구를 만들고, 몸의 각 부분을 바다에 던져 각기 바다생물로 변하게 한다. 몸통은 빵아 바람에 날려 각다귀, 모기 몸으로 환생시킨다.
- ⑫ 일곱형제는 서천꽃밭에 올라가 황세곤간에게서 도환생꽃을 얻고 하늘에 빌어 주천강 연못을 마르게 하여 어머니 뼈를 찾은 후 도환생꽃과 금부채로 어머니를 살린다.
- 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어머니는 삼덕조왕으로, 아버지는 정살지신으로, 형들은 동서남북중앙의 방위신과 뒷문전 신이 되고 녹디생인은 일문전신으로 들어서게 된다.

지상계에서 서사가 진행되며, 천상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서천꽃밭은 죽은 이를 살리는 도환생꽃이 있는 곳으로 상징되어 모티프화된 공간 성격을 지닌다. (⑫) 지상 공간은 칠형제의 집과 여기서 멀리 수평으로 확장된 바다 건너의 오동나라로 나타난다.(①,②) 오동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 간 희망의 나라였지만, 악연을 만나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③) 또 남편을 찾으러 간 여산부인이 죽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⑥) 서사가 다시 칠형제의 집에서 진행되면서 칠형제는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죽은 어머니의 현몽으로 목숨을 구하고, 다습어명을 징치한다.(⑧,⑨,⑩) 집은 악인을 징치하고 신으로서의 권능을 인정받는 공간으로, 생활 공간이자 동시에 신이 좌정하여 상주하는 공간이다.(⑬) 이로 인해 집은 가족의 안위를 보호해 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저승차사가 이승의 인간을 잡으러 올 때도 차사에 맞서 집안 사람을 보호하는 본풀이와도 연결되며, 강님이 저승으로 염라왕을 잡으러 갈 때 조왕할망과 일문전이 길을 안내해 주는 내용과도 연관된다.

<표 14> <문전본풀이>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하늘	서천꽃밭	황세곤간, 녹디생인	·여산부인 환생을 위한 공간
땅	남선고을 집	남선비, 여산부인, 칠형제	·생활의 공간
		노일제데귀일의 딸 (다슴어멍)	·다슴어멍의 음모 공간 ·악인 장치의 공간
	굴미굴산	녹디생인, 현몽한 여산부인	·칠형제 생명 보존의 공간
	부엌, 통시	여산부인, 노일제데귀일의 딸	·상극의 공간 ·신이 좌정한 공간
	오방, 일문전, 뒷문전, 정살	칠형제, 남선비	·각기 신으로 좌정한 공간 ·생활공간=신이 좌정한 공간
물	오동나라	노일제데귀일의 딸 남선비, 여산부인	·악연의 공간
	주천강	노일제데귀일의 딸, 여산부인	·여산부인 죽음과 환생의 공간

<칠성본풀이>

- ①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은 천하거부이나 나이 쉰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동개남 상주절에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낳는다.⁹²⁾
- ② 아기씨가 일곱 살 나던 해에 아버지는 천황공사, 어머니는 지하공사를 살러가게 되어 마흔여덟 고무살장을 설비하여 놓고 고무살장 안에 가두어 두고 느진덕정하님에게 부탁하고 간다.
- ③ 느진덕정하님이 구멍으로 밥을 주는데 칠일째 되는 날 아기씨가 사라져 버려서, 부모에게 연락을 한다. 장설룡 부부는 벼슬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씨를 찾지만 아기씨를 찾지 못한다.

92) 『朝鮮巫俗의 研究』와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에서는 동개남 은중절 대사가 권재삼문을 받고 문점을 해주었는데, 칠성단을 무어놓고(차려 놓고) 칠성불공을 드리면 부자가 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뱀이 칠성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신화의 원래적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수자, 같은 책, p.80.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⑧의 내용과 같이 칠성굴 송대장 집에 모셔져 처음 좌정하였기 때문에 고을 이름을 따서 뱀을 칠성님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④ 아기씨는 띠밭에서 열나홀을 울다가 세 번째 지나가는 중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중은 아기씨를 단단히 싸서 장나라 장설룡 대감집 먼 문 밖 말판돌 아래 파묻어 두고 권재를 받으러 장설룡 대감집으로 들어간다. 장설룡 대감이 아기씨의 행적과 관련된 일이 중의 소행임을 알고 죽이려 하니 중은 도망간다.
- ⑤ 말판돌 아래를 파보니 아기씨가 일곱아기를 배고 있어 여덟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 무쇠 석함에 넣어 동해바다로 띄워 버린다.
- ⑥ 석함은 밀물 썰물에 잠겨 강남목골에서 제주 앞 바다까지 떠내려가 여러 지역을 돌다가 함덕에 도착한다. 일곱 잠수가 서로 석함을 가지려고 싸우다가 송첨지 영감의 주선으로 석함을 열게 된다.
- ⑦ 석함 속에 뱀이 든 것을 보고 박대를 하니 송첨지 영감과 일곱 잠수는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된다. 문복을 하니 다른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하여 병이 났다고 하고 칠성 새남을 하고 병도 낫고 거부가 된다.
- ⑧ 뱀들이 함덕을 떠나 도성 안으로 갔는데 칠성골 송대장 부인이 모셔가서 그 집이 일시에 거부가 된다. 칠성님이 제일 먼저 송대장 집에 와서 좌정하였기 때문에 칠성골로 이름을 지어 칠성님이 되었다고 한다.
- ⑨ 관원이 지나다가 뱀들을 보고 침을 뱉으니 입병이 난다. 문복을 하고 칠성새남을 하니 병이 낫는다.
- ⑩ 어머니 뱀과 일곱 칠성은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고 떠난다.⁹³⁾

수계와 지상계의 공간이 나타난다. 여덟 마리의 뱀이 바다 건너 장나라·송나라 장설룡의 집에서 무쇠 석함에 넣어져 동해바다를 통해 제주도 함덕에 도착하여, ⑤, ⑥, ⑦)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칠성골 송대감집에 좌정하는 여정으로 서

93) 큰딸아기는 추수(제주시 삼도동에 있었던 못)할망, 셋딸아기는 이방 성방(형방)지기, 식켓딸아기는 옥(獄)지기, 닛켓딸은 과원(과수원)할망, 다섯째 아기는 창궐(창고)지기, 으섯째 아기는 광청못(제주시 삼도리 관덕정 옆에 있었던 못)차지, 일곱째 아기는 집 뒤 공터의 밭칠성의 억대부군으로 들어서고, 어머니는 연양사고광(광)으로 대독 소독 아래로 섬지기, 말지기, 되지기, 흠지기를 마련하여 열두시만국을 거두는 안칠성으로 들어선다.

사가 전개된다.(⑧) 바다 건너에서 온 외래신으로 집안의 부신(富神)이 된다. 바다 건너의 외부에서 온 여신이 새로운 문물이나 농경문화를 전래하는 것과 유사한 모티프이다. 바다 건너온 존재가 집안의 부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므로 이때의 바다는 풍요·부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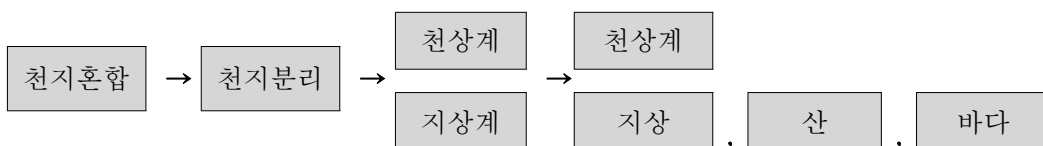
<표 15> <칠성본풀이> 공간 구조

공간 요소	공간	인물	특징
땅	함덕	송 첨지와 일곱 잠수	·신으로서의 능력을 보인 공간
	칠성골 송대장집	송대장 부인	·신으로 처음 좌정한 집
	집안 고평 등	어미 뱀과 자식 뱀	·신으로 좌정한 장소
물	장나라, 송나라 장설룡의 집	아기씨(어미 뱀) 부모, 아기 뱀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는 공간 ·추방의 공간
	동해바다	어미 뱀과 아기 뱀	·신이 되기 위해 통과하게 되는 공간 ·부신(富神)이 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공간

(2) 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기능과 의미

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은 천지의 혼합에서 시작하여 천지가 분리되고 천지의 이슬이 상호작용하여 인간 세상이 창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상의 공간은 다시 산과 물의 공간으로 분화되고 다시 그 공간들은 본풀이의 서사구조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세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본풀이의 서사는 하늘·땅·물이라는 세 요소에 근거해 전개된다.

<그림 2> 본풀이의 공간 분화 과정



천상계는 천지왕이나 옥황상제, 염라왕 등 신들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이들 신들은 우주와 신들의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인간 세계의 질서와 조화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하늘 공간이 더 분화되어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지만⁹⁴⁾ 전체적으로는 신성공간으로 인식된다.

수계(水界)는 바다 혹은 바다 건너의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상에 위치하면서 연못이나 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계의 공간이 바다로 설정된 경우는 동해용왕국, 동해바다, 용왕국 등으로 나타나며, 지상계는 물론 천상계와도 다른 독자적인 신성공간으로 등장한다. 주로 지상계의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인식된다. 동해용궁따님애기가 아버지 용왕의 명으로 인간 생불을 명받고 온 것이나, 동해바다 쇠철이 아들이 무구를 만들 재료와 기술을 제공한 것, 자지멩왕아기씨가 황금산 도단땅을 찾아갈 때 맞닥뜨린 수삼천리길을 용왕국 차사 흰강아지가 나타나 건네주는 것을 통해 바다의 구원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바다 건너의 공간으로 나타나는 오동나라 오동마을은 노일제데귀일의 딸이라는 악인이 사는 곳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바다 건너의 ‘육지’이므로 바다 공간 자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곳으로 나타난다. 바다 혹은 바다 건너가 긍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비해 다소 예외적 설정이기도 하다.

수계가 지상의 연못이나 강으로 나타난 경우는 다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과제 의의 공간과 죽음·환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강님이 지나는 행기못이나 활락궁이가 지나간 세 종류의 물, 자지멩왕아기씨가 불도땅을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흑수와당, 청수와당 등은 이곳을 지나야만 특수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든가, 극복해야 할 고난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죽음 또는 환생의 공간으로 설정된 경우는 본풀이에서 거의 ‘주천강’으로 명명되고 있다. 서사 내에서 상정된 위치와는 상관없이 일반 명사화 된 강으로 나

94) <세경본풀이>에서 천제국에 세번란이 일어난다는 설정이나, 옥황 세계에서 자청비를 보쌌하려는 악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서천꽃밭이나 황금산 도단땅 등의 예에서 보듯 하늘의 신성 공간이 지상으로 이전되어 설정되기도 한다.

타난다. 주천강이 등장하는 본풀이는 <지장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강림차사본풀이>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주천강은 사랑과 만남의 공간으로, <지장본풀이>에서는 삶의 전환점을 제시할 인물을 만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주천강에서 죽었다가 환생하는 곳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물의 재생적 의미와 결부된 인식으로 보인다.

지상계는 지상의 나라와 마을, 산 그리고 지상에 있는 신성 공간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상의 나라로 거명된 곳은 주년국,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서천도단국(<이공본풀이>), 동경국(<강림차사본풀이>) 등인데, 이 중 주년국은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세경본풀이>의 배경이 되는 나라이다. 주년국은 서사가 펼쳐지는 미지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교술무가에서 표현되는 심방들의 말에서는 일본국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⁹⁵⁾ 주년국뿐 아니라 명진국, 서천도단국, 동경국, 오동나라 등은 모두 미지의 어떤 곳인데 비해 제주 지역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공간이 설정된 본풀이도 있다. <강림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 김치원의 명을 받고 저승으로 떠날 때 제주성 남문 밖에서 출발하고 돌아온 것과, <칠성본풀이>에서 어미와 딸 뱀이 동해바다를 건너 제주도 함덕에 도착하고 나중에는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도 자지맹왕아기씨가 집에서 쫓겨나 황금산 도단 땅을 찾아갈 때 지나간 지역이 제주의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⁶⁾ 이는 제주 무가가 제주의 생활과 지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며 본풀이가 신의 이야기이면서 인간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인식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상의 나라와 마을에서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서사가 전개되는 것에 비해 산의 공간인 굴미굴산은 단순 배경화된 측면이 강하다. 당신본풀이에서 주로 남

95) ‘강남은 천주국, 일본은 주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방국 제주절도섬...’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46, p.323.

‘강남 드난 천저국(天子國) 일본 드난 주년국(周年國) 우리 국은 대한민국인데...’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탐라문화총서 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p.45.

96) 높은 오름 우에 올라산 쉬갑머리 으숫갑에 갈라다완 머리 올려 건지름(머리를 땅음) 흐고 보니 이제 지금 대정(大靜) 가민 건지오름이 있읍네다. 건지오름 지나고 대정고을을 들어서니 조심드리가 셔, “상전님아 상전님아, 조심 조심이 지나옵소서.”

그때에 내은 법으로 대정고을 조심드리 있읍네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39.

신들이 솟아나고 좌정한 곳으로 한라산이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된 것에 비해 굴미굴산은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물론 <문전본풀이>에서 일곱 형제를 돕기 위해 죽은 어머니가 현몽하여 형제들의 안위를 돕기는 하지만 대체로 깊고 험한 공간 배경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이 욕망을 표현하고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상에 위치한 신성 공간으로는 생불할망이 서천꽃밭을 조성한 석해산, 자청비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찾아갔던 서천꽃밭, 초공의 아버지인 주자대선생이 있는 황금산 도단땅, 자지맹왕아기씨가 일천기덕과 삼만제기를 지키는 천하대궐 금법당, 주모할망이 거주하면서 하늘과 왕래하는 주모땅 등이 있다. 이들 신성 공간이 인간 세상의 지상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인간의 가까이에 신성한 권능이 존재하면서 인간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심성이 반영된 설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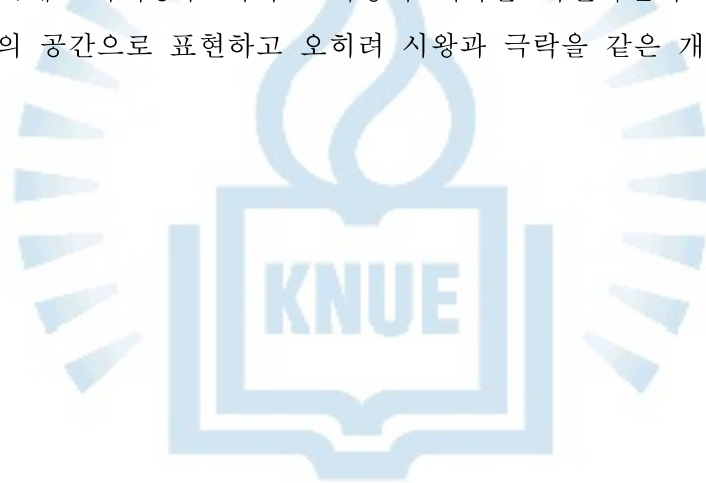
제주 무가의 일반본풀이에 나타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육지 무가의 공간과 그 기능이나 의미가 비슷하다. 특히 신들의 공간은 신성공간으로 비일상적 세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이 공간의 기능이 현실계의 결핍을 보충하고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간, 혹은 생명의 원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무가 속에서 형상화된 공간의 양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육지 무가에 비해 제주 무가는 현실 밀착형 공간 특성을 보인다. 육지 무가에 비해 자연 환경과 생활공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잘 드러날 뿐 아니라 한라산의 공간도 무가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아가 ‘김치’나 ‘송대정’ 등과 같은 역사 속의 실재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공간 구조적 측면에서는 육지 무가보다 다양한 층위의 공간 양상을 보인다. <바리공주>에서는 일상 세계와 비일상 세계의 이원적 공간 구조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계의 공간이 주를 이룬다. 이에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지

상계와 이의 확장 공간으로서 수계(水界)뿐 아니라 천상계의 수직적 공간 구조도 빈번하게 표현된다. 또한 <바리공주>에서 천상계는 일부 이본에서만 보이거나 천상계의 관념적 설정에 머무르는 데 반해, 제주 무가에서는 천상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며, 또한 지상계와 천상계의 왕래도 빈번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바리공주>에서는 수평적 공간 구조가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수평·수직적 공간 구조가 함께 나타난다.

죽은 이가 가는 저승으로 공간을 한정했을 때, 제주 무가에서는 저승의 범주가 다층적이기는 하지만 구획 개념이 비교적 분명하다. 죽음 직후 대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멀고 먼 길을 걸어 시왕의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저승 마을에서 영생을 하며, 경우에 따라 저승 꽃밭에서 보상과 위무를 받기도 한다. 이에 비해 <바리공주>에서는 시왕의 지옥을 나열하면서도 시왕 세계와 지옥을 별개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오히려 시왕과 극락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Ⅲ. 제주 무가의 저승

제주 무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이 저승의 형상화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저승이 죽음 이후의 비가시적인 관념 공간으로,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 무가 향유집단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저승에 반영된 현실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승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은 무가 향유집단의 세계관을 고찰하는 작업으로 귀결된다. 이 장에서는 저승으로 가는 노정과 저승의 공간요소 그리고 저승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제주의 자연·역사·생활환경이 무가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저승의 기능과 의미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저승 형상화의 양상

1) 노정을 통한 형상화

(1) 갈림길 : 인생과 자연환경 반영

저승을 인간 사후(死後)의 공간이라고 할 때, 갈림길은 죽음 직후에서부터 심판을 받기 전까지의 노정(路程)에서 나타난다. 이 노정의 주요 이동 인물은 망자이다. 이 노정은 매우 멀고 험하며, 망자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이동한다. 또한 가는 길에 갈림길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상정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화에서 인간의 죽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승 시왕에서는 인간을 연령별로 관장하고 있다.⁹⁷⁾ 각 시왕들은 인간의 정명과 죽을 날짜가 적힌 명부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인간이 죽을 날짜가 되면 차사에게 적패지를 주고 ‘어느 마을 아무개를 잡아오라’고 한다. 명령을 받은 차사는 지상으로 내려와 마을의 본향당신에게 죽을 이의 명부를 확인하고 본향당신은 죽을 이의 집을 알려 준다. 차사가 죽을 이의 집에 도착하면 그 집의 성주와 조왕은 집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이 세어지고 차사에게 저항을 한다. 한참 대치를 하다가 성주와 조왕이 피곤하여 소닥소닥 졸고 있을 때, 차사는 상마루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성주와 조왕을 홍사줄로 묶어 제압한다. 이어 죽을 이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초혼·이혼·삼혼이 나오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되고, 혼이 대문 밖이나 창 밖으로 나온다. 차사는 망자를 홍사줄로 묶고, 목에는 칼을 채우고 발에는 박쇄를 채워 저승으로 끌고 가게 된다.

- ① 인간, 정명 다함 → ② 시왕, 차사에게 명령 → ③ 차사, 당신에게 확인 →
④ 차사, 삼혼 부름 → ⑤ 인간, 죽음 → ⑥ 차사, 저승 압송

차사가 망자를 잡아 가는 이후의 과정은 해심곡에 잘 나타나고 있다.

무지공지(無主空山) 낙낙장성(落落長松) 군왕지(君王之地) 엄토(掩土)하니, 진토(塵土)는 집을 삼고 두견새는 벼를 삼아 천년 만년 살을 디가 세경땅의 진토로다. 저승이여, 저승이여, 저승질이 머다터니 갈셋질도 열니 징거, 올셋 질(路)도 열니 징거, 가명 오메 수물 ㄴ덥(二十八) 저징것 질이로다. 창문 밖(窓門外)을 나 아사난 저승질이 완연(宛然)하고 명완질(冥王路)이 머다터니 대문 밖(大門外)의 명왕 있도다.⁹⁸⁾

평소 살던 집도 동네도 죽음 이후는 바로 저승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동

97) 일례로 제1 진광대왕은 도산지옥을 관장하고 있으며, 인간 중에는 갑자(甲子), 갑인(甲寅), 갑진(甲辰), 갑오(甲午), 갑신(甲申), 갑술(甲戌) 등 여섯 생갑을 차지하고 있다. 제10 대왕까지 천간별로 각각 차지하고, 각 천간별로는 십이지지의 절반씩 인간 생명을 차지하고 있다.

98)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90.

일한 공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전후하여 공간의 성격이 바뀌어 대문 밖이나 창 밖이 죽음과 동시에 저승으로 공간 변화를 한다.⁹⁹⁾ 그리고 차사를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올 때 갈 때 모두 스물여덟 징것길¹⁰⁰⁾이 펼쳐져 있다고 한다. 저승 가는 길에 갈림길이 많이 펼쳐졌다고 한 것은 <강님차사본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님이 저승 염라대왕을 잡으러 가다가 일흔여덟 갈림길 앞에서 갈 길을 몰라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하르바님이 나타나서 강님의 갈 길을 알려준다. 강님의 큰부인집의 일문전신이 조력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 길들은 각각의 신들의 전용 통로로 신의 위계를 밝힌 「젯드리얏혀살려움」의 순서와 비슷한 체계로 천지왕서부터 각종 차사들까지의 길을 설명하고 강님을 위한 작은 길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일문전(一門前)이 이른으뜸 공거름질을 차례차례 세여갑데다. 이른으뜸 공거름질을 세여 올립네다.

천지혼합시(天地混合時) 들어간 질(路), 천지개벽시(天地開闢時) 들어간 질, 인왕도읍시(人皇都邑時) 들어간 질, 천지천황(天地天皇) 들어간 질, 산(山)배포 들어간 질, 물배포 들어간 질 ...중략... 발금츠사 들어간 질, 모람츠사 들어간 질, 적츠사 들어간 질, 이승 강님이 들어간 질, 죽고두고 게염지 웬뿔(左角) 혼 착만이 질(路)이 났구나.¹⁰¹⁾

99) 주검을 땅에 묻고 그곳을 천년만년 살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덤도 일종의 저승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는 설화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며, 이러한 인식이 일부 보이는 것은 무가의 구비적 성격으로 인해 죽음과 저승에 관한 여러 관념이 습합된 결과로 여겨진다. 무덤=저승이라는 인식은 무가의 전반적인 저승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100) 현용준은 주(註)에서 징것길을 ‘거림길’이라고 하면서 의미 미상이라 했다. ‘거림길’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없다. 「강님차사본풀이」나 여러 교술무가에서 저승 가는 길에 갈림길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아 ‘갈림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90.

101)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13~214. 실제로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 무가에는 강님의 길까지 합쳐 73개의 길이 소개되고 있다. 아직 인간의 몸으로 이승차사인 강님의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강님이 차사가 된 후의 일에 근거해 길을 마련했다고 보면, 선후관계가 맞지 않지만, 앞으로 차사가 될 운명을 지닌 존재이므로 저승으로 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작고 작은 개미 왼쪽 뿔 한 짝만한 길이 바로 강림이 들어갈 길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작고 작은 길이다. 그러나 강림이 이 길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 사람이 저승을 가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인다.¹⁰²⁾

차사가 망자를 데리고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곳이며 오로지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어주리비주리 눈부약 한탈남 가시덤불 돌바쿠 능거등 질을 허우뜰어 가당 보
민¹⁰³⁾

살아서도 삶이 순탄치 않은데 죽어서도 험난한 노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시왕과 차사에게 인정을 걸며 ‘지옥길을 닦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는 굿의 과정에서 질침을 통해 나타난다.¹⁰⁴⁾

저승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풍설이 섞여 치고, 또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돌덩이들이 박힌 험한 길을 오래도록 걸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곳이 깊고 험한 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저승은 매우 먼 곳으로 상정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현실 공간에서 먼 거리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102) 「죽음의 말-후승(後生)」에서 망자가 시왕을 가기 위해 세 갈래길에서 머뭇거릴 때 스님이 왼쪽 소로가 시왕길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시속인심이 강악하여져서 많은 이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지옥길은 대로가 되고 시왕길은 소로가 되었다고 말한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p.201~202.

길의 좁고 넓음을 이에 유추한다면, 강림의 길이 좁고 좁은 이유도, 지나가는 존재의 위협과 지위 그리고 통과 횟수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강림은 아직 신직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이 길을 처음으로 지나가려하고, 또한 길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직의 고하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03)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14.

104) 질침은 신이나 조상신 등 망자가 굿이 펼쳐지는 제의 현장으로 오는 길을 깨끗이 치워 맞이할 때도 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제 명에 못 죽은 망자가 저승을 편히 갈 수 없어 이승을 헤맬 때, 이러한 망자의 원혼을 대명왕길(저승)로 인도하기 위해 하는 질침굿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질침의 과정 중의 하나인 (저승)열두 문 열기는 저승에서 망자가 올 때, 갈 때 모두 연다. 특히 영혼을 맞아들여 영계올림을 한 후, 그 열두 문을 열어 영혼을 보낼 때는 가족들이 한쪽 끝으로부터 꿇어앉아 인정을 걸고, 심방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도록 시왕에게 비는데, 이러한 행위가 곧 지옥길을 닦는 것이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 264 참조.

것이고 따라서 저승 세계를 한라산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산의 많은 갈림길을 무가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님의 앞에 펼쳐졌던 일흔여덟 갈림길이 제각각 길의 주인이 따로 있었듯이, 많은 갈림길은 백인백색(百人百色)의 다양한 인생살이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나타낸 것으로도 생각된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듯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대로 죽음의 길도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행기못 : 존재 전환

「강님차사본풀이」에 나타난 저승의 모습은 그 묘사가 훨씬 풍부하다. 강님이 결국 신직을 부여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저승 가는 과정이 일반 망자와는 다르다. 「혜심곡」에서는 죽음의 당사자로서 망자가 저승차사에 의해 끌려가는 이야기로, 망자의 고행과 심판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강님차사본풀이」에서는 강님이 저승차사가 되는 과정을, 영웅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과업 수행을 위해 여러 조력자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멀고 험한 저승길의 모습에서는 다르지 않다. 강님이 저승을 다녀오는 과정을 공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강님의 저승 이동 경로 및 저승 양상

이동 경로		여정의 구체적 양상	조력자
이 승 ↓ 저 승	제주성 남문 밖 동산	· 먼 거리, 긴 시간, 몸이 다진할 때 까지 감 · 주먹 쥐고 휘여지게 할망을 뒤따름	큰부인, 조왕할망
	이른오둑 공거 름길	· 일흔여덟째 작고도 작은 개미 왼쪽 뿔 한 짝만한 작은 길 · 갈림길마다 들어가는 신이 정해져 있음	일문전
	가시덤불 돌바 쿠 능거등길	· 울통불통 풍설 섞어친 산딸기나무 가시덤불 피고 돌맹이가 있는 길을 헤치고 감	
	저승길 보수장	· 질토래비 질나장이 강님의 삼혼을 불러 혼정으로 저승을 가게 됨	질나장 (이원사재)
	저승 포도리청 호안성	· 호안성을 지나감 · 염라왕 거처의 외성(外城)인 듯	
	행기못	· 눈을 질끈 감고 행기못에 빠짐	
	저승 연추문	· 연추문 바위에 적패지 붙이고 염라왕을 기다림	
저 승 ↓ 이 승	행기못	· 염라왕의 지시로 백강아지를 따라 행기못에 도착 · 백강아지가 강님의 목을 물어 연못 속에 빠뜨림	염라왕, 백강아지
	제주성 남문 밖 마을 입구	· 잠자다 깨어나듯 눈을 뜨니 이승에 도착함	

여기에서도 저승은 제주성 남문 밖 동산에서부터 염라왕이 있는 공간까지이다. 제주성 남문 밖은 분명 인간의 세계이지만, 저승 옷을 차려 입고 강님이 저승으로 출발하는 곳이며, 큰부인집 조왕할망이 현현(顯現)하게 되는 지점이다. 현실공간이지만 신의 현현으로 인해 저승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저승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행기못을 빠져 나와 이승에 도착할 때의 지점도 역시 남문 밖 동네 입구로서 신의 현현과 임무 완성의 여부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어디로 가야 저승인지 몰라 비새같이 울던 강님이 할망을 보고, 두 주먹을 부르짖어 쥐고 휘여지게 할망을 뒤따라 간다. 그러나 몸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이 되어도 할망을 따라 잡을 수 없게 되고 그러는 동안 아주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달려오게 된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 할망이 강님의 큰부인집의 조왕할망이라는 것을 알고 조왕할망의 인도로 일흔여덟 갈림길까지 오게 된다.

일흔여덟 갈림길 앞에서 갈 길을 몰라 또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하르바님이 나타나서 강님의 갈 길을 알려준다. 강님의 큰부인집의 일문전신이 조력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 길들은 각각의 신들의 전용 통로로 신의 위계를 밝힌 「젯드리 앓혀살려움」의 순서와 비슷한 체계로 천지왕서부터 각종 차사들까지의 길을 설명하고 강님을 위한 작은 길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해심곡」에서처럼 저승으로 가는 길은 울통불통하고 풍설이 섞여 찢 산딸기 나무 가지덤불을 헤치고 돌덩이들이 박힌 험한 길을 오래도록 걸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승 길나장을 만나 떡을 대접하고 저승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고 길나장은 강님의 대접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길을 알려주게 된다.

“나는 저승 염내왕(閻羅王) 잡히레 가옵네다.”

“아이고, 이승 동간님아, 이게 무슨 말이우까? 저승을 어떻 갈 수 이십네까? 검은 머리가 백발(白髮)이 돼도록 걸어봅서. 저승을 가지느냐. 못 가는 법입네다.”

...중략...

“이승 동간님아,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아봅서. 땀적삼있읍네까?”

“예, 있읍네다.”

“삼혼(三魂)을 불러드리건 혼정(魂精)으로나 저승 초군문(初軍門)을 가아봅서.”

...중략...

저승 이원스제 강님의 땀적삼을 벗건

“강님이 보오, 강님이 보오.”

삼혼(三魂)을 불렀더니, 강님의 사암혼(三魂)은 저승 포도리청 호안성을 지나가 행기못을 가안 보난,¹⁰⁵⁾

저승을 가기 위해 이때까지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걸어서는 백발이 되

10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15~217.

어서도 도달할 수 없다고 하며, 또한 혼정만 갈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저승의 공간이 수평적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층위가 달라지고, 또한 그곳은 가고자 하는 이의 상태도 바뀌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강님의 출발에서부터 큰부인과 조왕할망 일문전의 도움이 있었고, 또한 길나장의 도움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이 때 혼정을 저승으로 보내는 방법이 바로 땀적삼을 벗어 흔들면서 이름을 세 번 불러 복(復)을 하는 것이다. 복을 해야 혼정을 저승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이 ‘초혼(招魂)’이다.¹⁰⁶⁾

「해심곡」에서 차사는 망자를 데리고 먼 길을 계속 걸어, 수평적으로 저승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에 비해 「강님차사본풀이」에서는 특히 행기못을 기점으로 공간의 층위가 달라진다.

강님이 눈 질끈 감아아전 행기못데레 빠지고 보니 저승 연주문에 부떠지웁데 다.¹⁰⁷⁾

행기못에 빠짐으로서 원래의 목적지, 즉 염라왕이 있는 저승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저승의 직전에 큰물이 가로놓여 있고 이곳을 건너야만 저승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행기못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¹⁰⁸⁾ 따라서 이때까지의 이동 경로가 수평적이었다면, 행기못을 기점으로 수직적인 경로로 바뀌고 있다. 못물 속으로 빠졌다는 것은 수직하강을 한 것이므로 염라왕이 있는 곳은 땅 속이거나 물(바다) 속이라는 말이다.¹⁰⁹⁾ 그러나 실제로 염라왕이 있는 곳은 수직의 하부가 아니라

106) 현존하는 상장의례 중 초혼의식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현재도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망자의 옷을 들고 지붕 등에 올라가 그 이름을 세 번 부르는데, 고복이라고도 한다. 신화에서는 옷을 흔들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저승으로 보내는 기능으로 작용하나, 민속에서는 반대로 저승으로 떠나는 혼을 불러 재생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수자, 같은 책, p.230.

10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17.

108) 박봉춘 구송본에서는 행기못 대신 연제못이 등장한다. 연제못에서 목욕제게하고 정성을 다하고 제를 지내면 삼신선이 내려와 강님의 저승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목욕을 함으로써 물이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삼신선이 청풍채, 금풍채(부채)와 홍사줄을 주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쓰라고 한다. 청풍채와 금풍채를 내던져 안개 낀 길을 맑게 하고 갈 길이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은 바리데기의 화소와 유사하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晨 옮김, 같은 책, pp.321~322.

수직 상방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¹¹⁰⁾

따라서 행기뭇은 목적지로서의 저승에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며, 행기뭇을 기준으로 저승 가는 길이 수평적 경로에서 수직적 경로로 바뀐다. 그러나 수직 하방으로 빠지면서도 수직 상방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아 행기뭇은 같은 저승 내에서도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특수한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행기뭇의 특수한 통로로서의 기능은 강님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도 확인할 수 있다.

죽쟁이 쿵에 떡 꼬치멍 강생일 달래멍 뒤뜰라 가단 보난 행기뭇이 근당흔니,
백강생이가 돌려들언 강님의 모가질 물언 행기뭇테레 팡당 빠지는 것이, 생사름
(生人) 줍자당 꿈보당 깨듯이 강님이 눈을 번뜩 뜨언 보난 이승 질이 뒹웁데다.
...중략... 강님이 이승을 오고 보니 어느 므슬(里) 지경(地境)도 몰라지고 북방(北方)
을 바레여보니 인간처(人間處) 불빛이 비추와 강님이 불빛을 종가 좇아가는 것이
강님의 큰 부인 집이 뒹웁데다.¹¹¹⁾

강님이 저승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이승으로 돌아올 때, 염라왕이 내어준 백강아지의 인도로 행기뭇에 도착하고, 백강아지가 강님의 목을 물어 연못에 빠뜨린다. 그리고 산 사람이 잠자다 꿈에서 깨어나듯 눈을 떠보니 이승에 도착하게

109) 현용준은 선문대할망이 한라산 중턱에 있는 밭 빠진 물인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빠져 죽은 이야기와 연관지어, 행기뭇이 밭이 빠진 물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결국 행기뭇물이 바다와 통하는 물일 것이므로 저승은 물 밑의 세계 곧 바다 속의 세계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 타계관은 국토부동관을 바탕으로 한 해양타계관이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기뭇에 빠져 도착한 곳은 수직 하부가 아니라 수직 상방으로 표현되고 있어, 단순히 위·아래의 개념만으로 저승의 위치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p.85~86 참조

이수자는 물에 빠짐은 저승에 진입하기 위한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로이 태어나는 재생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이는 몸 씻음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세례와 그 상징하는 바가 같다고 하였다. 이수자, 같은 책, pp.228~229.

110) 염라왕이 인간 세계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염라왕이 있는 곳이 수직 상방의 하늘임을 알 수 있다.

‘모릿날 스오시민 염내왕이 알엿넉의 말젯즈부장제침의 웨뜰애기 신벵들언 전세남을 받으레 **느려살 거난**’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16.

“강님의 눈을 췌길 수 엿구나. 강님이야 대시왕연맛이가 도올라사게 뒹염시니 어서 인간 가시민 모릿날 스오시민 동안 마당으로 **느려살로라**.” 현용준, 같은 책, p.219.

111)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19~220.

되는데, 그 곳은 바로 제주성 남문 밖 어느 마을로, 불빛을 따라가 보니 바로 큰부인집 앞에 당도하게 된다.

제주성 남문 밖 동산 위에서 출발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 행기못에 빠졌는데, 돌아올 때는 행기못을 빠져나오자마자 원래의 출발점에 도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행기못은 저승에 진입하기 위해 세계 보편적으로 건너는 물의 기능, 즉 재생과 정화의 의미와 아울러 차원이 다른 공간을 이동하는 특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행기못을 기점으로 공간의 층위뿐 아니라 시간의 층위도 달라진다. 강님이 저승에서 행기못을 통해 이승에 도착한 후 큰부인집으로 갔을 때 큰부인은 강님의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다.

강님의 큰부인은 강님이 저승 가 삼년상(三年喪) 첫시계가 돌아오난 결명을 흐레 먼문(遠門) 뺏기 나와네

“설운 낭군님, 살았건 하루 바빠 돌아오꼭 죽었건 기일 제스(忌日祭祀) 많이 받았 양 가옵소서.”¹¹²⁾

강님이 저승으로 떠난 지 삼년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에 강님의 부인이 삼년상을 지내면서 첫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부인은 돌아온 강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님이 입고 갔던 옷의 관대 섶을 확인하는데, 길 떠나기 전 넣어두었던 바늘 한 쌍지가 삭아 부러진다. 강님이 방에 들어가 부인이 차려 놓은 제사상을 보며 “나는 저승 가 사흘을 살았는데 이승은 삼년(三年)이 됐었고나”라고 하며 저승과 이승의 시간의 흐름이 다를음을 말한다.

행기못을 통과하면 공간의 층위뿐 아니라 시간의 층위도 달라지며, 밑으로 빠지지만 위로 가게 되고, 들어갈 때와 되돌아 나올 때의 공간도 달라지는 매우 독특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행기못을 통과함으로써 저승의 염라왕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당도할 수 있었

112)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20.

으며, 다시 행기못을 통과해서 이승으로 돌아옴으로써 강님의 존재론적 위상이 달라지게 된다.

행기못은 원래 제주도 설화 중 <고종달이 전설>에 나오는 물 이름이다. 작은 못그릇(행기) 속의 물로 종달리의 수맥을 보존했다는 전설의 내용에서 독특한 발상과 이름을 차용하였다. 매우 제주도다운 명칭으로 매우 제주도다운 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형상화하여, <강님차사본풀이>에서 행기못은 시간과 공간의 층위를 바꾸며, 재생과 정화의 의미는 물론 존재의 위상도 달라지게 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2) 공간요소를 통한 형상화

(1) 시왕 : 심판

저승차사를 따라 머나먼 저승길을 따라온 망자는 심판을 받을 곳에 도착하게 된다. 무가에서 이곳을 공간적 개념으로 명시한 표현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대문 밖을 나서니 명왕길’이라고 한 표현을 통해서 장소 또는 공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왕(十王) 역시 시왕들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시왕’이 지옥의 심판자인 저승왕의 명칭으로 쓰이면서도 시왕들이 심판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시왕은 또한 ‘저승’의 의미로, 때로 ‘지옥’의 의미를 같이 가진 곳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육지 무가에서도 저승과 시왕과 지옥을 동일 개념으로 혼용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왕에 도착하기 전 망자는 죽음과 동시에 차사에게 죄인처럼 끌려오게 되는데, 목에는 칼을 차고 발에는 족쇄를 차고 고통스럽게 먼 길을 걸어온다. 이러한 설정은 망자를 죄인시하여 시왕에서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정으로 이해된다.

시왕에 도착하면 초군문, 이군문, 삼시도군문¹¹³⁾, 오군문을 거치는데 문마다

문을 지키는 도대장들이 있다. 시왕이 있는 곳은 현실의 왕이 있는 것처럼 큰 성 안의 궁궐로 인식하고 있는 듯 겹겹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착한 저승은 이승과 달리 맑고 맑은 능수능장법이라고 하면서도 각 문마다 인정을 걸어야만 통과할 수 있어서, 부정한 이승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이 통하는 시왕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살아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저승에서는 이를 모면하거나 고통을 덜 받고 싶은 여지를 두어, 사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려는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군문을 통과하면 도대장이 “감옥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감옥으로 가면 감옥성방이 “너의 갈 지옥으로 가라”고 한다. 이때부터 죄의 유무와 경중에 대해 열다섯 시왕¹¹⁴⁾의 심판을 받으며 지옥을 차례대로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통과하는 지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¹⁵⁾



113) 각 문들의 나열 규칙으로 보아서는 ‘삼사도군문’으로 추리할 수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114) 시왕(十王)은 불교, 도교의 시왕 사상이 습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巫)가 불교와 도교의 것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불·도교에 흡수되지 않고 무(巫)의 방식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시왕이란 말 자체가 ‘열 명의 저승왕’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시왕을 15명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승왕’을 의미하는 단일어처럼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방광침에서 ‘시왕이민 혼 시왕이명 대왕이민 혼 대왕이리까’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시왕’을 ‘대왕’이라는 단어와 운을 맞추며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83.

115) 이수자, 같은 책, p.233의 도표를 참고하되 도표 내용의 설명글을 다듬고 수정하였다.

<표 17> 저승 시왕과 지옥의 제 양상

시왕의 순서와 이름	지옥 이름과 형벌	다스리는 죄의 내용	지옥과 관련된 사람의 생갑 ¹¹⁶⁾
(1) 진광대왕	도산지옥(刀山地獄) 칼선 다리 타기	깊은 물에 다리 놓기, 배 고른 사람 밥 주기 여부	갑(甲) 차지
(2) 초강대왕	화탕지옥(火湯地獄) 끓는 물에 담그기	목 마른 사람 물 주기, 벗은 사람 옷 주기 여부	을(乙) 차지
(3) 송제대왕	한빙지옥(寒氷地獄) 얼음 속에 묻기	부모에 효도, 일가방답에 화 목, 동네어른 존대 여부	병(丙) 차지
(4) 오관대왕	검수지옥(劍樹地獄) 칼로 살점 베기	함정에 빠진 사람 건져주기, 막힌 길 터주기 여부	정(丁) 차지
(5) 염라대왕	발설지옥(拔舌地獄) 집게로 혀 빼기	부모 말에 겉대답, 일가방답 불목, 동네존장 박대 여부	무(戊) 차지
(6) 변성대왕	독사지옥(毒蛇地獄) 독사로 몸 감기	역적도모, 살인, 강도, 고문, 도적질 여부	기(己) 차지
(7) 태산대왕	거해지옥(拒骸地獄) 톱으로 켜기	돈 받고 나쁜 음식 주기, 되나 말로 남의 눈 속이기 여부	경(庚) 차지
(8) 평등대왕	철상지옥(鐵床地獄) 쇠판에 올려 불때기	남의 남편이나 가족 우러러 바라보기 여부	신(申) 차지
(9) 도시대왕	풍도지옥(風塗地獄) 바람길에 앉히기	혼인풍덕, 혼인식 여부	임(壬) 차지
(10) 전륜대왕	흑암지옥(黑暗地獄) 암흑 속에 두기	남녀구별 알기와 자녀 생산 여부	계(癸) 차지
(11) 지장대왕	지장의 몸으로 썩어……		
(12) 생불대왕	인간 세상에서 아이 못 낳은 사람 아이 마련해주기, 15세 미만 아기들 거두기		
(13) 좌도대왕	앞서의 일들 심사하기		
(14) 우도대왕	문서로 정리하기		
(15) 동자관관	문서를 걷어 보고 최후 심판하기		

지옥을 설정하고 어떤 벌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간 묘사는 없다. 그러나 지옥의 이름과 벌주는 내용 속에서 무시무시한 공간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심사하는 죄의 여부에 따라 칼날이 선 다리 위를 걷게 하는 것, 끓는 물에 담

116) 제1대왕부터 제10대왕까지의 시왕은 연령별로 인간의 정명을 분장하고 있어, 그 명부에 의해 사람들의 죽을 날짜를 흔히 알고 있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197.

그는 형벌, 열음에 묻어 버리거나 칼로 살점을 베어내는 것, 집게로 혀를 빼 낸 다든가 독사로 온 몸을 칭칭 감게 하고 쇠판 위에 올린 후 풀무질을 하여 뜨겁게 고통을 준다든가, 혼인 풍덕을 모르는 남녀에게 향아리나 술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바람길에 앉히고 암흑 속에 가두는 등 망자를 모두 죄인 취급하여 심판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저승을 육체적 형벌을 주는 지옥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에 비해 제12대왕인 생불대왕이 관장하는 지옥은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열둘 올라 생불대왕(生佛大王) 서천꽃밭 궁예시녀(宮女侍女) 정소남청 몰아놓고 열다섯 이안 가는 아기, 간곤(艱困)한 부모에 떨어진 아기, 동고랑 사기(沙器) 사발 남박새기 파먹던 아기, 서천꽃밭 물을 주저 물 잉어 꽃밭 가당 드랑치메 발을 걸려 푸터지민 사기사발 남박새기 벌러지영, 서천꽃밭(西天花田) 물을 못 쥔 꽃감관(花監官) 꽃생인(花聖人)에 죽남막맹이로 삼식번(三番) 얻어맞앙 인간아방(人間父) 인간어멍(人間母) 불르멍 웨멍 우는 아기, 어멍아 못 불르던 아기, 인간서 죽식 못난 망년간 노인이라도 업게청 마련하는 이 대왕이 돼웁네다.¹¹⁷⁾

열다섯 지옥 중 가장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 지옥인데, 15세 이전에 죽은 각종 아기 영혼들이 서천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일을 하고, 실수를 하면 얻어맞고, 인간 세상에서의 부모를 부르며 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간세상에서 자식을 못 낳은 이는 아무리 늙었어도 업저지, 즉 아이를 업어주며 돌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곳이다. 앞서의 육체적 형벌을 주는 지옥에 비해, 가혹한 곳이 아니며, 어린 아이들을 따로 수용하고, 아이 못 낳은 이에게는 이승에서의 결핍을 일정 부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생불대왕은 서천꽃밭의 꽃으로 아이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는 아기산육신인 생불할망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열다섯 이전에 죽은 아이를 관장하되, 일을 시키고, 실수하면 막대기로 때

11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92~193.

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생불할망보다는 저승할망의 특성을 보이고, 꽃밭 물주는 얘기를 기르는 것은 저승어멍 원강아미의 모습도 있다. 꽃을 키우는 공간이며 꽃감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생불대왕은 저승의 꽃밭을 관장하면서 여기에서 일할 망자를 주재하는 신으로 생불할망과 저승할망 그리고 꽃감관과 저승어멍 등 네 신의 특성을 한 데 아우르는 신격을 보여준다. 구비되는 무가의 중층성을 잘 보여주는 신격과 공간으로 제주 무가의 독특한 저승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지장대왕과 생불대왕을 설정함으로써 불교·도교와는 그 설정에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후심판 개념이 강하며 시왕의 지옥을 거친 후 죄의 경중에 따라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데, 무(巫)에서는 지옥은 거처되고 그 죄값에 대한 엄밀한 처리가 없이 저승 마을에서 영생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는 새나 나비로 환생한다. 죄가 매우 중할 때만 인간에 귀양을 가서 짐승이나 초목으로 환생한다고 하였다. 불교와 도교에서 차용한 시왕 사상이지만 무화(巫化)된 시왕이므로 15명의 시왕이 설정될 수 있고, 철저한 사후 심판 개념보다는 살아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계도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심판의 개념은 유효하며, 동시에 시왕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며 일종의 통과의례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 저승 마을 : 영생

사람이 죽으면 멀고 험한 저승길을 걸어서 시왕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후심판 관념의 습합으로 심판을 받는 장소나 심판을 하는 존재들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의 사생관과 명부·지옥 개념은 고대의 인도인과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 전승된 신화적 내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¹¹⁸⁾ 초기 경전에 나타난 지옥 사상

118) 장미진, 「불교문화권에 있어 지옥의 원신화적 요소와 그 의미」, 『미술사학』, 미술사학연구회, 1995.

은 대중교화의 한 방편으로 수용되어, 죄인의 생전 죄업을 심판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심판 관념은 무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가에서는 생전의 죄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지옥의 형벌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서술되며, 각 지옥을 차례대로 통과하여 최후 판결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무가의 사설 속에서는 실제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다음 지옥도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방광침」에서 ‘00대왕 시방광 새낭감서’라고 하며 제1시왕부터 제10시왕까지 순서대로 ‘계속 살아나가자’고 하며 지옥 길을 뚫는다.¹¹⁹⁾ 죄의 경중과 유무에 따라 지옥의 형벌을 가볍게 받고 지나가느냐 심하게 받고 가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통과한다면 동자판관의 판결로 저승에 안착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 죄가 너무 무겁다면, 각각의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며 저승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관념하고 있다. 무가에서는 형벌 자체보다는 오히려 지옥에서의 형벌을 거쳐야만 저승에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왕의 지옥을 일종의 통과의례로 생각한다. 단, 죄가 너무 무거워 지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안 되므로 지옥 길뚫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자판관 앞에 오면, 동자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다.

열다섯 동자판관 문세 건어 말을 하네,

“너는 인간 살아 췌 만하니 저승에서도 주육췌를 마련 못하얌 테이니 귀양살아
또 한번 죽엄 와사 저승췌를 마련하리라.”

인간으로 보내웨 우마(牛馬)므쉬 동물로나 청구렁이 흑구렁이 청지렁이 흑지렁
이, 만물 푸십새로 인간으로 귀양 보내고,¹²⁰⁾

동자판관이 내린 판결 중, 인간 세상에서 죄가 많아 시왕의 지옥을 통과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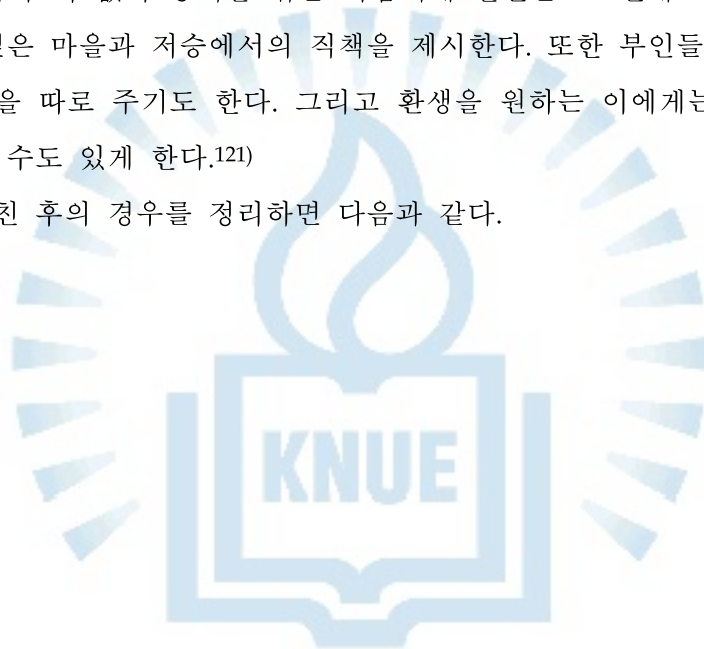
11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83~186.

120) 현용준, 같은 책, p.193.

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 경우는, 즉 통과례의 자격이 없는 경우는 인간 세상에 귀양 가서 동식물 등으로 환생해서 살다가 다시 저승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일종의 재심 과정으로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무(巫)에서는 형벌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여러 시왕의 심판을 거치면서 죄를 씻고 저승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옥이라는 통과례를 거쳐 재생과 영생을 누리는 곳이 곧 저승인 것이다.

인간세상에서 죄 없이 공덕을 닦은 사람에게 판관은 “소견대로 이르라”고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을과 저승에서의 직책을 제시한다. 또한 부인들을 대상으로는 전용 선택권을 따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환생을 원하는 이에게는 나비나 새의 몸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한다.¹²¹⁾

심판을 거친 후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1) 환생의 형태가 형벌의 개념일 때는 가축,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과 벌레, 움직일 수 없는 초목이고, 보상의 개념일 때는 나비나 새 등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늘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땅 위의 존재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수자, 같은 책, p.240.

<표 18> 동자판관의 판결 내용 및 저승 마을

	죄 많은 이	공덕 많은 이	
판결 내용	1. 인간 세상 귀양 2. 다시 심판 받음	1. 저승 마을 영생	· 시왕 상마을, 중마을, 하마을 ¹²²⁾ · 줄럼당, 말럼당, 섹효산 · 노상데, 죽성도, 상시당
		2. 저승에서 벼슬	· 삼천선비 노는 들※ · 궁녀, 시녀, 정소남 노는 들※ · 향교훈장, 유향좌수, 별감, 통정대부, 가산대부 · 감부인, 도대부인, 수절부인, 열녀부인※
		3. 환생	· 나비, 새
환생 형태	· 마소 · 청구렁이, 흑구렁이 · 청지네, 흑지네 · 만물 푸십새(초목)	· 청나비, 흑나비, 줄전나비 꽃본 나비, 불 본 나비 · 청새, 흑새	
비고	· 선택권 없음	· 선택권 있음 · ※는 부인 전용 선택 사항	

저승 마을은 조은 국(좋은 곳)으로 표현되는데, 공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열·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종류가 여럿이고, 명칭이나 벼슬을 하는 것 등으로 보아 공덕의 정도에 따라 위계가 있음직하고, 저승에서 맡게 되는 벼슬은 결국 양반 직책을 맡하는 것으로 이승의 모습을 투사하고

122) 공덕 많은 이가 영생하는 마을을 시왕 상·중·하마을이라고 이름한 것을 통해 이들 마을이 시왕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왕(十王)이 인간의 사후를 심판하고 지옥의 죄를 주는 것으로 본다면, 걱정·근심 없이 영생할 마을이 시왕 세계에 있다는 것은 일견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임원생 구송본에서는 ‘극락세계 상마을로 지부첩서.’라고 되어있는데, (진성기, 같은 책, p.167.) 이로 보아 시왕 상마을과 극락세계 상마을은 동일한 마을로 생각할 수 있다.

시왕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수자는 불교적 색채의 十王이 아니라 무(巫)에 원래부터 있던 존재로 주검을 차지하는 신으로서 시왕(屍王 또는 尸王)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수자, 같은 책, p.239.

「주검의 말」에서도 ‘천금새남 만금수록재 바다잡숫고 시왕으로 가시옵소서’라고 축원하는데, 이때 시왕은 망자가 가야할 좋은 곳의 의미로 쓰인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晨 옮김, 같은 책, p.179.

불교·도교와 습합되기 이전에 이미 무(巫)에 시왕신앙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고찰해야겠지만,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시왕은 사후심판 개념과 무(巫)에서 가야할 저승의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있기도 하다.

(3) 꽃밭 : 생명의 원천

저승이 생명의 원천 공간임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꽃과 꽃밭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자와 조홍윤, 김창일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수자는 꽃의 죽이고 살리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천꽃밭이란 인간 생명의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 주는 신화적 생명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게도 하고 끝맺게도 했던 생명원천의 특수공간이며, 큰굿 속의 신화를 형성한 집단이 창조해낸 바의 독자적인 신비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¹²³⁾

조홍윤은 꽃은 재생을, 꽃밭은 저승이면서 본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음의 본향은 그리움과 신화와 상상력의 세계이며 꽃과 재생이 살아 숨쉬는 새남의 세상이라 하였다. 꽃밭을 저승에 있는 것으로 상징하고 한국 무(巫)의 저승은 사계절 꽃이 피고지는 우리의 본향 세계로 보고 있다.¹²⁴⁾

김창일은 꽃밭이 생명의 공간이나 본향임을 인정하면서 이외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¹²⁵⁾ 무(巫)에서의 꽃밭은 혼돈 속에 빠진 이승을 질서의 세계로 원상회복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공간으로 보고 이는 현상계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근거했을 때 현상계의 파괴된 현실 즉,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꽃으로 살려냄으로써 현상계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수레멸망악심꽃은 '죽이는 꽃'으로 일견 생명 점지와 재생의 기능을 하는 다른 꽃들과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듯하나, 부조리하고 파괴

123) 이수자, 같은 책, 2004, pp.201~202, pp.334~336.

124) 조홍윤, 「한국의 지옥연구」, 『민족과 문화』 제7집,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8, pp.44~45.

125)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꽃과 꽃밭의 기능을 ① 혼돈에 빠진 현상계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명의 공간 ② 재생을 통해 저승으로 잘 가는 혹은 신으로 좌절하게 하는 기착지적 성격의 공간 ③ 징치는 신화를 신화답게 하는 원초적 사고로, 악을 징치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징치를 위한 공간 ④ 꽃밭이 신이 거하는 신성한 공간 이면서 신이 꽃을 키우기 위해 노동을 감수하며 인간의 자격으로 꽃밭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신의 공유 공간으로 보았다.

된 현실을 되돌린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할락궁이가 악인인 제인장자와 그 가족들을 정치하는 것이나, 자청비가 천자국의 변란을 꽃으로 정치하는 것, 또 「악심꽃 꺾음」에서 악심꽃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으므로, 이를 막아보고자 모의적으로 악심꽃을 꺾음으로서 죽음으로부터 삶을 지키고자 하는 것 등은 결국 파괴된 현상계를 다시 원상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꽃피우기 경쟁의 경우에서도 번성꽃을 피우면 승자가 되어 이승 인간을 다스리거나 생불할망이 될 수 있으며, 검뉴울꽃(시드는꽃)을 피우면 죽음의 세상인 저승을 차지하고 저승할망이 되는 것으로 보아, 꽃은 생명·번성·인간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꽃과 꽃밭이 생명의 원천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이 없으며, 본 장에서는 꽃밭과 꽃 화소가 나타나는 무가를 정리한 다음 꽃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²⁶⁾

126) 「원턴강본푸리」에도 꽃화소가 나오지만 이는 재생이나 생명의 의미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본 논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연화꽃의 연꽃은 외꽃으로 번성하지 못하다가 상가지의 꽃을 꺾어 초면의 사람(오늘이)에게 주면 다른 가지가 번성하게 된다. 하나의 큰 욕심을 버리면 더 많은 다른 것을 얻으면서 번성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생명 점지나 재생과는 관련성이 적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298.

<표 19> 꽃밭과 꽃화소가 나타나는 무가

무가	꽃밭 공간	꽃-재생화소	꽃-징치화소	꽃피우기 경쟁	꽃 관련 제의
천지왕본풀이 127)				- 소별왕과 대별왕의 이승차지 경쟁 - 검뉴울꽃, 번성꽃	
생불할망본풀이	- 인간세상, 동서남북해산, 번성꽃, 환생꽃 - 금시상 석해산, 은대야에 꽃심음* - 아요산청통산웅천금신산대산에 서천꽃밭 만들*	꽃으로 인간 생불(아기) 점지	대별상부인에게 생불 점지 후 해복시키지 않음, 대별상 굴복	-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의 생불왕되기 경쟁 - 검뉴울꽃, 번성꽃	- 꽃타러듬 - 악심꽃꺾음¹²⁸⁾ - 꽃풀이¹²⁹⁾
이공본풀이	- 걸어서가는 먼 곳, 수직상부 - 저승, 수직상부* - 옥황**	- 할락궁이가 어머니 살림 - 도환생꽃	- 할락궁이가 제인장자 가족징치 - 웃음웃을꽃 - 싸움싸울꽃 - 수레멸망악심꽃		
세경본풀이 130)	- 인간세상, 아랫넛서천꽃밭 - 인간세상* - 인간세상, 사라대왕김정신 후원**	-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림 - 자청비가 문도령을 살림 - 도환생꽃	- 자청비가 천자국의 세번란을 막음 - 수레멸망악심꽃		
문전본풀이	- 천상* - 천상**	- 칠형제가 어머니 살림 - 도환생꽃, 금부채			
혜심곡	저승 시왕, 제12생불대왕 관장	아이 없는 이에게 아이 점지			
강님차사본풀이		- 엄라왕, 버물왕3형제 살림* - 살오를꽃, 씨오를꽃 - 번성할꽃, 환생할꽃*			

127) 수수께끼 및 꽃피우기 시합(생/사, 이승/저승차지)을 통해 서천꽃밭이 마련될 수 있는 사고의 맹아적 모습이 나타난다.

128) 악심꽃은 수레멸망악심꽃에서 나온 말로, 사람을 죽게하는 주화(呪花)이다. 이 악심꽃 때문에 부모 조상들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사(邪), 즉 인간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모의적으로 악심꽃을 꺾는 유감주술 행위의 놀이이다. 변장한 무녀가 서천꽃밭으로 가서 수레멸망악심꽃을 가져온 후 그것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129) 꽃타러듬과 꽃풀이는 서천꽃밭에 몰래 들어가 꽃을 타온 후 이 꽃을 보고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점쳐보는 놀이다.

130)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서천꽃밭은 모두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인간 세상에

서천꽃밭의 기원은 어디일까? 이공신과 서천꽃밭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무가는 <이공본풀이>인데, 꽃밭은 이 본풀이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가장 원형적인 공간 인식을 담고 있는 <천지왕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대·소별왕이 꽃가꾸기 내기를 통해 ‘번성꽃:금뉴울꽃 = 생:사 = 이승차지:저승차지’를 하는 것에서 꽃과 꽃밭에 대한 사고의 원형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서천꽃밭 공간의 조성은 <생불할망본풀이>에서 시작되며 <이공본풀이>에서 왜 사라도령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도 바로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나 있다.

박봉춘 구송 「명진국생불할망본푸리」의 말미에

삼신할망이 모든 보살 거느리고 아요산 청룡산 웅천금 신산대산 가운데 극락지를 찾고 보니 극락지 분명하야 청모람 람그는 후에, 숙석으로 데를 닥고 서천꽃밭을 설치하라 하되 ...중략...

꽃이 번성할 대로, 인간의 생불을 주시다가 집에 도라가 부리면, 꽃을 꺾어버리는 자 잇서서 옥황께 꽃감관을 원하니, 지부왕을 불러서 적당한 인간이 잇느냐 무르시니 금시상 땅의 김정국 아들 동과남 상주절 수록 드러 나온 인간이 잇사온대 세상 나온 후에 죽음도 췌 지은 일이 없어서 행실이 암전하오니, 적당한 인물이 웨다 즉시 김정국 아들을 불러서, 꽃감관을 시켰심네다¹³¹⁾

라고 하여 서천꽃밭을 설치한 것은 삼신할망이고, 꽃밭의 꽃을 꺾는 자가 있어 꽃감관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 세상의 김정국 아들이 죄 지은 일이 없어 꽃감관으로 추천된다. 이어 「이공본푸리」에서는

있다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나 상당히 속화된 공간에 존재한다. 따라서 저승 공간의 꽃밭이 아니라고 보고 본 장에선 논의하지 않겠다. 그러나 자청비와 관련된 주요인물인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리고 꽃으로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여 농경신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등 꽃과 꽃밭이 서사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131)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313.

십오세 때에 서로 결혼을 식히니 일년이 못되어, 옥황에서 편지가 왔는데 김진국 생원은 꽃감관을 하라하니 김생원이 서천꽃밭으로 꽃감관으로 갈 때에¹³²⁾

라고 하여 삼신할망의 요청과 지부왕의 추천으로 옥황이 명하여 김진국 생원이 꽃감관으로 가게 된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생불꽃 외에도 수레털망악심꽃과 싸움싸울꽃, 도환생꽃 등이 새로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서는 꽃밭이 서사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꽃밭도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전본풀이> 등에서는 서천꽃밭이 하나의 모티프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인간 생명에 관여하는 꽃밭은 그 영역과 기능을 확장하여 저승 시왕의 생불대왕이 관장하는 망자를 위한 보상과 위무의 공간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¹³³⁾ 결국 생불할망의 서천꽃밭과 이공신이 관장하는 서천꽃밭 그리고 생불대왕이 관장하는 시왕 세계의 꽃밭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층위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간으로 귀결되기도 한다.¹³⁴⁾ 이는 모순된 인식처럼 보이기도 하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다름 보다는 꽃밭 공간의 근본적인 기능과 성격이 같음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32)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p.259~260.

133) ‘어머님을 따라 서천꽃밭에 가니 아방왕이 깃득하다 충찬하고 나는 사라서 서천꽃밭대왕이 되고 너는 꽃감관이 되라 해야 생불꽃, 환생꽃, 유을꽃 차지하며 십오세 전에 죽은 혼은 이 꽃밭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아끼 못 낳는 사람, 장명함을 원하는 사람 기도하는 꽃입니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p.266~267.

134) ① 생불할망이 옥황에서 꽃씨를 얻어 삼월 삼종일에 오색꽃을 오방에 심는다.

-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p.313.

② 꽃을 꺾어버리는 자가 있어 옥황에 꽃감관을 청하니, 지상의 김정국 아들을 꽃감관으로 명한다.

-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p.313.

③ 김진국 생원이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간다. - 「이공본풀이」 p.260.

④ 생불꽃, 환생꽃, 유을꽃차지하며 십오세 전에 죽은 혼은 이 꽃밭으로 올라가게 한다.

- 「이공본풀이」 p.267.

⑤ 아끼 못 낳는 사람, 장명함을 원하는 사람 기도하는 꽃이다. - 「이공본풀이」 p.267.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표 20> 서천꽃밭의 변화 양상과 의미

무가	내용	꽃밭의 양상 또는 의미	꽃의 종류
천지왕 본풀이	• 꽃 피우기 시험 • 번성꽃:시드는꽃=생:사=이승:저승	서천꽃밭이 마련될 수 있는 사고의 기틀이 나타남	번성꽃, 검뉴울꽃
생불할망 본풀이	• 꽃 피우기 시험 • 번성꽃:시드는꽃=생:사=이승할망:저승할망	서천꽃밭 설연 서천꽃밭 관리 필요성 부각	생불꽃(오방, 오색꽃) 번성꽃, 환생꽃
이공 본풀이	• 꽃밭 관리신의 내력 • 꽃으로 복수 • 꽃으로 죽은 이 살리기	수레멸망악심꽃의 본초설명 꽃밭이 서사구조와 밀접	도환생꽃 수레멸망악심꽃 싸움싸울꽃 웃음웃을꽃
세경 본풀이	• 꽃으로 죽은 이 살리기 • 꽃으로 국가의 변란 막기	꽃밭이 서사구조와 밀접 꽃밭이 인간 마을에 존재	도환생꽃
문진 본풀이	• 꽃으로 죽은 이를 살리기	서천꽃밭이 하나의 모티프 역할	도환생꽃
헤심곡	•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망자들의 공간	망자를 위한 보상과 위무 공간의 의미	

이를 토대로 서천꽃밭의 공간 성격을 유추하면, 원래의 서천꽃밭에는 ‘생불꽃’만 존재하였고 이는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꽃이다. 이후 서천꽃밭에는 ‘생불꽃’ 외에도 ‘환생꽃’,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 ‘수레멸망악심꽃’ 등이 더 생겨나 인간의 감정조절이나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꽃 등이 피어 있는 곳으로 그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¹³⁵⁾

인간 생명을 점지하는 생불꽃이 핀 꽃밭은 산육신의 특성상 인간 세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생불할망의 직능을 하늘 옥황에서 명하였고, 인간 부부 사이에 생불을 점지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긴 했지만 할망이 있는 곳은 인간들이 있는 세속의 장소는 아니다.¹³⁶⁾ 따라서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

135) 환생꽃은 생불할망이 번성꽃과 함께 들고 다니며 인간에게 생불을 점지하는 꽃으로, 도환생꽃은 죽은 이를 되살릴 때 쓰는 꽃으로 구분하여 쓰기도 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환생꽃은 다시 그 기능을 세분하여 힘오를꽃, 살오를꽃, 오장육부생길꽃, 삼백육십혈생길꽃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p.124.

136) 표<19>에서 생불할망이 있는 곳은 모두 지상이기는 하나 깊고 깊은 심산·대산으로 나타나 있어 세속의 장소는 아니다. 단 <세경본풀이>에서 꽃밭은 서천꽃밭 혹은 사라대왕 김정신의 후원으로 불리고, 신성한 공간의 성격은 유지하고 있으나 인간의 마을에 꽃밭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려와 있더라도 그곳은 바로 신의 세계이며 넓은 개념의 저승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은 이분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무성한 가지에 동서남북 및 중앙 등, 꽃이 핀 위치에 따라 점지될 아이의 복과 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삼신탈망이) 옥황으로 꽃씨를 어더서 삼월삼종일에 오색꽃을 오방에 심으니 동방에 청색, 서방에 백색, 남방에 적색, 북방에 흑색, 중앙에 황색을 심어서 동에는 청재목이 나고, 서에는 백재목 나고 남에는 적재목이 나고, 북에는 흑재목, 중앙에 황재목나니 동청목 푸른 꽃은 남종보살 생불시키고 세벽금 흰꽃은 여종보살 생불시키고 남적계 붉은꽃은 장명 생불시키고 북하수 검은꽃은 단명 생불해야 이꽃을 비러서, 불전에 명과 복을 빕니다. 천지중앙 누런꽃은 만과출신이라 그 꽃바다 생불한 인간은 출신하옵고¹³⁷⁾

방위 별로 꽃의 색이 오행에 맞춰 다르게 나타나고, 동쪽꽃은 남자, 서쪽꽃은 여자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남쪽꽃은 장명, 북쪽꽃은 단명하며 중앙의 누런꽃은 과거시험의 모든 과목에서 급제한다고 한다. 방위별로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들어 있고 중앙은 모든 것의 중심이므로 제일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³⁸⁾

박봉춘 구송본 「명진국생불할망본পুর이」의 말미에서 꽃밭의 꽃을 꺾어버리는 자가 있어 꽃밭 관리를 위해 김정국 아들을 불러서 꽃감관을 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도 결국 인간 생불을 점지하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공간 성격을 보인다.

137)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313.

138) 안사인 구송본에서는 생불할망이 양 손에 각각 번성꽃과 환생꽃을 들고 생불을 점지한다고 되어 있어 꽃밭은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꽃 타러들에서 꽃밭에서 꽃을 심고 물을 주고 키우고, 나비·풍뎡이 등 벌레를 쫓아 꽃밭을 가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뻗은 가지가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번성하였다고 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17~118.

김매옥 구송본에서도 맹진국 애기가 석해산에 내려와서 절을 짓고 중선반 은대야에 꽃을 심는다. 이 꽃이 뿌리는 하나이나 가지가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번성하고 역시 동서남북과 중앙의 꽃이 각각 기능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138.

그러나 <이공본풀이>에는 살리는 꽃뿐만 아니라 죽이는 꽃도 함께 있어 그 성격이 변이·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된 공간 성격은 안사인 구송본 「이공본풀이」의 들어가는 말미에 잘 드러나 있다.

요 질은 보난 옛날 옛적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삼당 웨당 씨멜
죽(種滅族)시기던 수레멸망악심질이로고나. 수레멸망악심꽃(滅亡惡心花) 본초(本
初)가 어디며 본산국이 어딜러냐 흥민, (이후 이공본풀이 구송)¹³⁹⁾

「이공본풀이」가 수레멸망악심꽃의 본초이며 본산국이라는 말은 이 무가가 악한 장자 일족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비롯하여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임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 편으로는 서천꽃밭이 생명의 원천 공간이라는 것에 배치되어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꽃밭의 의미를 현상계를 위한 생명 공간으로 이해한 김창일의 논의를 빌릴 수 있겠다.

한국무속신화에서 꽃밭은 파괴된 현실의 세계를 원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매개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중략…

이공본풀이에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파괴된 현실을 되돌려놓기 위해 할락궁이 서천꽃밭에서 생명의 꽃을 가져와 어머니를 살려내는 것, 세경본풀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의 꽃을 가져와 정수남이를 살려내고 기지로서 위기를 모면한 후 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려내며, 문전본풀이에서 칠형제가 계모에게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는 것, 그리고 생불할망이 아이들을 사산(死産) 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구삼승할망과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하는 대별상신을 굴복시키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도와 현세를 바로 잡는 이야기 등은 모두 파괴된 현상계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하겠다.¹⁴⁰⁾

13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08.

140)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p.180.

서천꽃밭의 생명 꽃으로 질서와 조화를 잃은 현실 세계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예들이다. 여기서 의미를 더 확대하면 악심꽃으로 악한 존재를 징치하는 것도 대상의 단순한 징치를 넘어서서, 악한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조화와 질서를 회복한다고 할 수 있다.

할락궁이가 웃음웃을꽃과 싸움싸울꽃 그리고 수레멸망악심꽃을 사용하여 사악한 제인장자 일족을 죽이는 것, 자청비가 천자국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 역시 수레멸망악심꽃을 사용하여 적군을 물리친 것도 역시 현실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악인을 징치함으로써 그 외의 여러 인간들의 평화와 생명이 담보되므로 수레멸망악심꽃이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꽃이라 할 수 있겠다. 서천꽃밭은 살리는 꽃과 죽이는 꽃이라는 상반된 기능의 꽃이 공존하나, 두 꽃은 결국 살릴 것을 제대로 살리는 생명의 꽃으로서 기능한다.

3) 등장인물을 통한 형상화

저승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부류는 저승을 관장하는 왕과 같은 존재이고 둘째 부류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면서 저승왕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의 망자를 잡아오는 차사이고, 셋째 부류는 저승 존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죽은 인간이다. 이들 인물들의 모습과 역할을 살펴보면서 제주 무(巫)에 나타나는 저승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저승왕 : 이승의 질서 회복

① 천지왕과 대별왕

저승 관장 신의 대명사는 염라대왕이다. 「강림차사본풀이」에서도 저승을 관

장하는 왕으로서 염라대왕이 등장한다. 그러나 제주 무가 중에서도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신들의 세계는 물론 인간 세상의 질서까지 관장하는 신으로 천지왕이 등장한다. 천지왕은 그 이름에서부터 하늘과 땅의 세계를 모두 다스리며, 죽은 이의 세계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¹⁾

하늘에 해도 둘, 달도 둘이 떠서 인간 백성들이 타서 죽고 일어 죽자 이를 해결하려고 옥황상제 천지왕¹⁴²⁾은 지상의 총맹부인과 인연을 맺어 대별왕과 소별왕 두 아들을 얻어 이들로 하여금 천문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시도한다.¹⁴³⁾ 또한 인간 세상의 무도한 수명장자를 직접 징치하여 인간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도 한다.¹⁴⁴⁾

141) 이무생 구송본에 의하면 저승에서는 선달 그믐에 저승 감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상으로 보내 명절을 얻어 먹게 한다. 그런데 쉬메이 아버지만이 자식에게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 이를 패씸히 여긴 천지왕이 직접 쉬메이를 징치하러 가나, 온갖 흥협을 주고, 쉬메이 머리에 쇠철망을 씌우고 고통을 주어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천지왕은 지상의 바구왕의 딸 서수암이와 인연을 맺어 대별왕과 소별왕 두 아들을 얻는다. 이후 두 아들로 하여금 인간의 질서를 바로 잡게 한다. 진성기, 같은 책, pp.228~232.

142) 옥황상제라는 표현은 도교의 습합에 의한 명칭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하늘에 있는 신의 세계를 옥황 또는 저승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정주병 구송본에서는 ‘옥황상제 천지왕’이라고 하여 옥황상제와 천지왕을 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후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옥황상제’에서 명진국따님에게 생불할망을 임명하게 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99.

또한 「세경본풀이」에서도 신들이 있는 곳을 하늘 옥황이라 하고, 천자국에 변란이 일어났을 때 수레말망악심꽃으로 적을 물리치고 천제왕에게서 오곡 열두시만국을 받아 내려오는데, 천제왕이 있는 곳이 바로 옥황이다. 현용준, 같은 책, pp.298~299.

이로 보아 <천지왕본풀이> 내에서 천지왕은 신과 인간의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후 저승은 대별왕이 이승은 소별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분화가 일어났다. 일반본풀이 전체를 두고 살폈을 때 천지왕은 인간과 신의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무가를 향유하는 층에서 신의 세계가 분화되고 도교와의 습합이 이루어지면서, 천지왕이 옥황상제로 그 명칭이 혼용되거나 대체되고 저승도 신의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신들의 세계와 망자의 공간으로 축소·분리되어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

<천지왕본풀이>의 구송자별 천지왕의 이름과 왕이 거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송자	왕의 이름	왕이 거하는 곳
정주병	옥황상제 천지왕	옥황
이무생*	천지왕	저승
박봉춘**	천주왕	옥황
고대중***	천지왕	.

143) 천지왕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쌍둥이 아들을 얻어 이들로 하여금 두 개씩인 해와 달을 처리하도록 한다.

144) 수명장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미(大米)를 꾸러 오면 흰 모래를 섞어 주고, 소미(小米)를 꾸러 오면

수명장자의 집을 불태우고 그 일족을 죽인 다음, 그 아들딸들을 팔벌레와 똥 소로기로 환생시키는 것은 「해심곡」에서 죄가 너무 많은 존재들을 축생의 몸으로 환생시키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천(天)과 지(地)의 세상을 모두 관장하는 최초의 신은 두 개씩 뜯 해와 달을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는 등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¹⁴⁵⁾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 천지왕을 찾아 옥황으로 갔을 때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완전한 아버지의 권능을 그 아들들인 대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 세상을 맡게 될 두 형제는 매우 호기로운 모습으로 표현된다.¹⁴⁶⁾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¹⁴⁷⁾를 두 형제가 내기를 통해 이승과 저승 차지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의 방법은 수수께끼 내기와 꽃피우기 경쟁이다.

검은 모래를 섞어주고, 없는 인간들이 쌀 꾸러 오면 큰 말(斗로) 받아다가 작은 말로 팔아 부자가 되었다. 또한 그 딸들은 없는 사람들이 잡초 뽑는 일을 하러오면 자기들은 좋은 장에 좋은 반찬 먹고, 일꾼들에게는 고린 장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 수명장자 아들들은 마소에게 물을 먹여 오라고 하면 말발굽에 오줌을 누고서는 물을 먹여 왔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마소를 학대한 죄를 지었다.

이를 캐썸하게 여긴 천지왕이 벼락장군과 벼락사제, 우레장군과 우레사제, 화덕장군과 화덕장군을 내보내, 수명장자 집을 모두 불사르고, 그 딸들은 팔벌레로 만들고 그 아들들은 똥소로기(소리개의 일종)로 만들어 주둥이를 꼬부라지게 하여 비 올 때 날개에 묻은 물이나 흙이 먹게 하였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41~42.

145) 이무생 구송본에서는 천지왕은 죽은 아버지를 대접하지 않는 무도한 쉬맹이를 징치하러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이 임무 역시 아들들이 해결하도록 한다. 진성기, 같은 책, pp.228~231.

146) 큰성님은 박씨를 싱고 죽은 아씨 꼭씨를 노았더니 옥황테레 줄이 벌어 가옴테다. 성제(兄弟) 둘이 이 가지 저 가지 밭아아진 옥황으로 가고 보니, 아바님이 타시는 용상뿔(龍床角)에 감아지엿고나. 아바님은 웃고 용상만 이십테다. 성제 둘이 용상을 타아저네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임제(主人) 모른 용상이로고나!”

봉에눈(鳳眼)을 브릅뜨고 전일ㄱ든 꼭따시 동숙ㄱ든 주먹을 내돌르명 소리를 내올리명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임제(主人) 모른 용상이로고나!”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43.

147) 정주병 구송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천지왕이 없고 빈 용상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43.

이무생 구송본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를 친견하고 본매를 보이고 가족사항을 물어본 다음 자식임을 확인 받는다. 천지왕은 대별왕에게 이승을 소별왕에게 저승을 차지하라고 명하나 이승을 차지하고 싶은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수수께끼 내기와 꽃피우기 내기를 제의하여 결국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한다. 진성기, 같은 책, pp.232~235.

① 첫째 질문과 답

형의 질문 : 어떤 낭(木)은 주야평생(晝夜平生) 쉼(葉)이 아니 지곡, 어떤 낭은도 쉼이 지느니?

동생의 답 : 오곡이라 덩돌막이 즈른 낭(마디가 짧은 나무) 주야 평생 쉼이 아니 지고, 오곡이라 계구린 낭(속이 빈 나무) 주야평생 쉼이 지웁네다.

형의 말 : 설운 동생(同生) 모른 말을 말라. 청대(靑竹) ㄴ대는도 ㄴ디ㄴ디 구리어도 청댓 쉼이 아니 진다.

② 둘째 질문과 답

형이 질문 : 어떤 일로 동산엿 풀은도 메가 줄라지고 굴렁엿 풀은도 메가 질어지느냐?

동생의 답 : 이삼스월 봄 샛비가 오더니 동산엿 흑(土)은 굴렁테레 가난 동산엿 풀메가 줄라지고, 굴렁엿풀은 메가 질어집네다.

형의 말 : 설운 동생아 모른 말을 말라. 어떤 일로 인간 사름은 머리는 질어지고 발등엿 털은 찻르느냐?

처음 형이 물은 것은 잎이 지지 않는 나무(生)와 잎이 지는 나무(死), 즉 식물의 체계에 빗대어 생과 사의 속성을 물은 것인데, 동생은 키가 작은 나무, 속이 빈 나무 등 식물의 외형적인 현상에 기대어 대답을 하므로 형은 그 대답이 틀렸다고 한다.

둘째 질문도 형은 동산의 풀은 잘 자라지 못하고 굴렁의 풀은 잘 자라느냐고 물었는데, 이도 역시 '풀이 잘 자라지 못하고(死) 잘 자라느냐(生)'에 대한 생과 사에 관한 질문인데 동생은 '봄비에 동산의 흙과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라며 '상:하'의 물리적 현상으로만 대답했기 때문에 형은 그 대답 역시 틀렸다고 한다.

형의 두 질문은 모두 생의 본질적인 속성을 다루는 상징적인 물음인데 반하

여 동생의 대답은 외면적인 현상만을 중시하는 태도이다.¹⁴⁸⁾

그리고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대별왕은 번성꽃을 피워낸다.

바구왕에 간 꽃씨를 타는고나. 지부왕에 가서 꽃씨를 타단 은동이 늦동이 주수
리남동이에 꽃씨를 심겼더니, 설운 성님 심근 꽃 번성꽃(繁盛花)이 되고 죽은 아
시 심근 꽃 검뉴울꽃(시든 꽃)이 됐었고나.¹⁴⁹⁾

번성하는 꽃은 생명의 꽃이요 시드는 꽃은 죽음의 꽃이다. 결국 대별왕은 생
과 사의 원리를 알고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소별왕의
속임수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저승을
단순히 죽음의 공간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 새남의 공간으로 인식
하고자 했던 의식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일반 백성이든 왕이든 부자든 가
난하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저승을 맑고 청량한 세계라고 한 것도 저
승이 이러한 세상이기를 바란 염원의 표현일 것이다.

저승을 포함하여 비인간계인 신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은 천지왕이었으며, 천
지왕은 이승의 질서를 바로 잡고 악인을 징치하는 역할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그 권능은 완벽하지 않았고 이어 그 권능은 자식 세대로 이양되어 이승과 저승
을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둘 다 이승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결국 더 현명하고 생사의 원리에 통달하고 생명을 키우는
능력이 있는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보아 저승은 표면적으로는
죽음의 세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의 원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승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저승은 부
정한 이승의 질서를 보완하고 회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148) 이수자, 같은 책, pp.338~339.

14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45.

② 염라왕과 시왕

염라대왕은 인도어로 야마(Yama)로 불리며 인간의 시조이면서 최초로 죽어, 죽음의 길을 개척하고 죽은 자들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¹⁵⁰⁾ 야마의 나라는 하늘에 있으며 인간은 죽어서 영생한다는 낙천적인 내세관을 보여준다. 이후 야마가 힌두교나 불교에 수용되며, 특히 불교에서는 사후 심판사상과 함께 죽은 이가 가는 곳을 천계의 낙토가 아닌 지하세계로 상정하고 야마는 지옥의 심판관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¹⁵¹⁾

지옥사상이 중국에 유입되어 불전에 한역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존 토착신앙¹⁵²⁾과 결합하여 사후 심판 개념을 형성한다. 야마는 염마(閻魔)로 음역되어 지옥의 심판자가 된다. 당말 오대에 사문(沙門) 장천(藏川)이 『예수시왕생칠경(豫修十王生七經)』을 찬술하면서 시왕신앙이 성립하게 된다.¹⁵³⁾ 지옥을 다스리는 왕인 염마왕은 시왕신앙에서는 시왕 가운데 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마가 염마가 되고 다시 염라대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층위의 변

150) 야마는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따라서 최초로 죽은 자였다. 그가 사자(死者)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그 후의 죽은 자들은 그 길을 통해 그의 곁으로 나아갔다. 거기서 그가 죽은 자들의 왕이 되었다. 이 야마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데, 죽은 이들은 야마를 수행하는 두 마리의 얼룩개의 안내를 받아 낙토에 이르며, 야마가 지배하는 최고천에서 조상의 영(靈)인 피트리(Pitr)의 영접을 받고 녹음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주연과 가무음곡을 대접받으며 환락을 누리게 된다. 『Rg-veda』 IX. 113, X. 135. 장미진, 「불교문화권에 있어 ‘地獄’의 원신화적 요소와 그 의미」, 『미술사학』 7, 미술사학연구회, 1995, pp.195~196. 재인용

151) 장미진, 같은 글, p.196.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6, p.19. 후기 베다 문헌 시대 곧 기원전 10세기 무렵이 지나서 인도에 들어온 지옥 사상은 토착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곧 「마하바라타(Mahābhārata)」에서는 야마가 죽음의 신(死神)이 되어서 죽은 이의 잘잘못을 판정하며 또 그 다스리는 나라도 이미 낙토가 아닌 암흑의 세계로 바뀐 것이다.

152) 고대 중국인들은 천지의 중앙에 곤륜산이 위치하며, 이곳에는 천제인 황제(黃帝)와 태양신인 동왕공(東王公) 및 죽음의 신이면서 지모신인 서왕모가 거거하며 희유(稀有, 봉황새)라고 하는 새가 동서, 음양, 탄생과 죽음을 중개한다고 믿었다. 후한대에는 동악(東嶽)인 태산(泰山, 太山)을 중심으로 태산신앙(泰山信仰)이 성행했는데, 태산은 사령(死靈)이 머무는 곳으로 인간의 생적(生籍)과 사적(死籍)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명(司命) 신인 태산부군(泰山府君)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한다. 중국 민간에서는 죽음을 황천(黃泉)간다고 하는데, 황천은 곤륜산(태산)의 지하에 있다고 믿는 곳으로 상고시대 신화 중의 황수천(黃水泉)을 말하며 황하의 근원을 가리킨다. 죽어서 가는 황천국은 황하의 황토층에서 유래하는 중국인 고유의 관념으로 그곳은 빛이 없고 어두컴컴하며 쓸쓸한 곳이라고 한다. 장미진, 같은 글, pp.213~214 참조.

153) 박선희, 「18세기 지옥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p.10.

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제주 무가에서는 서로 다른 층위의 염라대왕이 복합적인 성격으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강림차사본풀이」에 나오는 염라왕과 「해심곡」에 나오는 시왕들과 시왕 중의 한 존재인 염라대왕은 그 성격이 차이가 있다.

「강림차사본풀이」에서 염라왕은 과양생이 처의 소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과양생이 처의 세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절을 하다가 바로 죽어버리는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해명을 해달라고 김치원에게 소지를 올린다. 김치원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염라왕임을 알고 강림으로 하여금 염라왕을 잡아오도록 한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 염라왕이 직접 이승에 와서 답변을 한다. 그 결과 과양생이 부부는 현생에서 자신에게 붙어 닥친 비극의 의문을 풀게 되고, 그 악행의 결과로 벌레로 환생한다.

“이거 너의 아들 삼성제냐?”

“예, 우리 아들 삼성제광 꼭 ㄴ뜬네다.”

버무왕 아들 삼성제가 활 받으라, 칼 받으라, 죽일팔로 둘러가니, 염내왕(閻羅王)이 말을 하네

“원수는 내 가파주마. 아방국 어멍국 어서 좇앙 가라.”

과양생이 부배간 아읍 각(九脚)에 쇠(牛)를 메여 무등여기ㄴ라 동서(東西)레레 몰라흐니 과양생이 부배간(夫婦間) 아읍 각에 쫓어져 쫓어지단 남은 건 도구(搗臼)방애 노안 독독 뿔안 허풍브름(虛風)에 불려부난, 산 때도 놈의 피만 빨아 먹젠ㄴ단 과양생이 부배간(夫婦間) 죽언 가도 놈의 핏 빨아 먹저 국다귀 모귀(蚊)몸에 환생(還生)홉네다.¹⁵⁴⁾

한 날 한 시에 죽은 자식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악행의 결과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을 염라왕은 이미 저승에서 다 알고 왔다고 한다. 인간의 죽

154)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24.

음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생사와 관련하여 그 전모도 다 알고 있는 전능한 존재로 나온다. 또한 악인에 대한 징치도 잊지 않으며, 죄 많은 인간을 벌레로 환생시킨다.

염라왕은 악인의 징치뿐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이의 목숨도 되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염내왕이 금풍체(金扇)로 주천강(酒泉江) 연못(連池)을 삼식번 후리난 주천강 연못이 바짝 쪼아져 모인 구둑이 나옴데다. 버무왕 아들 죽은 시체(屍體)는 뼈(骨)만 슬그랑 허여시킨 도리도리 모도아 난 염내왕이 금풍체로 삼식번 후리난 식성제(三兄弟)가

“아이고, 봄 잠(春眠)이라 늦게 잤수다.”

와들랑이 일어나난¹⁵⁵⁾

금부채로 주천강 연못도 말릴 수 있고, 금부채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사람의 재주와 용맹을 알아보는 해안도 있다. 강님을 빌려다 저승에서 부리다 보내겠다고 하니, 김치원이 거절한다. 이때 강님을 반반씩 갈라 가지자고 제안하고, 김치원이 강님의 몸을 선택하자 염라왕은 강님의 삼혼을 빼어 저승으로 돌아가 버린다.

한편 강님이 저승으로 염라왕을 잡으러 갔을 때 염라왕은 알옛녘 인간 세상의 말쑥 장자집에 전새남 받아 먹으러 가는 길이었으며, 그 행차는 앞에는 영기(令旗) 뒤에는 몸기, 파랑당돌영기를 세우고 삼만관속 육방하인 거느리고 길 비키라고 외치며 연주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 행차가 장관이며 위엄이 있고 또한 염라왕의 하는 일이 전새남 곶을 받으러 다니며 아픈 인간이나 죽은 이의

15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24.

이영주 구송본에서는 서천꽃밭에서 살오를꽃, 씨오를꽃, 번성할꽃, 환생할꽃을 타다 놓고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삼세번을 살짝 때리니 버무왕 삼형제가 되살아났다고 되어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204.

천도굿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표현된다.

이로 보아 염라왕은 생사의 원리를 알고 있으며 악인을 죽일 수도 있고, 억울한 죽음을 한 경우 살리거나 환생시킬 수도 있는 저승 전체를 관장하는 저승왕으로서, 명칭은 외래적이지만 무(巫)의 원래적인 저승을 관장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이에 비해 시왕들은 ‘인간 목숨차지’신으로서 인간을 정명(定命)에 따라 죽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망자의 생전 죄과와 선행을 심사하고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을 담당하며 대왕이라고는 하나 실무자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시왕 중에도 염라대왕이 있는데, 제5 대왕으로서 여러 대왕 중의 한 존재로 그 권능이 앞서의 염라왕보다는 1/15로 감소되며 여러 대왕끼리 업무 분장을 통한 협업 파트너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차사본풀이>의 염라왕이 다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¹⁵⁶⁾, 냉혹한 심판자의 모습이다. 또한 <차사본풀이>의 염라왕은 저승과 굿판과 심지어는 요청에 따라 인간 세상의 동헌 마당에도 나타나는 것에 비해, 시왕들은 주어진 업무 이외에는 다른 서술이 없다. 「젓드리앗혀살려움」에서는 시왕들도 청신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시왕의 본풀이가 없다는 점은 무(巫)의 본래적 신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차사본풀이>의 염라왕은 천지왕이나 대별왕 혹은 야마신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시왕 중 한 명인 염라대왕은 사후 심판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시왕신앙의 전형적인 왕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그 층위가 서로 다른 염라왕이다. 「젓드리앗혀살려움」에서 시왕과 염라왕은 별개의 존재로 청신되는 것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살려오시는데, 앞의는 영기(令旗) 뒤에는 몸기 파랑당돌영서벙기(-令司命旗) 거느림고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지동토인(妓童通人) 거느림고 벌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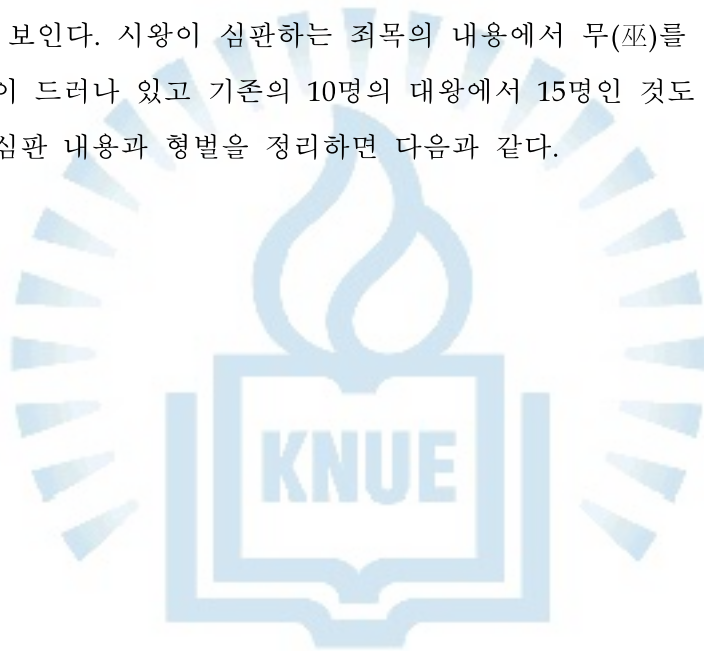
156) 강님이 염라왕을 잡으러 저승에 갔을 때 삼만관속을 거느리고 화려한 행차를 하다가, 강님이 적패지를 붙이고 우레같은 소리로 웅맹하게 염라왕을 잡아채자 염라왕은 벌벌 떨면서 인정사정을 하기도 한다. 한편 인간 세상의 동헌 마당에 김치원을 만나러 올 때는 동서로 뭉게구름, 무지개를 타고 호기롭게 동헌 마당에 내려 고성을 높이며 거들먹거리기도 한다.

뒷게(別輦獨驕) 쌍가매(雙駕馬) 호호호명, 시왕(十王)은 시왕삼차사(十王三差使) 거느리고 저승 염네왕(冥府閻羅王)은 저승차스(冥府差使) 거느리고 살려오시는디¹⁵⁷⁾

염라왕이라는 동일한 명칭과 죽은 사람들의 세상을 관장하고 죽은 이를 심판한다는 유사한 직능으로 인해 존재가 혼동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존재로 또렷이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¹⁵⁸⁾ 이러한 층위의 차이는 차사의 행위와 모습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무가 속의 시왕들은 불교와 도교의 시왕신앙에서 보이는 시왕과도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시왕이 심판하는 죄목의 내용에서 무(巫)를 향유한 신앙민의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고 기존의 10명의 대왕에서 15명인 것도 독특하다.

시왕들의 심판 내용과 형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61.

158) 억울하게 죽은 망자는 이승의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겨, 이러한 망자를 저승 명왕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펼치는 굿으로 질침굿이 있는데, 이 굿에서는 죽은 조상의 길도 함께 닦아야 하므로 시왕맞이까지 곁들여 하기 때문에 ‘스당클’굿으로 진행한다. 이때 사당클에 모시게 되는 신위의 뒤편은 조상신, 문전신, 염라대왕, 시왕(열시왕)으로 염라대왕과 시왕을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794 참조.

<표 21> 시왕들의 심판 내용과 형벌

시왕	관련되는 죄	형벌 유형	윤리관의 특징
제1 진광대왕	이타적 선 여부	육체적 형벌 강도 강함	우리나라의 보편적 윤리관 ¹⁵⁹⁾
제2 초강대왕			
제3 송제대왕	효·존장 등 가족과 동네의 화목 여부		세계 보편적 윤리규범과 유사
제4 오관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혈연집단 계승 여부	육체적 형벌 강도 약함	큰굿 집단만의 독특한 윤리관
제10 전륜대왕			
제11 지장대왕	·	·	
제12 생불대왕	죽은 나이·자식 유무	결핍 보상	
제13 좌도대왕	·	내용 심사	
제14 우도대왕	·	서류 정리	
제15 동자판관	·	판결	

159) 이수자는 깊은 물에 다리 놓는 월천공덕, 배 고픈 사람 밥을 부는 급식공덕, 목마른 사람 물 주는 급수공덕, 벗은 사람 옷을 주는 착복공덕을 큰굿형성 집단만의 독특한 윤리관이라 하였다. 이수자, 같은 책, pp.234~236.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별회심곡」에도 나타나 있어서 제주 큰굿 형성 집단만의 고유한 윤리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보편적 윤리관이라 할 수 있다. 「별회심곡」에서는 제1~제10 대왕을 열거한 다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불러 치죄하고 벌을 내린다. 선한 업을 쌓은 사람은 잘 대접하고 악업을 쌓은 이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구경하라 하며, 선업을 쌓은 이가 가기를 소원하는 대로 남·여 구별하여 처리한다. 특히 남자를 치죄할 때의 죄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에게 충성, 부모에 효도, 가범(家範) 세운 여부, 급수공덕, 착복공덕, 행인공덕, 월천공덕, 급수공덕, 활인공덕, 중생공덕, 염불공덕 여부 등을 심사한다. 안진호, 『석문의범』, 동아출판사, 1983, pp.241~243.

「별회심곡」이 구비 전승되던 불교계 가사로 포교의 원활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을 감안하고, 제주 무가의 「혜심곡」과 양상이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교섭이 빈번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한민족 교유의 사유가 녹아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도의 지옥 사상에서는 망자가 야마의 나라로 갈 때, 역시 죄인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기름을 보시한 적이 있는 자는 등불로 길을 밝혀주고, 단식을 한 적이 있는 자에게는 우유를 주기도 한다. 또한 술을 판 자는 300년 동안 규환(叫喚)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벌레로 태어나며, 살인자는 지옥에 가서 죽은 자의 핏방울 수만큼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며, 간통을 저지른 자는 자기 몸에 있는 터럭 수효만큼의 기간을 지옥에서 겪어야 한다.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6, pp.19~20.

제주 무가의 시왕 사상과 인도의 지옥 사상에서 보이는 지옥의 모습이나 형벌 등은 일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살아서 선업 또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며, 지옥이 저승을 가기 위한 통

제1 대왕부터 제10 대왕이 주로 육체적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통스런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망자를 죄인 취급하여 엄히 심판하는 것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이 선업을 쌓아 지옥에 들지 않도록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11 대왕부터 제15 동자판관의 내용은 일반 불교계 <회심곡>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제주 무(巫) 향유 집단만의 독특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생불대왕은 15세 이전 죽은 어린 아이의 영혼을 관장하고 서천꽃밭에서 지내도록 해주며, 늙어서 죽었더라도 자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점지하여 준다. 이러한 생불대왕의 역할을 통해 저승공간은 혹독한 고통이 있는 심판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승에서의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무화(巫化)된 시왕신앙의 모습으로 파악된다.

저승 전체를 관장하는 왕으로서의 염라왕과 저승의 심판자인 시왕은 그 역할과 층위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 목숨을 관장하는 기본 역할 외에도 악인은 죽이거나 큰 고통을 주고 선인은 영생과 복락을 주는 존재로 기능한다. 즉 이승에서의 행적에 따라 저승에서 다른 유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살아있는 현세 인간들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세남 곳에 청신되고 이승의 죽음에 대한 해명을 해주는 염라왕의 모습이나 변모·확장된 모습의 시왕인 생불대왕의 역할을 통해 저승은 살아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망을 들어 주는 곳으로도 인식되면서, 동시에 생과 사를 축으로하여 이승의 질서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차사 : 소망 실현

차사(差使)는 저승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저승 염라왕의 명을 받아 정명이 다된 인간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존재이다. 기본적으로 저

과의례적 성격인지, 죄 많은 이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핵심인지가 서로 다르다.

승 소속이며 인간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대면하는 저승 존재이면서 망자가 저승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승 차사의 무자비한 업무 수행방식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저승 관장 왕인 염라왕과 심판자인 염라왕(시왕)이 그 층위가 다른 것처럼 저승 차사도 누구의 관속(官屬)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저승 차사의 유형과 형상을 살펴보기 전에 「젓드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나는 차사의 소속과 이름¹⁶⁰⁾을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60)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61.

그 외에도 현용준의 같은 책에서 다양한 차사들이 나타난다.

강림이 저승 갈 때 들어간 일흔여덟 갈림길 중에는 차사들이 들어간 길이 있는데 「젓드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나지 않았던 ‘싱금차사, 발금체스, 모람체스’ 등도 있다. 여기에 나열된 차사들의 관할이나 소속은 젓드리와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p.214.

또한 「스만이본풀이」에 앞서 행하는 「액막이」에서도 13종의 차사가 거론되는데, 앞서 중복되는 차사들 외에, ‘눈 붉은 황사자, 귀 붉은 모람사자, 옥황차사 망나장, 물차사 부원국차사, 단물차사 용궁차사, 아이 달고 가는 구청낭구불법차사 그리고 갈 길이 바쁜 이름 없는 차사’로 차사관장님이 나열되고 있다. p.230.

「젓드리얏혀살려움」에서 청신되는 차사는 아니나, 「초공본풀이」에는 용왕국 거북사자 백강생이(흰강아지)가 등장한다. 자지맹왕아기씨가 귀여워하던 강아지였는데, 강아지가 죽었을 때 바다에 던졌더니 용왕국 사자가 되고, 자지맹왕아기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혜를 갚기 위해 나타나 수삼천리 먼 길을 태워가는 존재로 나타난다. p.139.

이 백강생이는 「강님차사본풀이」에도 등장한다. 강님이 저승에서 염라왕을 만나고 이승으로 돌아갈 때 길 안내를 하는 존재로도 나타나는데, 이때는 저승의 염라왕을 모시고 있는 사자(使者)임을 알 수 있다. p.219.

〈표 22〉 차사의 소속과 이름

소속 또는 관할	차사 이름	소속 또는 관할	차사 이름
천황차사	월직사자	객사차사(길)	비명차사
지황차사	일직사자	객사차사(나무)	결항차사
인황차사	어금부도사	객사차사(물)	엄사차사
옥황차사	금부도사	객사차사(불)	화덕차사
저승차사	이원사자	심방차사	맹두맹감 삼차사
이승차사	강님사자	아이차사	구불법구차사
용왕국차사	대방황수	·	구관차사
삼신당차사	담수차사, 용궁차사	·	신관차사

‘제16 사자’라고 하여 시왕의 열여섯 번째 존재로 차사들을 열거하고 있다. 소속과 맡은 임무의 관할지에 따라 다양한 차사가 거론되고 청신되고 있지만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차사는 여러 이름이 거론되다가도 그냥 ‘(저승) 차사’이거나 ‘강님’으로 인식된다.¹⁶¹⁾ 대체로 인간의 정명이 다 되어 망자를 데리러 오는 차사는 천황·지황·인황차사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원사자는 저승차사로 주로 저승 내에서 염라왕을 보필하거나 저승 내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표현된다.¹⁶²⁾ 그러나 서사가 진행되면 어느 새 차사는 강님차사로 그 이름이 바뀌며 존재도 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차사의 직능과 이름을 세분하여 인식하고 그 성격도 다르지만 결국은 ‘차사=강님’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¹⁶³⁾

161) 이때 강님차사는 <강님차사본풀이>의 고유명사로서의 강님을 말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차사=강님’이라고 인식하며 보통명사로서의 강님이다. 신직을 부여받은 강님과 실무자로서 망자를 직접 호송하는 차사 강님은 그 이름은 같아도 층위가 다르다.

<표 22>의 내용과 아울러 살펴볼 때, 여러 차사를 관용적으로 나열하는 경향을 보인다.

162) 「강님차사본풀이」에서 강님에게 저승 가는 길을 가르쳐 준, 저승 길 보수하는 이는 질토래비 질나장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원사자로 명명되기도 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15~216.

163)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188~189.

단일 내용 단락인데 차사의 인원수와 이름 등이 달라지며 나타난다.

‘천양처스 월축스제 지왕처스 일주님 인왕처스 어금베도스 저승가민 이원스제 적배지 무루와 인간으로 느릴 적의...’

‘체스님이 인간을 느려사니 강님체스이 적배질 무루오니 별때ㄴ튼 강님체스...’

무가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차사는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유형은 시왕 소속으로 망자를 직접 압송해가는 차사이다. 이 유형은 차사로서의 직무는 매우 충실히 이행하는데, 이들이 망자를 잡아가는 것은 시왕에서 심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망자를 죄인 취급하며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벌떼ㄱ뜬 처스님은 누운 방안 올라놓고 우뚝가뜬 소리 벌떼ㄱ찌 올려가난,
‘나온 선설 아무가이’ 초혼 이혼 삼혼이야 창문 뺏기 나갔고나.
- ② 원고자(願求者)이 말을 하뵈, “츄스님아 츄스님아, 한 배코만 누겨줍서. 부모 처가속(妻家屬) 어린 즈식(子息) 불러놓고 만단스실(萬端事實) 일러두고 가오리다.”
- ③ 인정(人情) 엇인 처스님은 “행차질(行次路)이 바빠시니 어서 글라. 어서 글라.” 손에 스주 발에 박쇄(足鎖) 채와가니, 손콍 발콍 검은 피가 사아가고,
- ④ “츄스님아 츄스님아, 마주막에 촌 냉수(寒冷水) 한 술 먹고 가오리다.”
- ⑤ 인정 엇인 처스님은 뒤꿈치 삼쉬변을 꿰여노니 눈공즈도 저승이요, 목에 큰 칼 씨와가니 목에서는 대톱소리 소톱소리가 절로 나고.¹⁶⁴⁾

①에서 차사는 벌떼같이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병자의 목숨을 끊어버린다. ②에서 망자가 포박한 줄을 한 배코만 늦추고 가족들에게 유언할 시간을 달라고 하나 ③에서 차사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행차길이 바쁘니 어서 걸어라고 한다. 그리고 손에는 홍사줄을 발에는 족쇄를 채운다. ④에서 망자는 찬물 한 잔이라도 먹고 가자고 애원하나 ⑤에서 차사는 냉정히 거절할 뿐 아니라 족쇄를 더욱 죄어서 망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인정이 전혀 통하지 않고 냉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공포스럽기까지 한 차사의 모습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들 차사가 시왕 소속 차사로서 망자를 죄인시

‘벌떼ㄱ뜬 강님체스 신당에다 적베지 부찌 이내 생명 알아지니 처스님이 돌려들저...’

‘인정엇인 츄스님은 뒤꿈치 삼쉬변을 꿰여노니...’

164) 현용준, 같은 책, p.189.

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 차사는 실제 관아의 사령의 모습과 직능에 영향을 받아 형상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냉혹하고 사나운 성격은 죄인의 호송이라는 거칠고 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⁵⁾ 또한 차사의 복색도 조선 시대 군로사령의 복색과 닮아 있다.

체스(差使) 행착을 보니 남방스주(藍紡紗紬) 봉에마지 북방스주(白紡紗紬) 저구리 죽지멩지(紫朱明紬) 별통행경 백녹보선 섭송 메미투리 낙곡지로 둘을 메고 사안 쇠털 흑두전립(黑頭戰笠) 굴망굴깃 놀망놀깃 허우레비 허튼 깃 늘좌브든 조심친 한산(韓山)모시 접두루막 남수와지 적쾌지(藍水禾紬赤快子), 옆의 찬 건 홍사주(紅絲紬) 적배지(赤牌旨) 곱에 차고 홍삼싱에 더거리여, 석자오치(三尺五寸) 폴독거리 용도머리 행찰배 등에 지고, 앞의는 놀롤용제(勇字) 뒤에는 임금왕제(王字) 봉에눈(鳳眼)을 버루뜨고 처스(差使) 행착이 완연(宛然)구나.¹⁶⁶⁾

남색 솜바지에 흰 저고리, 자주색 행전에 흰 버선과 미투리, 백지로 들멘끈을 메고 쇠털 달린 흑전립에 허울거리는 긴 깃이 달렸다. 또한 그 위에 한산모시 접두루마기를 입고 다시 적쾌자를 걸쳤다. 여기에 홍사줄과 오라줄을 차고, 옷고름에는 적쾌지를 달았다. 모자의 앞에는 날랜 용(勇)자를 붙이고 뒤에는 저승시왕의 명을 받았다는 뜻으로 임금 왕(王)자를 붙였다. 복색을 엄중하고 차려입고 봉황같은 눈을 부릅뜬 모습은 죄인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현실 세계의 죄인을 압송하는 냉혹하고 사나운 군로사령의 모습에서 저승차

165) 송미경, 「사령형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전형성」,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p.313.

166)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88. 조선시대 군로사령들의 복식과 유사하다.

‘검붉은 반룡단(半龍丹)은 군로사령들이 입었던 흑장의(黑長衣) 혹은 홍장의(紅長衣), 담병거지는 전립(戰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군로사령들은 대개 아청색 삼베로 만든 소매 좁은 군복에 붉은 빛이나 검은 빛의 무명 배자를 입고 허리에는 남방사주(藍紡紗紬) 전대를 둘렀으며 미투리를 신었다. 또 군뢰복다기·군뢰복다리라고도 불리는 주전립(朱戰笠)을 머리에 썼는데, 이것은 모(帽) 위에 ‘용(勇)’자를 붙이고 정자(頂子)에는 공작의 남빛 깃털을 묶어서 둥근 몽둥이처럼 만든 청전우(靑轉羽)를 달아 좌우로 돌릴 수 있도록 한 병거지였다.’ 김영숙 편저,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74, p.224. 송미경, 같은 글, p.314에서 재인용.

사의 모습을 유추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차사는 죄인 압송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동시에 ‘차사=죽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러한 차사에게 끌려가는 저승도 절망의 세계로 인식된다.

둘째 유형의 차사는 저승 전체를 관장하는 염라왕의 차사 강림이다. 시왕의 차사들에 비해 강림은 용맹과 지혜가 있는 영웅으로 차사의 신직을 부여 받은 존재이다. 본풀이에서도 차사로 좌정한 내력담을 보여주며, 강님은 이승 김치원의 차사로 용감하게도 저승의 염라왕을 잡으려 간 인물이며, 이 임무를 완수하고 결국 저승 차사로 좌정하게 된다. 그리고 삼천 년 동안 잡지 못한 동방삭을 지혜로 잡음으로써 저승차사로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

강님의 영웅적인 면모는 저승에서 더 극대화되는 양상을 띤다. 저승으로 떠나기 전에 이승차사로 낙점이 되었을 때만 해도 저승을 어떻게 가야할 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비새같이 울기도 한다. 그러나 큰부인과 큰부인집 조왕할망, 일문전의 도움으로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는 이승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적배지(赤牌旨)는 연주문(延秋門) 바위(邊)에 부쳐두고 연주문 지동(柱) 밑에 망근(網巾) 벗은 머리에 비고 누웠더니, 모릿날 스오시(巳午時)엔 연주문 안에서 천하가 요동하는 듯허연 발딱 일어나 보난, …중략…

다섯 번췌 가메가 줍췌 사망 호경을 지르췌,

“지동토인(妓童通人)아, 어서 저디 보라. 연주문(延秋門)에 부췌 적배지(赤牌旨)가 어떤 적배지냐?”

이원스제 말췌췌,

“이승 강님(姜林)이가 저승 염내왕(閻羅王) 췌히레 온 적배집네다.”

염라왕이 호경을 지르췌,

“어떤 놈이 나를 췌히췌냐?”

강님이 한 줌은 허엿던 몸췌(身體)을 봉에눈(鳳眼)을 부릅뜨고 삼각췌(三角鬚) 거서리고 정당 ㄱ쁜 폴따실 건어 동곳ㄱ쁜 폴주먹을 내여놓고 우레ㄱ쁜 소리 벵낙(霹靂)ㄱ췌 지르명 혼번을 벌췌 튀명 메여치니 삼만관췌(三萬官屬)이 간간무레,

식번첸 연가멧 부출을 심언 흥글멍 가멧문을 올안 보난 염내왕도 양주먹 췌연 앓
안 박박 털엄시난, 염내왕 손에 눈끔박흐는 새에 손엔 스주 발엔 박췌(足鎖) 용도
머리 행착뻔 감안, 혼번을 잡아 볼르니, 염내왕도,
“ 강님이야, 강님이야, 혼 배코만 누겨도라. 인정 스정 많이 걸어 주마.”¹⁶⁷⁾

강님의 지략과 용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염라대왕이 나올 때까지 연추문에 적패지 붙여놓고 밖에서 느긋하게 기다린다.
- ② 표정, 목소리, 빠른 동작으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한다. 봉황눈을 부릅뜨고, 삼각수염을 휘날리며 청동같은 팔뚝으로 동곳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큰소리를 치며 순식간에 주변 관속들을 메어친다.
- ③ 염라왕의 삼만관속이 혼비백산한 틈을 타서 가마를 흔들어 염라왕을 두렵게 한다.
- ④ 눈깜박하는 사이에 염라왕을 포박한다.

강님이 용감무쌍하기도 하지만 때를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일을 해치워버리니 염라왕도 벌벌 떨며 꼼짝없이 잡히고 만다. 염라왕이 처음에 큰소리치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강님에게 애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날 이승 차사인 인간이 저승을 관장하는 염라왕을 잡아 꼼짝 못하게 했다는 사실은, 단지 일회에 그치기는 했지만 죽음(염라왕)도 제압할 수 있는 행위로 유추된다. 강님의 용맹으로 염라왕이 벌벌 떨었다는 표현을 통해 강님과 함께 가는 저승길은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 강님이 망자의 저승길을 인도해주는 존재로 추정되는 것이다.

무가의 내용에서는 강님이 바리공주처럼 망자를 저승 극락으로 천도해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왕밋이>의 질침에서 심방은 강

16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17~218.

님차사의 복색을 하고 적베지를 등에 꿰고 망자를 인도하는 모습을 행위로 나타낸다. 강님이 신으로 좌정한 내력을 풀어내고 또 강님이 망자를 직접 저승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보임으로써 강님의 위력에 기대어 염라왕의 심판은 가볍게 제압하고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국으로 가고자 하는 염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사의 셋째 유형은 역시 염라왕의 차사이면서 실무자로서의 차사인테 인정¹⁶⁸⁾에 약한 인간적 면모의 차사이다. 이들 차사들은 염라왕의 명으로 정명이다한 인간을 잡으러 오는 존재들인데, 모두 배고프고 지친 존재로 형상화된다.

저승 염내왕에 몸받은 삼쳐서 인간을 내려산 주년국땅을 내려오단 보니, 천양 처서(天皇差使) 말을 하되,

“야, 난디웃인 시장끼가 혼이 엇구나.”

남은 두 처서(差使)가,

“우리도 역시 그렇습네다.”

인왕처서(人皇差使) 말을 하되,

“어찌 인무초(人無處)하고 무지공지(無主空地)혼 이 노상(路上)에 상촉권상내(香燭勸上臭)가 나고 초미연당상 내가 납네다.”…중략…

삼쳐서가 가고보니, 쪽지평풍(屏風)에 비즈낭줍상 싱거놓고 묶은 음식을 단정하게 출려노안 시니, 삼쳐서가 베고픈 지망에 청감주(淸甘酒) 계랴안주(鷄卵按酒) 하나씩 들렀더니 시장끼를 멀린 듯허연,

“야, 이거 산이라도 넘곡 물이라도 넘어지겠수다.”¹⁶⁹⁾

사만이의 정명(定命)이 33세라 정명을 연장하기 위해 백년해골이 알려준 방도대로 차사가 오는 길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사가 이를 먹도록 한다. 차사들은 지치고 무척 배가 고프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먹고 난 후 우연히 그 음식을 차린 이가 사만이임을 알게 되어 ‘남의 음식을 공으로 먹으면 목걸리는 법’

168) 신에게 바치는 제물.

16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34~235.

이라 하여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같은 시간에 사만의 집에서는 대시왕연맞이를 하고 있고 염라왕과 동자판관이 굿판에 내려온 틈을 타 저승 차사들이 저승장부의 사만이 정명을 변경하게 된다. 결국 사만이는 정명을 연장하게 되고 죽을 액을 막게 된다.

차사를 대접하여 원하는 바를 이룬 경우는 강님이 저승을 갈 때 저승 길나장이 조는 틈에 그 앞에 떡을 놓아두었다가 잠을 깬 길나장이 배고픈 김에 떡을 먹도록 유도한 다음 저승길을 알아내는 것에도 나타난다.¹⁷⁰⁾

또 굿을 할 때도 사자(使者)를 대접할 상을 잘 차려놓고 옛날 조상들 데리고 가던 차사들은 인정(人情) 없는 차사지만 오늘 온 차사들은 인정(人情) 많은 차사라고 치사(致詞)를 하고 망자를 저승까지 잘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한다.¹⁷¹⁾

저승 차사들이 인정을 받아먹고 저승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비리는 아니다. 인정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정되고 본의 아니게 인정을 먹게 된다. 그리고 그 인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 차사들은 모두 배고프고 지친 존재로 등장하는데, 하급 관리에 박봉이라는 실제 군노 사령들의 처지도 반영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들이 배고프고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치는 인정을 급하게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는 죽음을 피하는 방도의 복선인 것이다. 죽음을 피할 방도를 알려줬던 이인들도 이러한 차사들의 궁핍한 처지와 두터운 신의를 알고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죽음이나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차사가 인정에 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인간 운명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운명도 유동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간의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써 신에게 제물을 차리고 인정을 걸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식이 저승사자에게도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승 공간도 결국 인간의 소망을 투영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170) 현용준, 같은 책, p.215.

171) 현용준, 같은 책, p.187.

(3) 망자 : 새남과 통과 의례

저승의 주된 구성원은 바로 죽은 인간일 것이다. 인간은 죽어서 혼정이 저승으로 간다고 인식되는데, 선한 사령은 조상신이 되고, 악한 사령은 잡귀가 되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인간의 사령(死靈)을 영혼, 영신, 혼백, 영개(영가), 반짐, 척구 등으로 부르는데, 사후 만 2년이 지난 사령은 ‘영혼’ 또는 ‘영신’이라고 하고 만 2년 미만인 경우는 ‘혼백’ 또는 ‘늘혼(生魂)’이라 하여 구별한다.¹⁷²⁾ 굿의 제차에 ‘영개울림’이란 것이 있는데 죽은 영혼이 심방의 청신에 의해 제의 장소에 와서 남은 가족에게 생전에 못다한 말을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사령을 영개(영가)라고도 하는데 이는 불교식 명칭이다. 이외에도 저승에도 못가고 이승에도 못 붙어, 해매는 사령을 통틀어 잡귀라 하는데, 원한이 있는 잡귀는 ‘척구(척귀)’라 하고 특히 짝사랑의 원한이 있는 경우는 ‘반짐’이라 한다. 전란 때에 비명에 죽은 사령은 군병이라 하는데 흔히 삼천군병¹⁷³⁾이라고 표현한다. 이들 잡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달래는 대상이면서 때로는 말총으로 꼬아 만든 참바에 물을 적서 쫓아내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달랭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백정들의 혼귀인 실명질과 무조령(巫祖靈)들인 공시(恭神)가 있다.¹⁷⁴⁾

망자들은 이승에서의 행적에 따라 저승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며, 또 조상신이 되어 자손을 보살피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잡귀가 되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지가 달라진다. 망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명을 다하거나 선업을 쌓아 저승에서 영생하면서 조상신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억울하게 죽어 원한이 있는 망자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잡신이 되어

172)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149.

173) 이제수 난리, 임진왜란 시절, 강우백 시절, 김통정 시절, 방성철 시절, 대동아전쟁 시절, 사삼사건 때, 육이오 동란 때 등 전쟁과 난리 통에 죽은 군병을 통칭한다. 어진 군병은 밥, 떡, 술, 고기를 주고 악하고 독한 군병은 사문결박하여 천지옥에 하옥시킨다. 인정을 많이 받고 걸어 달래는 대상이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50.

174) 백정들의 혼귀인 실명질이나 무조령들인 공시는 그 직업이 천대를 받음으로써 한이 많은 혼령들이므로 달래고 사귀는 대상으로 인식한 듯 하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셋째 유형은 살아있을 때 큰 공적이 있어 바로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이다.¹⁷⁵⁾

먼저 정명을 다 했거나 선업을 쌓은 망자는 행기뭇을 지나 저승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시왕의 심판도 비교적 쉽게 통과해서 극락이나 저승 마을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새나 나비로 환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상신이 되어 곁에 모셔지기도 하고 자손을 도울 수도 있다.

둘째, 억울하게 죽어 원한이 있는 망자는 일단 행기뭇을 통과하지 못하며, 저승차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행기뭇 주변을 울며 헤맨다.¹⁷⁶⁾ 이들은 잡귀가 되어 이승의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곁에서 모셔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험박당하고 쫓기는 존재들이다.¹⁷⁷⁾ 이런 망자에게 곁을 해주고 저승길을 잘 닦아주면 저승으로 '새낭가게' 된다. 새남이 된 존재는 이후 조상신이 되어 가족·친지들의 저승길 인도를 해주는 존재가 된다.

어마님아, 아바님아, 어머님 아바님 돌아가곡 할마님 돌아강 공을 못 가파 두곡 내 몬저 저승 가는 게 천만 죄(罪)만 ㄴ뎡네다. 날 ㄴ뎡 아기 생각을 허영 무스거 흠네까. 오래 오래 살당 어머님 아바님 저승 읍서. 내 초근문에 샅당 상봉허영 만 단정웨호오리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 불요즈식 우렁 귀양풀이 ㄴ지 허여 주영 이 즈식 설운 가슴 풀어 쥔 고맙수다. 어머님 아바님, 저승 오랑 상봉호민 내 공 가파드리리다.¹⁷⁸⁾

부모보다 앞서 죽은 불효 자식이라 원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가 귀양풀이 곳¹⁷⁹⁾도 해주고 길을 잘 닦아주어 고맙다고 하고 부모가 저승에 올 때 만나 만

175) 「양이목사본」, 「운대장본」, 「이만경본」, 「선율리안관관 제주판관본」 등이 있으며, 본고의 내용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내용은 따로 서술하지 않겠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76) '저승 초근문 가기 전의 행기뭇 당호거든 행기뭇 바위에 보민, 인간에서 지 땡에 못가 놈의 땡에 가던 사람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오랑 비새 ㄴ쥔 울엄실 겨우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16.

177) 곁의 끝부분에 신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제의가 <도진>인데, 곁에 모셔진 신들은 모두 '돌아삼서' 혹은 '점주흠서'라고 하며 정중히 보내는데 잡신과 부정은 쿵을 세계 뿌려 쫓아낸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82.

178)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78.

단정회를 풀고 부모가 저승에 오면 초군문에 섰다가 (저승길을 안내하여) 공을 갚겠다는 내용이다.

무(巫)에서는 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특히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므로 십오세 이전에 죽은 경우도 억울한 죽음으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는 제12 생불대왕이 관장하는 시왕의 서천꽃밭에서 꽃밭에 물주는 일을 하게 된다. 다른 지옥에 비해 육체적 고통이 크지는 않다. 특히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경우는 자식을 점지해주기도 하므로 이승에서의 결핍을 위로 받기도 한다.

억울하게 죽은 존재가 인간에게 해꼬지를 하지 못하게 조상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다. 조상본풀이 중에 죽은 처녀의 원혼을 조상으로 모시는 경우가 해당한다.¹⁸⁰⁾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경우는 억울하게 죽어 해원이 될 때까지 저승을 가지 못하고 환생을 반복하기도 한다. 정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던 버무왕 아들 삼형제는 삼년 기약의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과양땅을 조심하라는 금기를 어기고 과양생이 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과양생이 처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색꽃→구슬→과양생이의 세 아들'로 환생을 반복하고 결국 염라왕이 버무왕 아들 삼형제를 환생시키고 원수를 갚아준다.

망자는 죽음과 동시에 저승차사에게 잡혀 죄인처럼 끌려가며 시왕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시왕의 지옥에 빠지지 말고 심판을 잘 받고 통과해서 저승의 좋은 국으로 살아나게 하기를 기원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극락이나 저승 좋은 국의 존재가 되면 조상신이 되어 자손들의 안녕과 복락을 도와주는 선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승길 닦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곳에서 저승길을 닦는다는 것은 저승길의 하이패스 차로와도 같은 구실을 한다. 그리고 이 길 닦기를 통해 저승에서 새남(새로

179) 장례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사자공양제(死者供養祭)다. 시왕과 차사 등 여러 신을 청하여 기원하고, 망자가 심방의 입을 빌어 심정을 말하는 '영개울림'을 한 후, 차사에게 망자를 저승까지 고이 데려가 주도록 비는 것이 중심행사가 되어 있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239.

180) 「광청아기본」이나 「양씨아미본」은 죽은 처녀가 조상신으로 섬겨지는 조상신본풀이이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704, p.717.

태어남, 영생하게 함)하기를 비는 의례 과정은 '방광침'인데, 방광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새낭갑서(살려내어 가십시오.)'이다. 원한 없이 정명을 다 누리고 죽었어도 길을 잘 닦으면 더욱 편히 저승에 가서 안주한다고 생각한다. 망자들이 죽어서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 또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망자를 새낭하게 하는 것'인 것을 통해 저승 공간을 새낭의 공간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본풀이 속에 나오는 망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죽음과 재생·환생을 통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죽음의 상황은 나오지만 죽어서 저승으로 갔다는 표현이나 인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는 죽음 자체를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통과의례적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어서 시왕의 심판을 통과의례로 거쳐 저승에서 새낭하고 신은 고난과 죽음으로써 통과의례를 거치고 신으로 좌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저승 혹은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본풀이에 나타나는 망자의 죽음과 환생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3> 본풀이 속 죽음과 환생 양상

본풀이	망자	죽음	환생/재생 ¹⁸¹⁾	환생 이후
천지왕 본풀이	장자의 딸 장자아들	·평소의 악행으로 천지왕이 징치함	·팔벌레로 환생 ·똥소로기(소리개)로 환생	
초공 본풀이	자지멧왕 아기씨	·삼천선비가 물멧지 전대로 목을 걸어 삼천천제석궁에 가둠(죽임)	·삼형제가 무당이 되어 14 일동안 무악기 올리고 굿 하여 살려냄	·천하대궐 금법당 의 일천기덕과 삼 만제가 지키는 신 이 됨
이공 본풀이	원강아미	·할락궁이가 달아나자 장자가 찢어 죽임	·아들 할락궁이가 도환생꽃 으로 살려냄	·서천꽃밭 물주는 아이 거느리는 저 승어명이 됨*
삼공 본풀이	은장아기 늦장아기	·부모 말을 반대로 전달, 가 른장아기가 징치함	·청지네로 환생 ·버섯으로 환생	.
강남 차사 본풀이	버무왕 아들형제	·재물을 탐낸 과양생이 처가 술먹이고 귀에 삼 년 묵은 참기름 부어 죽임	·꽃→구슬→과양생이 아들→버무왕 아들 ·염라왕이 금부채로 살림	·부모국에 돌아감
	과양생이 부부	·악행이 드러나 염라왕이 아 홉총각을 시켜 소 여덟마리 로 사지를 묶어 찢어죽임	·모기 각다귀가 됨	·남의 피 빨아먹 는 존재가 됨
세경 본풀이	정수남	·자청비를 욕보이려 해서 자 청비가 죽임	·부영이로 환생 후 죽음 ·자청비가 도환생꽃으로 살 려냄	·하세경이 되어 축산을 관장하는 신이 됨
	문도령	·외눈백이 할망이 준 독주를 마시고 죽음	·자청비가 도환생꽃으로 살 려냄	·상세경이 됨
	서수왕 애기	·문도령과의 혼사가 무산되 자, 혼인에장편지를 태워서 먹고 스스로 죽음	·새가 됨(두통새, 흘깃새, 악심새, 해말림새)	·부부간 정을 방 해하는 존재가 됨
문전 본풀이	여산부인	·노일저대귀일이 물에 빠트리 죽임	·아들 녹디생인이 도환생꽃 과 금부채로 살려냄	·부엌 지키는 삼 덕조왕이 됨
	남선비	·아들형제가 다습어명의 죄상 을 밝혀내자 도망가다 먼 울 레의 정살에 목 걸려 죽음	.	·울레 주목 정살 지신이 됨
	노일제데 귀일 딸	·전처 자식을 죽이려다 화장 실 디딜팡에 목 메어 죽음 ·몸을 해체, 가루로 만들	·해조, 술치, 쇠굽벗, 돌굽 벗, 굽벙이, 대전복, 소전 복, 각다귀, 모기로 환생, 통시의 일부 기구가 됨	·측간(뒷간) 부인 이 됨
지장 본풀이	지장애기	·죽은 가족의 새남굿을 하고 죽음	·새가 됨(두통새, 흘그새, 악심새, 해말림새, 이열새, 조작새)	·다른 이에게 풍 문 조화를 주는 존재가 됨
	지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음	·지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죽음	.	.
세민황대 본풀이	세민황제	·포악한 짓하다 정명이 다 되 어 죽음	·죄가 너무 많아, 선행하도 록 하기 위해 재생됨	·깨달음을 얻고 어진 임금이 됨

2. 저승 형상화의 특징

1) 육지 무가와 비교

제주 무가와 육지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은 공간 양상이나 기능이 대체로 유사한 편이나 구체적인 형상화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육지 무가나 제주 무가 모두 저승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실계의 저 건너 세상이라고 관념하며 인간이 죽으면 가는 세상으로 인식한다. 저승이 현실계의 결핍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생명의 원천 공간이라고로 인식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 공간은 현실계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고 수평적 확장을 통해 지상의 끝 어딘가에 있는 곳으로 상정하고, 시간과 공간 특성이 현실계와 다르다고 보는 점, 또한 이곳의 사회상은 인정이 통하기도 하고, 때로 과업 성취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현실 사회를 닮아 있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그러나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는 구체적인 형상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저승의 공간 및 기능적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간적 측면에서, 저승이 사후세계이며 어떤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점은 같지만 그 범주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육지 무가에서는 신들의 세계는 신성한 어떤 곳으로 관념하며 망자들만의 세계인 저승은 저 세상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제주 무가에서는 이승이 아닌 저 세상, 즉 신들의 세상 전체도 저승이라고 표현하고¹⁸²⁾, 특히 망자들만이 가는 곳도 저승이라고 부른

181) 재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환생은 죽었다가 다른 존재로 살아나거나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신으로 좌정한 인물들의 경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는 재생이지만, 재생 이후 그들의 존재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므로 내용적으로는 환생이라고 할 수 있다.

생불할망의 경우 번성꽃과 환생꽃으로 인간 생불을 점지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때의 환생은 인간으로 태어남을 뜻한다. 혼용을 하기도 하지만 아기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환생꽃, 죽은 이를 되살리는 꽃은 도환생꽃으로 구별하여 쓰기도 한다.

182) 특히 <천지왕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서 신들의 세계를 저승으로 인식하고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IV장에서 하겠다.

다. 제주 무가에서 저승의 의미 범주가 더 포괄적이며, 그 범주 인식이 무가 속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된다.

망자들만의 세계를 저승이라 부르고, 이 저승은 다시 극락 개념의 '저승'과 이와 상반되는 '지옥'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중층적 범주 인식은 육지와 제주 무가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망자들의 세계를 뜻하는 '저승'이 육지 무가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죄인들이 나도 저승보내주 나도 극락보내주 야단났고도 변사나서

...중략...

중앙을 바라보니 정토문이로구려 <공주 노재용본>183)

밝은 길은 시왕길이요 넓고도 어둔 길은 칼산지옥 좁고도 밝은 길은 찾아가면

...중략...

시왕세계 삼삼구품 연화대 시연으로 왕생극락하소서. <서울 새우젓집본>184)

저승과 극락과 정토, 시왕과 삼삼구품 연화대는 모두 극락왕생하는 세계로 쓰인다. 그러나 무가 곳곳에 시왕들이 심판하는 지옥을 함께 거론함으로써, 시왕은 동시에 지옥의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육지 무가에서 저승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심지어는 '시왕'을 고리로 하여 '극락=저승=시왕=지옥'이라는 모순점을 보인다.

이에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저승 내 공간 구획 개념이 비교적 분명하다. 망자의 죽음 직후, 대문 밖은 바로 넓은 의미의 저승 공간으로 전환되고, 먼 노정을 거쳐 시왕의 지옥을 거치면서 심판을 받고 저승 마을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공간 구획 개념이 분명하면서 나름의 체계로 공간이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다.

183)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pp.235~236.

184) 홍태한, 같은 책, p. 237.

저승으로 가는 노정이, 육지 무가에서는 수평적 이동만 보이는 것에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동시에 나타난다. 육지에서는 지상의 먼 곳을 설정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가능하나, 제주에는 섬이기 때문에 도보를 통한 수평적 이동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평적 이동의 어느 지점에서 수직적 이동을 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승을 가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적으로 강을 건너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역시 제주도가 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를 타고 건널만한 큰 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못물에 빠진다는가, 혹은 직접 물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¹⁸⁵⁾

<바리공주>에서 ‘육로 삼천리, 험로 삼천리, 서천서역국에서 다시 삼천리’를 간다고 하면서 공간을 수치화하여 저승이 ‘먼 곳’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배경의 묘사보다는 과업 수행 중심으로 저승의 노정이 형상화된다. 이에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거칠고 험한 산길을 묘사하고 수많은 갈림길을 설정하여 저승으로 가는 길이 ‘험남함’을 강조한다. 특히 저승길을 갈 때 올 때 스물여덟 징검길로 표현하며 강님이 저승을 가기 위해 들어가는 길은 일흔여덟 갈림길 중에서도 ‘작고도 작은 개미 왼쪽 뿔 한 쪽만한 길’이라고 하여 갈림길이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그 길에 대한 묘사도 매우 독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과 설정 또한 육지와 섬이라는 공간의 특성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승이 생명의 원천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 기능 중 하나일 것이다. 저승이 생명의 원천 공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현실계의 인간들이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의 생명체들이 원래 저승에 존재했으며,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다’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보편적 사고방식 외에도 죽은 이를 살리는 힘이 저승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지 무가에서는 서천서역국의 약수와 꽃으로 제주 무가에서는 서천꽃밭의 꽃으로 죽은 이를 재생시킨다. 그러나 재생의 중핵적인 요소가 육지 무가에

185) <강님차사본풀이>에서는 행기못에 빠져 수직상방으로 이동하고, <이공본풀이>에서는 할락궁이가 세 개의 물을 직접 건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는 약수이고 제주 무가에서는 꽃이라는 차이가 있다.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를 살리는 내용에서는 약수와 꽃이 동일한 방법과 동등한 비중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리공주의 노정이 기본적으로 구약(救藥) 여행이며, 그 약은 약수물이 핵심 요소이고 꽃은 추가로 얻은 점을 감안한다면 꽃은 부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 육지 무가에서 꽃은 ‘살리는 꽃’의 존재만 있는 것에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태어나게 하는 꽃’과 ‘죽은 이를 살리는 꽃’ 그리고 ‘죽어 마땅한 이를 죽이는 꽃’ 등 여러 기능의 꽃이 있으며, 각각의 꽃들은 다시 ‘뽕오를 꽃’, ‘살오를 꽃’, ‘피흐를 꽃’, ‘웃음웃을 꽃’ 등 세부적인 기능을 가진 다양한 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꽃밭과 꽃 화소가 일반본풀이 전반을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육지 무가는 약수의 무가이고 제주 무가는 꽃의 무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승은 망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곳이며 망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그러나 모든 망자가 저승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는 망자를 인도할 존재가 필요하다.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은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육지 무가에서는 저승사자들이 망자를 잡아서 저승의 일정한 곳까지 데려오고, 이후 망자들은 이승에서 선행을 한 경우 혹은 가족들이 ‘선행자, 진부정, 사재삼성’ 등의 굿을 해준 경우 극락 개념의 저승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승에서의 악업으로 인해 저승을 가지 못할 경우, 바리공주와 이들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게 된다. 바리공주가 저승과 지옥을 거치며, 서천서역국의 약려수를 구해 죽은 부모를 살린 공덕으로 이러한 신직을 받은 것이다.

반면 제주 무가에서는 이러한 일을 모두 강림차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귀양풀이¹⁸⁶⁾ 때는 차사에게 망자를 고이 데리고 열두 문을 통과시켜 들어가 주도록 비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86) 귀양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지낸 날 밤에 심방을 청해서 하는 굿으로, ‘고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잘 인도해 주십사’라고 차사에게 부탁드리며 비는 제의 한 가지를 말한다. 진성기, 같은 책, p.730.

인간혼신 들고 가던 어진 체스 관장님아, 성은 이씨 으든일곱 들고 가던 체스
 님 느려상 상 받음서. 궤(罪)랑 잇건(있건) 사악호곡(사하고) 벌(罰)랑 잇건 풀려줍
 서. 신의 제즈(심방) 나사명 들어앉아 어진 체스관장님 명천 ㄱ뜯 하늘님전 잘잘
 이 비옵네다.···중략··· 설운 영혼 가시는 질 궤영(곶계) 인도허여 주옵소서.···중
 략··· 어진 영혼 영계님 들고 가던 체스관장님네 모두 상을 받았 저승데레 좋은
 국으로 잘잘이 인도옵서. 풀쌍흔 성은 이씨 으든일곱님 아뭇 궤도 엇습네다. 저승
 맹왕(冥王) 궤영 들어갑서. 상청들어 상마을사 쉬우리까. 중청들어 중마을, 하청들
 어 하마을에 도오릅서.¹⁸⁷⁾

망자를 저승의 좋은 국으로 인도할 이가 차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사 상을 차리고 망자를 곶계 데리고 가서 저승의 좋은 국으로 보내주기를 기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을 진행할 때 심방은 차사 복장으로 갖춰 입고 등에
 적배지를 붙이고 망자를 데리고 저승 문을 열어 들어가는 행위를 보여준다.¹⁸⁸⁾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두 강림차사이지만, 실무형의 차사 강림과 신직을 부여
 받은 영웅적 면모의 강림은 그 성격과 층위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자
 를 잡아오고, 또 극락 개념의 저승에까지 인도하는 일을 모두 강림차사가 한다.
 제주 무가에서는 차사를 매우 중요한 신직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은 기본
 적인 공간 인식과 공간 양상에서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간의 세부 형상
 화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육지와 제주에서 무(巫)의 위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제주 무가의 저승에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사회 현
 실이 더욱 밀착되어 육지 무가에 비해 훨씬 생생한 공간 배경을 형성하였기 때
 문일 것이다.

18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75.

188) 제주 무(巫)에서 차사의 중요성은 차사의 내력을 풀어내는 <차사본풀이>의 존재로서도 알 수 있으
 며, 또한 이 본풀이의 등장인물과 배경 등을 감안하면, 본풀이의 형성이 제주 무(巫)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2) 제주 무가 속 저승의 형성 배경

무(巫)의 사유 방식이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제주 무가에서 공간의 양상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은 매우 현실 밀착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제주의 자연지리와 역사·문화 그리고 제주인의 사유방식이 저승의 양상에 잘 녹아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가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특징을 위의 세 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자연지리의 반영

저승은 이승의 세상이 아니다. 또한 매우 먼 곳이라는 것이 보편적 관념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이다. 걸어서 가는 먼 길을 형상화하기에 한계가 생긴다. 보편적 공간 관념을 실현하면서도 섬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개연성이 있는 공간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육지 무가와와는 다른 변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 저승이 있는 곳을 한라산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저승 가는 길이 '험한 곳'임을 강조하여 '먼 곳'의 조건을 희석한 것으로 보인다.

저승의 위치가 한라산으로 추측되는 근거는 <강림차사본풀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의 내용에 의하면 강림의 큰부인집은 제주성 남문 안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제주 시내 남문로 근처라고 한다. 또 강림이 저승 옷을 차려입고 저승으로 출발한 지점이 제주성 남문 바깥 동산인데 이곳은 KAL호텔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강림이 남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나오는 데 이곳은 바로 한라산 방향이다.¹⁸⁹⁾ 그래서 강림이 가는 길이 '울통불통한 길, 산딸기나무 가시덩굴에 풍설이 덮이고 돌무더기 울통불통한 길을 헤치고' 가는 것으

189)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p.83~84.

로 표현된다. 실제의 지리를 서사에 반영함으로 해서 길의 묘사가 실감나고 묘사가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승길이 험한 한라산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갈림길의 설정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속으로 저승의 위치를 상징하여도 수평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저승을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큰 강을 건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널 만한 큰 강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물의 존재를 나타내면서도 수평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 무가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물을 통해 수직으로 방향을 바꾸어 저승의 위치를 수직 상방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육지 무가에서는 저승이 지상의 수평적 확장을 통해 머나 먼 곳으로 상징된 것에 반해, 제주 무가에서는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 함께 설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강님차사본풀이>에서 물에 빠지는 것으로 저승을 갔다면, <이공본풀이>에서는 ‘발목까지 차는 물과 무릎까지 차는 물 그리고 목까지 차는 물’ 즉 세 개의 물을 건너는 것으로 큰 강을 대신하고 있다. 이 역시 깊고 넓은 강이 없는 제주의 지형을 반영한 저승의 양상이라 하겠다.

또한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나타난 저승 양상의 하나는 ‘서천서역국’이라는 공간의 희석 혹은 제거일 것이다.

물론 제주 무가에서도 서천(서역국)의 존재는 명칭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생불할망본풀이>에서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서천서역국 모래밭에서 생불할망이 되기 위해 꽃 피우기 내기를 하기도 하며, 여러 본풀이를 통해 꽃밭이 어디에 있든 항상 ‘서천꽃밭’이라고 명명되는 것 등에서 서천서역국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육지 무가처럼 도보를 통한 지상의 끝에 있는 공간을 개연성 있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 무가에서 꽃밭은 그 이름은 ‘서천꽃밭’이지만 꽃밭을 다양한 곳, 즉 저승에도, 천상에도, 석해산에도, 마을에도 꽃밭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여¹⁹⁰⁾, 꽃의 기능은 부각시

190) 꽃밭이 있는 곳이 <해심곡>에서는 제12대왕이 관장하는 공간이 저승꽃밭이며, <이공본풀이>에서는

키고 '서천서역'의 공간성과 방향성은 회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천서역국의 공간적 기능과 의미가 꽃밭이라는 공간으로 이전·응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저층의 지리적 보편성, 즉 수평적으로 확장된 먼 곳의 의미는 변모되었으나 대신 제주의 지형을 무가에 수용함으로써 공간의 표현이 생동감과 개연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역사·문화의 반영

제주도는 탐라(耽羅), 섭라(涉羅), 탐부라(耽浮羅), 탁라(毛羅)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독립국가로서 12세기 초까지 그 명목을 이어왔다. 주변 국가에 조공 외교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105년에는 탁라(毛羅)의 국호가 폐지되고 탐라군이 되어 고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후 1275년에는 몽고의 직속 지배를 받으면서 탐라국으로 복호하여 약 1세기 동안 원(元)의 지배를 받게 된다. 원의 지배로 인해 제주의 언어·습속 등이 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한다.

불교도 원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이후 공민왕 23년(1374년)에 탐라는 고려의 중앙집권 체제 하에 다시 편입된다. 그러나 1392년 조선의 건국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유교가 지배이념화 되면서, 제주의 남성 사회는 유교식 제례를, 여성 사회는 무속 신앙을 계승하여 종교적으로 이중 구조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¹⁹¹⁾

탐라가 중세국가 성립 과정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은 데 대한 반발과 보상의 기능으로 인해, 중세 국가 이전의 역사·문화·종교 형태가 현재에도 무가 속에 유지·전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¹⁹²⁾,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영향을 심대하게 받기 전에 유교 국가인 조선으로 지배체제가 바뀔

저승,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인간세상의 석해산, <세경본풀이>에서는 인간 세상의 어느 마을, <문전본풀이>에서는 객새를 타고 갈 수 있는 천상으로 되어 있다.

191)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p.26~29 참조.

19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p.39 참조.

해서 실질적인 불교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영향은 받았으되, 육지 무가처럼 뿌리 깊이 침투되지 않았음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망자가 천도되는 공간을 육지 무가에서는 ‘연화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한다. 또 <바리공주>를 구송하면서 서사 중간중간에 ‘왕생천도 극락세계 후세발원 남자되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시는 날이로 성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무당이 굿을 하면서 <바리공주>를 구송하는 목적과 용어들이 불교식 천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주 무가에서는 불교의 사후심판 사상의 영향을 받아 「해심곡」에서 시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오며, 시왕의 체계와 심판 내용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불교적 영향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시왕의 심판 내용은 불교적 혹은 도교적 내용을 비교적 온전히 수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심판 자체가 목적도 아니며, 지옥의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왕의 지옥과 형벌 내용을 순서대로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은 저승 마을을 가기 위한 죄 씻음의 의미, 즉 통과 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불교적 시왕이 10시왕이라면 제주 무가 「해심곡」에는 15시왕이 등장한다. 특히 제12대왕인 생불대왕은 기존의 시왕사상에서 볼 수 없는 왕이다. 또한 생불대왕은 어린 나이에 죽은 망자들이 가는 곳이면서 이승에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어른들이 아이를 돌보며 아이도 잉태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오히려 보상과 위무의 공간 성격을 지닌다. 또한 생불대왕은 무가에 등장하는 여러 신, 생불할망, 저승할망, 저승어명, 꽃감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신으로, 제주도식으로 새롭게 창조된 시왕이다.

그리고 시왕의 심판을 거쳐 가게 되는 곳은 영생의 공간인 저승 마을로, 육지 무가에서 극락, 서방정토, 연화대 등으로 표현하는 곳인데, 불교식 이름과는 관련이 적다. 오히려 유교식 사회·제도의 명칭이다. 하지만 이는 저승 마을이 후대에 더 분화되면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무(巫)

본연의 소박한 사후 공간이며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승에서는 영생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나오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은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새나 나비 등 천상의 자유로운 존재로 환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생의 업보의 결과로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생으로 태어나는 윤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단선적, 일회적 삶의 모습을 보인다.

제주의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이 무가에 수용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큰곳과 일반본풀이가 육지 무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그 서사들이 제주식으로 변개한 것이 많고 특히 <강님차사본풀이>와 <칠성본풀이>의 경우는 육지 무가와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강님차사본풀이>는 육지 무가에서 차사 이름이 거론되고 일부 설화에서 기본 서사가 파편적으로 전하는 데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장편 무가로 그 내용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강님차사본풀이>에 나오는 인물 중 김치(金緻)는 실제 제주에서 관원을 지낸 인물이다. 김치는 김찬흠의 『제주사인명사전』에 따르면 1577년(선조 10)에 서부터 1625년(인조 3)까지 산 사람으로서 1609년(광해군 1) 3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제주판관을 지낸 사람이다. 그 재임 1년 6개월 사이에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 정리, 관리제도를 확립하는 등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시문에 뛰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에는 김치 판관이 강님을 시켜 염라왕을 잡아다 한 여인의 소원을 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¹⁹³⁾ 무가의 내용이 이러한 기록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기록에 의하여 <강님차사본풀이>가 형성되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제주의 역사와 인물이 본풀이에 구현되었다는 것은 이 무가가 제주에서 연원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본풀이의 배경이 되는 광양땅은 제주시 이도동 일대를 말하며, 제주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아, 현용준은 차사본풀이가 17세기 초 이후 제주에서 창작된 신화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19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82.

했다.¹⁹⁴⁾

<칠성본풀이>도 육지 무가의 것과는 서사 내용, 대상 신의 존재 양상과 신의 기능 등이 전혀 다른 무가이다. 이 무가 속에도 제주의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

칠성신이 처음 신으로 좌정한 송대장 집은 송대정(宋大靜)을 말하는데 칠성골에 살던 송두옥(宋斗玉)이라는 실재 인물이다. 김찬흡의 『20세기 인명사전』에 보면 1850년(철종 1)부터 1922년까지 산 분으로 조선조 말기의 무신이다. 고종 때 제주판관 및 정의와 대정의 군수를 역임했는데, 제주성 안에서 태어났다. 형 송지옥과 함께 해산물상으로 18척의 대선단으로 교역을 한 당대의 부호이다. 그가 대정군수를 지냈다 하여 ‘송대정’으로 불렸다 한다.¹⁹⁵⁾

제주의 역사적 흥망사와 문화 유입의 결과와 실존 인물 등이 무가 속에 수용되어 무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 무가는 고대에 육지의 큰곳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주의 역사와 사회·자연을 무가에 녹여 내고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¹⁹⁶⁾

(3) 사유 방식의 반영

제주 무(巫)의 향유자들은 무가를 통해 신을 두려워하고 받들어 모시면서도, 필요하다면 신을 소환할 수도 있다고 표현한다. <강림차사본풀이>에서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나는데, 과양생이치는 자신들의 아들 삼형제가 한낱한시에 눈앞

194) 현용준, 같은 책, p.83.

19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150.

196) 「초공본풀이」에서도 자지맹왕아기씨가 부모에게 쫓겨 황금산 도단땅으로 갈 때, 지나간 길이 실제의 제주 지명과 동일한 곳이 많다. ‘지금 대정 가면 긴지오름이 있습니다. 긴지오름 지나고 대정고을 들어서니 조심다리가 있어’.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38.

여러 본풀이에서 기자 치성을 드리는 동서남북개남 절은 관음절(관음사)을 말하며, 절 앞에 상투적으로 방위를 붙인 것이다. 관음사는 제주시 아라동에 현재도 있는 절이라고 한다. 현용준, 『濟州島 巫俗 研究』, p.81.

「칠성본풀이」에서 뱀들이 제주의 함덕에 도착하고, 대정 고을에 들어가고 제주 성안으로 갔다는 것과 좌정지 중의 추수뭇과 광청뭇은 제주시 삼도동과 삼도리에 있던 뭇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에 제주의 지리가 잘 나타나 있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50~357.

또한 여러 등장인물들의 독특한 이름에서도 제주의 특색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에서 죽어버리자 그 원인 해명을 김치원에게 요구한다. 죽음에 대한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저승을 관장하는 염라왕이므로, 결국 강님을 이승차사로 보내어 염라왕을 잡으려 보낸다. 결과적으로는 염라왕의 권능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만, 김치원은 필요하다면 염라왕을 소환한다는 사고방식을 보인다.

또한 이승차사로 저승을 들어간 강님도 이승 김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승차사로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맹하게 염라왕을 잡는다. 오히려 저승 염라왕이 강님의 용맹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설정은 일부 해학적 요소가 가미되기도 했지만, 인간을 문제의 중심에 두고, 인간이 필요하다면 신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표면적으로는 신의 권능이 크고 인간은 신 앞에 나약한 것 같지만 신의 큰 권능도 결국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한계 때문에 무가 속에서 저승을 갈 때 큰 강물 대신에 행기못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행기못의 설정은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제주다운 공간 설정으로 매우 독특한 발상의 결과이다.

원래 행기못은 제주도의 <고종달이 전설>에 나오는 물이다. 고종달이는 제주도의 물 맥을 끊어 제주에 인재가 나지 못하도록 중국에서 밀명을 받고 온 사람인데, 화북리의 수신(水神)이 고종달이가 나타날 것을 알고 밭 가는 농부에게 부탁해서 냇물을 행기그릇(놋그릇)에 담아 소의 길마¹⁹⁷⁾ 밑에 놓아 둘 것을 부탁하여, 고종달이가 화북리 물 맥을 끊지 못하게 한다. 고종달이는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도 화북리에는 샘물이 솟는다고 한다.¹⁹⁸⁾

작은 행기 그릇 속의 물에 화북리 물의 전체 정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행기 그릇에 수맥을 숨겼기 때문에 지금도 샘물이 솟게 했다는 행기물은 가장 제주도다운 물 이름이면서, 이 물을 통과하면 시·공간의 층위는 물론 존재의 변환도

197)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

198)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7, pp.45~46.

가능하게 하는 저승의 경계 공간으로 차용되는 것에 손색이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상도 명칭도 매우 제주도다운 행기못의 등장은 제주 무가가 육지의 것을 수용했으면서도 제주도의 특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왕의 지옥들을 통해서도 제주 무(巫) 향유자들의 독특한 사유 방식, 저승은 영생 공간이며, 이를 가기 위해 거치는 지옥조차도 처벌보다는 보상과 위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시왕들이 망자의 이승에서의 행적에 따라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제12 생불대왕은 이승에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존재들에게 아이를 돌보게 하고, 비록 늙은이라도 아이를 점지해서 이승에서의 결핍을 해소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지옥에서의 보상’이라는 역설적 설정이 가능한 것은 제주 무(巫)에서 저승이 단순히 죽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 영생하는 곳이라고 관념하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11 지장대왕도 역시 보상과 위무의 직능을 가진 시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장대왕의 경우 그 직능을 표현한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열하나 지장대왕, 이 대왕을 들어가니 지장의 몸으로써, (이후 생불대왕에 대한 사설)¹⁹⁹⁾

이수자는 제11 지장대왕은 <지장본풀이>의 지장과 동일한 성격과 직능을 가진 대왕이라고 추정한다.²⁰⁰⁾ 지장여신은 함께 있는 친밀한 상대를 죽게 하는 살(殺)을 가진 여신이고, 또한 자신 때문에 죽은 원혼을 위해 전세남굿을 하여 저승에서 다시 잘 살도록 해주는 직능을 가진 신이다. 따라서 <지장본풀이>는 큰 굿을 행할 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에서 불렀던 신화라고 추정한다. <지장본

199)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92.

200) 이수자, 「무속신화<지장본풀이> 연구」, 같은 책, p.476.

풀이>의 지장신의 직능을 고려하고 또 지장신과 제11 지장대왕의 이름이 같음을 근거로 할 때, 지장대왕은 이승에 살 때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저승으로 천도하여 그곳에서 다시 잘 살도록 돕는 여신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논의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지장대왕도 역시 ‘지옥에서의 보상’이라는 사유방식의 표현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서 제주 무(巫)를 향유한 집단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죽음이나 저승에 대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제주 무가의 저승관 및 생사관

1. 저승에 대한 인식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할 것이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듯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생물학적 죽음을 지연하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죽음을 수용하되, 죽음을 삶의 단절로 여기지 않고 일종의 통과 의례로 간주함으로써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는 사후 세계(死後世界)의 상정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며, 무(巫)에서는 이를 저승이라고 관념한다.

일반적으로 저승은 사후 세계를 의미하지만, 무(巫)에서는 그 의미나 형상, 구조 등이 상당히 다층적이다.

1) 저승 범주의 다층성

(1) 죽음의 공간

저승은 기본적으로 이승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저 세상, 피생(彼生)’을 말하며, 흔히 인간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의미한다. 사후 세계로서의 저승은 무(巫)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죽으면 즉각 가게 되는 곳’으로서 광의의 저승과 ‘죽어서 제대로 가야할 곳’으로서 협의의 저승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의미로 신의 세계 전체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원형적 저승으로도 관념하고 있으며, 제의(祭儀)에서는 제의 현장이 곧 신이 강림하거나 내임한 신성한 공간이 되며, 이 공간은 굳이 지속되는 동안 신의 공간으로서 저승 공간이면서 동시에 소통의 공간이 된다. 이렇듯 무에서

저승은 다중성을 지니고 있다.

벌떼ㄴ쁜 체스님은 누운 방안 을아놓고 우뚝가쁜 소리 벌떼ㄴ찌 울려가난, ‘나는 선설 아무가이’ 초혼 이혼 삼혼이야 창문 뺏기 나갔고나. …중략… 인정 엇인 처스님은 뒤꿈치 삼쉬번을 췌여노니 눈공즈도 저승이요, 목에 큰칼 씨와가니 목에서는 대톱소리 소톱소리가 절로 나고. 이별이여, 이별이여, 저승질이 어덜런고, 창문 뺏기 나아사난 저승질이 완전ㅎ고, 대문 뺏기 나아사난 명왕질이 완전ㅎ구나. 초혼 불러 초혼 씨고 이혼 불러 이혼 씨고 삼혼 불러 삼혼 씨니, 천년 만년 살을 디를 저승질이 나 살 질이로다.²⁰¹⁾

차사가 와서 죽을 이의 이름을 부르면 초혼, 이혼, 삼혼이 창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순간이 영육의 분리 즉 죽음의 순간이다. 그리고 이승에서의 생명이 끝난 그 시점은 바로 저승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방을 나온 순간 바로 저승길, 명왕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천년 만년 살 곳이 바로 저승길이라는 표현은 앞서의 죽자마자 진입한 저승과는 다른 차원의 저승이다.

삶의 시간이 단절된 직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저승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공간화한 관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망자가 존재하게 되는 모든 관념적 상상 공간이 저승으로 표현되며, 광의의 저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간의 세계, 구체적으로 창문 밖이나 대문 밖도 망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저승 공간인 것이다.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를 가기 위해 통과하는 9와 3/4 승강장이 현실의 공간에 있으면서도 통과하는 순간 기둥 너머가 바로 마법의 공간이듯, 삶의 시간이 ‘0’이 되는 소멸의 순간에는 현실 공간도 망자에게는 저승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광의의 저승은 망자가 자발적 의사와 능력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

201)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89.

승 차사가 적패지(赤牌紙)를 가지고 망자를 ‘잡으러’ 와야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집안의 문전님과 조왕할망은 차사로부터 집안 사람을 지키기 위해 차사와 대결한다. 그러나 결국 차사는 망자의 이름을 불러 혼을 잡아가게 되며 인정사정없이 손에는 홍사줄을 묶고 발에는 박쇄(足鎖)를 채워 데려가게 된다. 살아 있는 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부정적 의미의 저승으로 ‘저승=죽음’으로 인식하는 저승이다.

(2) 영생의 공간

저승이 일차적으로 죽음의 공간인데 비해 망자가 ‘천년만년 살 곳’인 저승은, 이승에서의 한이나 결핍이 없는 망자가 안주하는 곳으로, 공간적으로 구체화 된 저승이다.

“너의 소견대로 일르라. 시왕상마을로 가겠느냐? 중마을로 가겠느냐? 하마을로 가겠느냐? 줄림당 말림당 석효산 노상대 죽성도 상시당 조은 국으로 가겠느냐? 상교훈장(鄉校訓長) 이령좌수(留鄉座首) 벨감(別監) 통정대부(通政大夫) 가산대부(嘉善大夫) 가겠느냐?”²⁰²⁾

망자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여러 마을들, 즉 ‘상마을, 중마을, 하마을, 줄림당, 말림당, 석가산, 노상대, 죽성도, 상시당’ 등 ‘조은 국(좋은 곳)’이 상정되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망자의 안식처로 영생을 누릴 곳이다. 그리고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부인(夫人)청을 들어사민, “부인 부인 감부인(甘夫人) 도대부인 숙절부인(守節婦人) 열녀부인(烈女婦人) 부인청으로 가겠느냐. 삼천선비 노는 들로 궁예청(宮女-) 시녀청(侍女-) 정소남(貞小男) 노는 들로 나겠느냐?”²⁰³⁾

202) 현용준, 같은 책, p.193.

라고 하여 특별히 선택항이 더 있기도 하다. 물론 ‘조은 국’의 공간적 특성과 구체적 내용이 자세하게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 수 있는 선택 폭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승에서처럼 각종 직·위를 누릴 수도 있는 곳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편 이승에서 한이나 여러 결핍이 있을 경우는 좋은 죽음이 아니며, 이런 경우 이승을 떠나 저 세상, 즉 광의(廣義)의 저승에는 왔지만, 궁극적으로 가야할 ‘조은 국’에 당도하지 못하게 된다.

저승 초군문 가기 전의 행기못 당혹거든 행기못 바위에 보민, 인간에서 지명(命)에 못가 남의 명(命)에 가던 사름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오랑 비새ㄱ찌 울엄실 겨우다. 동간님(同官-)이 행기못 바위 당혹민 날도 드랑 겁서. 날도 드랑 겁서. 동간님 쾌짓 습을 심을 겨난...²⁰⁴⁾

이승에서의 결핍이나 한이 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저승을 가지 못하고 특정 공간 근처에서 울며 헤메게 된다. 이 특정 공간은 행기못이며, 원혼들은 자발적으로 이곳을 통과할 능력이 없으므로 권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승 조은 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권능자의 도움으로 이 곳을 통과해야만 혼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여 ‘조은 국’으로 가서 안주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협의의 저승인 ‘조은 국’은 긍정적 의미이며, 망자는 물론 망자의 살아있는 가족들도 망자가 꼭 가야하는 곳으로 여기며 ‘저승=영생’이라고 인식하는 저승이다.

203) 현용준, 같은 책, pp.193~194.

‘-칭’, ‘-나칭’은 여러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복수 접미사. p. 192. 주 227 참조

204) 현용준, 같은 책, p.216.

(3) 신성 공간

저승은 인간이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이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즉 신의 세계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큰궐의 첫머리인 <초감제>에는 무가의 원형적인 공간이 제시된다. 하늘과 땅이 원래는 한 묶음으로 있다가 분리되어 천지왕이 다스리는 하늘옥황과 인간 세상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늘옥황은 신의 세계이며 땅은 인간 세계이다.²⁰⁵⁾ 무가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땅(지상)이다. 이후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승은 인간의 세계를, 저승은 신의 세계를 말한다. <초감제>의 기본 공간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초감제>의 공간 구조

하늘		땅
하늘옥황		지상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저승		이승

저승을 신의 세계로 표현한 것은 고대중 구송본에서도

저승법은 주년이라. 참실곶은 범일러라. 이수훈장 범일러라. 한번 가민 다시 올
줄 모르신 범일로라. 나는 저승법 지녀살져 옥황상저의 올라가노라. 아시랑 금시
상법 지녀 살라.²⁰⁶⁾

라고 하여 저승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옥황상제(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여, 옥

205) 현용준, 같은 책, pp.39~46 참조.

206) 장주근, 같은 책, 역락, 2001, pp.76~77.

황은 저승을 다스리는 중심부이고, 이로 보아 저승은 곧 옥황상제의 세계인 하늘 공간도 내포하는 영역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무생 구송본에서도

쉬맹이 아방이 이성에 나왔단 저싱엘 가시난, 천지왕이 말을 하되,
“느 간 맹질 먹언 완디야?”(p.230.)

그젠 천지왕은 군졸들을 내세완,
“인간에 쉬맹일 강 심영오라.”(p.230.)

“그 줄 바랑 옥황데레 아방국에 올라오라.”(p.233.)

백근 찬 건 인간데레 지부찌고 백근 못찬 건 공즈 둘 박안 옥황데레 지울리난
귀신을 공즈가 들이난 저싱광 생인을 브래고 생인은 공즈가 흐나 매기난 귀신을
못 브랜다.(p.236.)²⁰⁷⁾

라고 하여 저승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것은 천지왕이며, 저승과 관련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승의 인간을 처벌하기도 한다. 천지왕은 저승을 관장하며 주 거처는 옥황이다. 이후 저승을 관장하는 대별왕은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백근이 차지 않는 존재는 눈동자를 두 개 박아 표시하고 옥황으로 올려 보낸다고 하였다.

저승을 하늘, 신의 세계로 인식하는 것은 「할망본풀이」에도 나타난다. 인간 세상의 생불왕이 되고자, 동해용왕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가 대결을 하고 결국 동해용왕 따님애기는 저승할망이 되고 명진국 따님애기는 생불할망이 된다. 각자 거처하는 곳을 표현할 때,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저승으로 올라서고’ 인간 명진국할마님은 ‘인간으로 내려선다’고 하여 ‘하늘=저승=신의 세계’로 ‘땅=

207) 진성기, 같은 책, 민속원, 1991, pp.230~236.

이승=인간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²⁰⁸⁾

신이 저승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巫) 의례인 곳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곳은 인간과 신이 소통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는 현상계인 이승에 있다. 신이 이승에서 인간에게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곳의 공간을 통해서이고 직접 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방의 몸을 통해 공수의 방법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때의 곳의 공간은 이승의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이 현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다. 특히 망자천도곳의 경우 망자의 조상이나 망자의 영혼이 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과 만난다. 이로 보아 영혼이나 신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며 같은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도 영(靈)의 세계, 즉 저승에 함께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저승은 신의 공간이기도 하고 영혼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²⁰⁹⁾ 다른 본풀이에서는 신의 세계가 더 분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창세 신화소가 있는 <초감제>와 그 <초감제> 제차 내에서 구송되는 <천지왕본풀이>는 특히 저승 관장 신이 염라대왕이 아닌 천지왕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여타 본풀이보다 원형적인 공간 인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의 세계를 저승으로 관념한 것은 원형적 의미의 저승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승에 구현된 소통의 공간

무(巫)에서 저승은 망자가 가게 되는 사후 세계나 신의 공간으로 따로 상정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세상인 이승에서도 저승 공간이 구현되기도 한다. 즉 제의 현장이 신성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저승인 것이다. 심방은 제의 장소를 깨끗이 정화한 후 청신(請神)을 하게 되는데, 신이 강림(降臨)하거나 내임(來臨)하게 되면, 제의 현장은 곧 신이 거하는 신성한 곳이 된다. 즉 신의 세계인 저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신(娛神)의 과정에서 신을 즐겁게 놀리고 소원하는 바, 즉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소망할 때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208)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02.

209)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pp.172~193 참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방이 제의를 진행하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혹은 신과 인간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행위로, 이 때의 제의 현장은 곧 신성 공간으로서의 저승이 되며 그 속성은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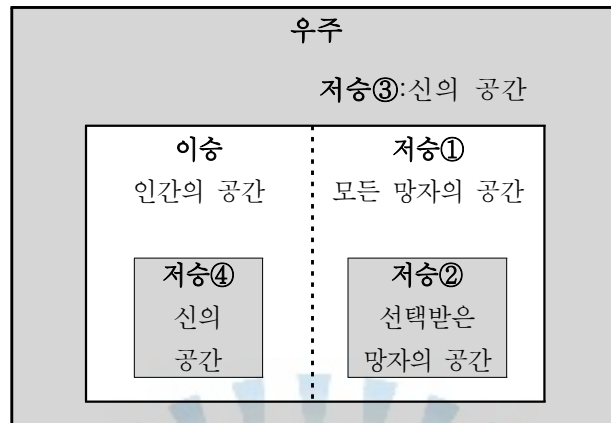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볼 때, 무가에 나타나는 저승은 첫째, 산 자와 죽은 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죽은 자의 세계이다. 인간이 죽으면 가는, 혹은 죽는 순간 이후 대면하게 되는 공간을 말하며, 죽음 이후의 시간을 공간화한 관념의 영역이다. 이곳으로의 진입은 저승 차사가 잡으러와 강제로 가게 되는 곳으로, ‘저승=죽음’으로 인식되는 부정적 의미이며, 광의의 저승이다.

둘째, 망자와 망자의 관계에서 결핍이 없는 원만한, 혹은 고통을 통해 원만하게 된 망자의 세계이다. 망자가 안주하여 영생을 하는 공간을 구체화한 곳으로 ‘조은 국’으로 설정된 공간이다. 모든 망자가 궁극으로 도달하는 또는 도달하고 싶은 공간으로 ‘저승=영생’으로 인식되는 긍정적이고 협의의 저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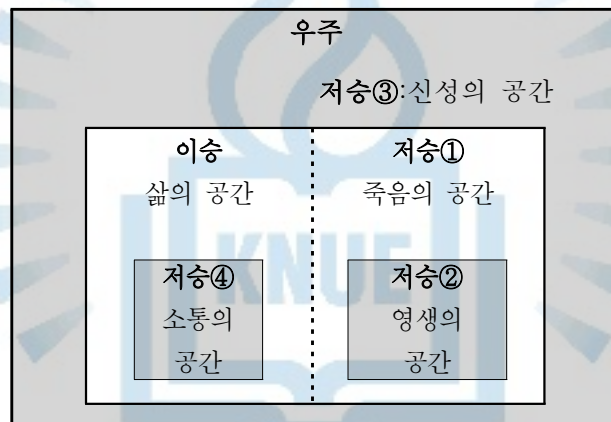
셋째,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신의 세계이다. 망자, 못 귀신과 신을 모두 포함하는 신의 세계로서의 공간이다. 즉 ‘저승=신성 공간’으로 인식되는 원형적 공간 인식이다.

넷째, 무(巫)의 제의인 굿의 현장이 곧 신성한 공간 즉 저승이다. 굿은 신을 청하여 즐겁게 놀리면서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거나 살아 있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행하는 것인데, 굿의 현장은 신이 강림한 신성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말하고 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즉 ‘저승=소통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림 4> 저승 공간



<그림 5> 저승 공간의 성격



2) 저승관의 이중성

(1) 밝고 맑은 저승과 인정이 통하는 저승

저승의 범주가 다층적이었던 것처럼 저승에 대한 관념도 상반되는 인식을 동시에 보여 일관적이지 않다.

저승질은 묶고 묶은 능수능장법, 초군문을 들어사니 초대장(初大將)이 말을 하
 댜, “인정내라. 스정(事情)내라.²¹⁰⁾” 무스걸로 인정 걸리. 입은 입성 혼 복 튼언 초
 군문(初軍門)에 초대장(初大將) 지달래고, …중략… 삼식도군문(三都軍門) 지달래
 니 오군문(五軍門) 도대장(都大將)이 “감옥(監獄)으로 들어오라.”

감옥으로 들어가니 “인정도라. 스정도라.” 입은 입성 벗어 바찌. 감옥성방(監獄
 刑房) 말을 하댜 “너의 갈 지육(地獄)으로 들어가라.”²¹¹⁾

저승이 능수능장의 맑고 맑은 세상²¹²⁾이라고 관념하면서도 동시에 인정, 즉
 신에게 바치는 재화가 없으면 망자가 마땅히 통과해야할 과정도 지나가지 못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¹³⁾ 문문마다 인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맑고 맑은
 저승법과는 상반되는 인식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은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각각 이승과 저승을 다
 스리라고 하나, 이승 차지를 하고 싶어하는 소별왕 때문에 형제는 수수께끼 내
 기와 꽃 키우기 내기를 하게 된다. 소별왕의 속임수로 결국 소별왕이 이승을 차
 지하게 되고 대별왕은 속임수임을 알면서도 내기의 결과에 승복해서 저승을 차
 지하게 된다.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에게 대별왕은

“설운 아시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츠지혜여 들어사라마는 인간의 살인 역적 만
 하리라. 고든 도둑 만리라. …중략… 예자식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민 이녁 냐
 편 노아두고 놈의 냐편 울러르기 만하리라.”

210)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인정01 「명사」 『방언』 신에게 바치는 모든 재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을 뜻하는 인정(人情)과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스정내라’는 ‘인정내라’에 맞춘 조운구.

211)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90.

212) 현용준, 같은 책, p.190, 주)177 참조.

능수능장법은 모든 것이 사리가 바르고 맑은 법이라는 뜻이라 하는데 미상.

213) 「스만이본풀이」에서 사만이가 방액용으로 차려 놓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차사들이 ‘남의 음식을
 공으로 먹으면 목 걸리는 법’이라고 하여 사만이의 정명을 고쳐서 장명하게 해 주는 경우나, 「강님차
 사본풀이」에서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과양생이 처의 밥을 얻어 먹고 ‘남의 음식을 공으로 먹으면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라고 하며 귀한 재물로 보상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행동 방식이다. 현용준, 『개
 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235, p.200.

법지법을 마련해야

“나는 저승법을 마련하마. 저승법은 맑고 청량(淸朗)한 법이로다.”²¹⁴⁾

라고 하며 이승의 어지러운 법과는 달리 저승은 맑고 청량한 법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아우 소별왕의 속임수로 인해 대별왕이 원래 다스려야 할 이승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대별왕은 소별왕보다 수수께끼 내기에서도 현명하게 대답하여 이기고, 꽃가꾸기 내기에서도 번성꽃을 피워내는 실력자이다. 또한 이승과 저승의 어둡고 맑은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하기도 한다. 즉 저승은 그 어느 신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현명한 대별왕이 다스리는 맑고 맑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저승이 맑고 맑은 세상이라고 관념하는 것은 인간 세상과는 다른 신들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며, 또한 죽음 이후의 알 수 두려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원형적 사고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만이본풀이」에서는 정명(定命)이 삼십삼 세인 것을 사만이가 망액을 통해 삼십삼 세 정명(定命)의 삼십을 삼천년으로 변경한다.

백년해골(百年骸骨)이 스만이 꿈에 선몽(現夢)을 드리웨, …중략… 서른셋(三十三) 만기(滿期)가 웨는 날 저승 염내왕(閻羅王)에서 널 잡으레 신앙삼체서가 느릴 듯하다. 어서 바빠 일어날 연주단발신연맹무(剪爪斷髮身嬰白崩)호고 스만이는 날 만나던 삼도전거리예 가서 널날 밤이랑 쪽지평풍(屏風) 윽둘르곡 비즈낭(櫃子木) 좁상을 싱경 묶은 음식 단정히 출려농곡 상촉권상(香燭勸上)을 지도토와, 너의 이름(名) 삼째(三字)를 써가지고 제상 알(祭床下)에 부쳐두고 백보 밧갓디 업데허영 …중략… 스만이 부인이랑 날이 새건 신의성방(神房)을 청허여당 뱃갓딜로 대통기를 비습고 염넛대(閻羅竿)를 싱거근 저승 염내왕을 청어형 대시왕연맛이를 호웨, 대시왕(大十王) 저승 염내왕(閻羅王) 앞으로 관디(冠帶) 삼베 띠 삼(三)베 휘삼(三)베 대(大)말치 소(小)말치 주석상동이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하백미(下白米) 동이 그득 지올려, 황바깥웨 스만삼필(四萬三四)을 데령(待令)호곡 천수

214)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45.

방액(天授防厄)을 막아시민 알 도레 이시리라.²¹⁵⁾

차사가 오는 길목에 음식을 차려 놓고, 시장기가 도는 차사로 하여금 먹도록 유도한 후, 음식을 배푼 이가 곧 차사들이 잡아가야 할 사만이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한편, 집에서는 염라왕을 청하여 모시고 시왕맞이 굿을 하면서 제물을 바치며 정성을 들여서, 삼 차사가 차마 사만을 잡아가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염라왕과 동자판관 등이 시왕맞이 굿판에 내려와 있을 동안 삼 차사는 저승의 장적을 고치게 되고 사만이는 정명을 연장하게 된다.

이는 사만이가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백년해골의 주도면밀한 지시로 이루어지고 결국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 즉, 권능자의 도움을 통해, 차사에게 인정을 거는 방법으로 저승의 법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시왕맞이에서 망자가 저승차사를 따라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목에서는 인정(人情) 없는 차사가 행차길이 바쁘다고 망자에게 어서 걸어라고 재촉하면서 망자의 손은 홍사줄로 묶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 저승길을 데려간다. 물 한 모금 마시자고 사정하면 족쇄를 더욱 쥘어놓고 목에는 큰칼을 썬우고 데려간다고 형상화 하였다.²¹⁶⁾ 그러므로 망자의 편안한 저승길을 위해 전에 왔던 차사는 인정사정 없는 차사였지만 이번에 오는 차사는 인정 있는 차사라고 치사(致辭)를 하며 차사의 본을 풀고,²¹⁷⁾ 영신을 곱게 곱게 안동(眼同)하여 데려가 달라고 이방광쳐서 지옥을 새내우는 과정을 차사에게 한다.²¹⁸⁾ 즉 굿을 통해 차사를 달래고 치켜세워 망자를 편히 데려가 달라고 기원하며 또한 굿을 통해 이러한 소망을 성취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차사본풀이에서 강님이 염라대왕을 잡으러 갈 때, 문전신의 도움을 받아 일흔여덟 갈림길을 지나고, 저승길을 보수하는 질토래비에게 길을 물을 때도 인정과 동료 의식을 이용한다.

215) 현용준, 같은 책, p.233.

216) 현용준, 같은 책, p.189 참조.

217) 현용준, 같은 책, p.187.

218) 현용준, 같은 책, p.186.

“팔죽(八字) 궂인 동간(同官)은 유학성제(幼學兄弟)로고나. 이승 동간님아 어딜 가는 질입네까?”

“나는 저승 염내왕 잡히레 가옵네다.”

“아이고 이승 동간님아, 이게 무슨 말이우까? 저승을 어떻 갈 수 이십네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돼도록 걸어봅서. 저승을 가지느냐. 못 가는 법입네다.”

이 말을 들은 강님인,

“저승 동간님아, 나의 갈 질(路) 저승 질을 인도나 시겨줍서.”

애원하던 이원스제가 생각하여보니 놈의 음식 공이 먹영 목 거리는 법이라,

“이승 동간님아, 저의 저승질 인도대로 저승을 가아봅서, 땀적삼 있음네까?”²¹⁹⁾

일을 하다가 졸고 있는 질토래비 앞에 떡을 놓아두고, 질토래비가 잠을 깨어 배고픈 김에 떡을 먹은 후에, 강님이 질토래비 앞에 나타나 아무나 갈 수 없는 저승길을 안내해주기를 애원한다. 저승과 이승의 관장이라는 동료 의식을 자극하고, 질토래비는 남의 떡을 공짜로 먹을 수 없어 결국 길을 가르쳐 주게 된다.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가부(可否)를 결정하기도 하면서 때로 인정이 통하고 편법이 통한다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때로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희망을 주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만이 나 강님이 혹은 망자가 스스로, 또는 궂의 도움을 받아 저승의 절차나 법을 바꾸고자 하는데 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만을 잡으러 왔던 삼 차사나 강님의 떡을 먹은 질토래비는 상대의 의도를 알고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 먹고 보니, 먹어서 곤란한 음식이었고,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이 걸리는 법이라서 상대의 청을 들어주게 된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을 썼다든가 비리가 있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인정(人情)에 호소하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돌리고 싶어 하는 약한 자의 소망을 투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들이 공명정대

219) 현용준, 같은 책, p.214.

한 저승법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저승이 맑고 맑은 법을 가지고 있고, 소별왕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한 대별왕이 다스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인정(재물)과 인정(人情)이 통하고 다소 허술한 세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미래의 알 수 없는 세계가 공명정대하여 누구라도 맑고 맑은 법대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하여,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기를 시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으로 인정과 동류 의식을 활용하여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싶은 인지상정을 저승 세계에 투영한 민중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저승은 대별왕이, 혹은 염라왕이 다스리는 곳으로, 맑고 맑은 법, 능수능장법이 실현되고 있는 곳으로, 인간의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한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곶을 통해 심방을 통해 저승의 법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바꾸고자 노력한다. 곶을 하는 자체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현되며, 곶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편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저승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정된 세계로서 저승을 인식하면서도 미결정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를 희망하는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2) 죽음의 공간인 저승과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저승

저승은 죽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원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승의 다양한 의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승의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다. 인간의 정명(定命)이 다 되면 염라왕의 명을 받고 강림차사가 적패지를 받아 이승으로 온다. 먼저 마을의 신당에다 적패지를 붙여 촌락 수호신인 본향당신에게 저승문서인 적패지를 보여주고 잡아갈 사람을 대조 확인한다. 그런 다음 망자가 될 이의 집에 와서 문전신과 조왕신들의 방어벽을 뚫고 창문 밖에서 망자의 나이와 이름을 세 번 부르면 망자의 초혼, 이혼, 삼혼이 창문 밖으로 나온다. 이 순간부터 이승의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망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망자가 된 순간의 창 밖 혹은 대문 밖의 공간부터는 저승인 것이다. 이때 저승은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띠게 된다.²²⁰⁾

그러나 한 편으로 저승은 죽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원만한 영혼들이 영생(永生)하는 곳으로, 혹은 새 생명으로 환생하는 곳으로도 인식되어, 저승은 곧 영생 혹은 새남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열두 시왕과 좌우도대왕, 동자판관을 거치면서, 인간 세상에서 죄 없이 공을 쌓은 사람에게 동자판관은 저승의 여러 마을 중에서 소견대로 선택할 수 있게도 하고 혹은 새나 나비 몸으로 환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한다. 죄 없고 공덕 있는 망자에게 한정되긴 하나 저승에서 영생하거나 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²²¹⁾

한편 저승을 신의 공간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때, 저승의 한 공간인 서천꽃밭의 꽃으로 죽은 사람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 이승의 새 생명인 생불을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수레멜망악심꽃(滅亡惡心花)을 내여주커메 느네 어머니 원월 가프곡 도환생꽃(還生花)을 내여주건 느네 어머니 살려오라...중략...

어머니 빼를 도리도리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봄 줌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거, 어머니가 살아온다.²²²⁾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꽃감관 아버지를 찾아가서 부자상봉을 하고, 할락궁이의 탈출로 인해 어머니 원강아미는 제인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 원강도령이 꽃을 주며 어머니를 살려 오게 한다. 죽은 사람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꽃이 바로 신의 세계인 저승 꽃밭²²³⁾에 있

220)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89 참조.

221) 현용준, 같은 책, pp.193~194 참조.

222) 현용준, 같은 책, pp.113~114.

223) 꽃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공본풀이>의 여러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이승이 아닌 곳으로, 저승이나 옥황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곳으로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걸어서 가는 먼 곳으로 되어 있다. 안사인 구송본에서는 ‘원강암이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으로 올라갈 때’라고 하여 걸어가면서도 결국 가는 곳은 상부의 어느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08.

조흘대 구송본에서는 ‘저승에서는 서천꽃밭 꽃감관질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되는데’ ‘서천꽃밭에서 삼

는 것이다.

또한 세경본풀이에서도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꽃을 꺾어와 죽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려내고 있다.

초채를 노았더니 굴미굴산 지픈 곳(藪) 정수남이 죽은 딜 좇아가니 브레여보난
풀이 덩병허여시난 은장도(銀粧刀)칼 내여놓고 동서레레 비여갓현 환승꽃(還生花)
을 노안 종낭막탱이로 삼식번을 후렸더니, 정수남이 매방석(薦方席) ㄴ쁜 머리 박
박 굵으멍,

“아이고, 봄잠(春眠)이라 오래 잤수다.”

와들랭이 일어나²²⁴⁾

하인 정수남이 흑심을 품고 자청비를 깊고 깊은 굴미굴산으로 유인하였다가,
자청비의 기지로 오히려 정수남이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안 자청비의 부모가 자
청비를 찾아내자, 황세곤간이 주재하는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다가 정수남
을 재생시킨다. 그리고 죽은 문도령도 환생꽃으로 살려낸다.

자청비는 알(下)엿 녀 서천꽃밭(西天花田)디 들어가 따시(叉) 서천꽃밭 도환생꽃
(還生花)을 타단 죽은 낭군 살려두고 나오더니,²²⁵⁾

문도령과 자청비가 혼인한 후, 자청비의 미모를 탐한 궁 안의 사람들이 문도령
에게 독약이 든 술을 권하여 죽이기를 시도하고 결국 외눈백이 할망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문도령이 죽었을 때도 서천꽃밭²²⁶⁾의 환생꽃으로 살려낸다.

차사가 내려와' 데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72.

박봉춘 구송본에서는 '옥황에서 편지가 와서 김진국생원은 꽃감관을 하라고' 하여 '옥황사자와 함께 세 명이 서천꽃밭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260.

224)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89~290.

225) 현용준, 같은 책, pp.297~298.

226) 안사인 구송 「세경본풀이」에서는 '아랫녘' 서천꽃밭이라고 하여 꽃밭이 인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 주재신인 황세곤간의 사위가 되어서도 함부로 꽃밭을 들어가지 못하고, 부인에게 꽃밭 구경하기를 소원하여 겨우 꽃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꽃밭 화소가 여러 본풀이에 차용되어 대중화한 결과로 보이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신성한 곳으로

문전본풀이에서도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해 일곱 형제가 서천꽃밭에 올라 황세곤간에게 사정하여 도환생꽃을 따다가 어머니 죽은 뼈를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올려놓고 금부채로 부쳐서 어머니를 되살려 낸다.²²⁷⁾

저승, 즉 신의 공간에 있는 서천꽃밭의 꽃으로 죽은 사람을 재생시킬 수도 있지만 서천꽃밭의 더 근본적인 기능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있다.

인간 생명을 점지하는 생불할망을 정하는 내기에서 명진국따님애기가 번성꽃을 피워내어 인간생불할망이 되어 아기를 점지하게 되고, 시드는 꽃을 피워낸 동해용궁따님애기는 저승할망이 되어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혼을 관장하게 된다. 즉, 번성하게 피어나는 꽃은 생명의 활력과 탄생을, 시드는 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좌정한 생불할망은 한 쪽 손엔 번성꽃을, 다른 손엔 환생꽃을 들고 인간 세상에 생불(아기)을 점지한다.²²⁸⁾

김매옥 구송 「할망본」에서 생불할망이 된 명진국애기는 사월 초파일 석해산에 내려와 절을 짓고 중간 선반에 은대야를 놓고 꽃을 심는다. 꽃 뿌리는 외뿌리이나 꽃가지는 사만 오천육백 가지로 벌어지고 꽃이 사방으로 피게 된다. 옥황상제가 호적을 둘러보며 생불을 내릴 때, 아이의 운명에 따라 동·서·남·북·중앙의 꽃을 따 하루에도 수천만 명의 생불을 내린다.²²⁹⁾

박봉춘 구송본에서 삼신할망은 춘하추동 따뜻한 극락 땅에 모든 보살을 거느

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달춘 구송 「세경본풀이」에서도 서천꽃밭은 인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꽃밭에 나타난 새 때문에 고심을 하던 주인대감은 남장한 자청비가 새를 잡아주자 “그렇지 않아도 그 부엌새 때문에 사라대왕한테 욕을 듣는데 거참, 잘 되었구나.”라고 하며 주인대감이 관리하는 서천꽃밭과 사라대왕의 서천꽃밭의 직접적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청비는 주인대감의 막내딸 몰래 환생꽃을 따서 숨겨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p.250~251.

박봉춘 구송 「세경본풀이」에서는 꽃밭을 사라대왕 김정신(娑羅大王金正信)의 후원이라고 표현하여 훨씬 속화된 공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꽃밭 자체는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으며, 꽃밭의 주관자가 사라대왕 김정신인 것은 <이공본풀이>의 꽃감관 사라도령 혹은 사라대왕(이본에 따라서는 원강도령)이 집진국(김진국)의 아들이라는 가족력을 충실히 반영한 이름으로, 꽃밭의 원소재처인 <이공본풀이>와의 연관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晨 옮김, 같은 책, p.282.

227)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345.

228) 현용준, 같은 책, p.102.

229) 진성기, 같은 책, p.138.

리고, 서천꽃밭을 만든다. 꽃씨가 없어 옥황에서 꽃씨를 얻어, 오색꽃을 오방(五方)에 심는다. 그 꽃들은 방위에 따라 색과 성격이 달라 아이의 운명은 달리 결정하게 된다.²³⁰⁾

생불할망은 비록 좌정한 곳은 대체로 인간 세상으로 되어 있으나, 생불할망이 되기를 명(命) 받고 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옥황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생불할망이 인간 세상에 좌정하여도 그 곳은 석해산 혹은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 북해산 아양안동 금백산 또는 아요산 청룡산 웅천금 신산대산 가운데 극락지로 설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는 인간 세상에 있지만 신성한 저승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 신화는 꽃밭에서 시작되며, 꽃은 인간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²³¹⁾ 그리고 그 꽃밭은 신의 세계 즉 저승에 있으며, 따라서 저승은 죽은 이가 가는 곳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원천이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2. 생사에 대한 인식

천당이 있다 혼덜 천당이 어디 시명 왕성극낙이 있다 혼덜 저승에 왕성극낙이 있소리라. 극낙이라 혼 것은 우리 인간에 있는 범으롭씨 고대광실 높은 집 남단 북단(南田北畝) 너른 밭(曠田) 유기제물(鎡器財物) 조아지고 호이호식(好衣好食)호 명 근심 수심 옷이 사는 게 극낙이 뉘옵네다.²³²⁾

저승에 천당이나 극락이 있다한들 살아서 누리는 행복만 못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나타난다. 삶이 죽음보다, 저승의 영생이나 행복보다 현저히 좋은 것이며 살아 있는 현재의 행복이 가장 좋다는 현세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현세에서 복록을 누리며 장수하며 사는 것이 좋은 삶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비

230)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p.312~313.

231) 조홍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11.

232)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94.

록 정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죽음은 서럽고 원통한 것으로 인식한다.²³³⁾ 특히 정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는 척구가 되어 이승을 배회하면서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한편 죽음은 아이와 어른의 순서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길은 만국제왕과 대신, 왕손이나 양반이나 중인이나 누구나 가게 되는 길이라고 하여 죽음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인식하면서 죽음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데,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나도 인간 세상에 환생을 못한다고 한다.²³⁴⁾ 이것은 곧 인간으로서 이승에 사는 것은 단 일회적인 것으로 관념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현생의 인간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살아 갈 수 있게 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을 수도 있다.

현세에서 복록을 누리는 삶이 가장 좋으나 인간은 서러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승 공간의 상정으로 나타난다. 비록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존속해서 저승으로 가서 안주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제는 인간이 영육(靈肉) 결합체라는 인식이다. 즉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로, 영육이 결합된 상태는 삶(生)의 상태이고 영육이 분리된 상태는 죽음(死)의 상태로 인식한다.²³⁵⁾

이러한 영혼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여겨²³⁶⁾ 삼혼(三魂)²³⁷⁾이

233) ‘뭇친 간장 뭇친 시름 날로 돌로 사냥갑서, 성은 X씨 X살(歲)난 영신(靈神) 설운 어머님 저승 갈 때 날로 돌로 뭇친 간장 뭇친 시름 사나사나 사냥갑서.’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84.

234)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194.

새나 나비 또는 초목이나 축생으로 환생하는 경우는 있다고 인식하지만,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235) 「강림차사본풀이」에서 염라왕과 김치원이 강림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데, 김치원이 강림의 육신을 선택하자 염라왕은 강림의 혼정을 빼서 데리고 간다. 이승에 남은 강림의 육신은 곧 쓰러지며 죽어버렸다고 한다.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25~227 참조

236) 사람의 영혼이 여러 개라는 인식은 <넋들임>이라는 무의에서도 나타난다. <넋들임>은 넋이 육체에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일어난 병을 치료하는 무의다. 인간의 여러 개의 넋 중 일부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병이 되는데, 이렇게 이탈한 넋을 불러서 육체 속에 들어 넣어 병을 고치는 무의이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하고 안정되게 결합된 상태가 병이 없는 삶의 상태이고 일부 혹은 전부가 빠져나가면 병이나 죽음의 상태로 인식한다.

제주도에서는 요즘도 교통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놀랄 경우 혹은 아이가 경기를 할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넋들임과 푸다시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넋들이 의례를 별다른 갈등 없이 수용하고 살아가는 제주인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pp.13~15 참조.

라고 부르며, 저승차사가 죽을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불러 죽음을 내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강님이 저승으로 갈 때, 저승 질나장(이원사제)은 저승은 반드시 혼정의 상태로 가야한다면서 강님의 땀 적삼을 벗겨 흔들면서 이름을 세 번 불러 삼혼을 빼내어 저승으로 보내주기도 한다.²³⁷⁾

인간을 영육의 결합체로 보고 영육의 분리를 죽음으로 인식하며, 분리된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며 저승으로 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생하거나 새·나비로 환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중시하며 존재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과 죽음에 관한 무가 전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관념 외에도, 일부 무가의 내용 중에서는 다른 관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꽃과 관련한 ‘재생·환생’의 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꽃으로 죽은 이를 살려 내는 내용에는 육체의 원형 회복이 곧 재생²³⁹⁾이라는 관념이 나타나 있다.

머리 그찬(꽃어) 청대왓디 데껴불고 존동(잔둥이) 그찬 흑대왓디 데껴두고 독막
립 그찬 청새왓디 데껴시난 어머님 빼를 도리도리 몰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
이, 봄잠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거, 어머님이 살아온다.(p.114.)

굴미굴산 지픈 곳 정수남이 죽은 딜 좇아가니 브레여보난 풀이 덤방허여시난
은장도칼 내여놓고 동서레레 비여жат현 환승꽃을 노안 종낭막텅이로 삼식번을 후

237) 삼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는 무가에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의 혼이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魂), 귀(鬼), 백(魄)으로 인식한다.

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세 가지 미세한 정신 작용으로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이라고 하고, 종교학에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영혼, 즉 태광(台光), 상령(爽靈), 유정(幽精)을 이룬다고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38) 삼혼(三魂)을 불러드리건 혼정(魂精)으로나 저승 초군문을 가야봅서.

저승 이원스제 강님의 땀적삼을 뱃건

“강님이 보오(復), 강님이 보오(復)”

삼혼을 불렀더니, 강님의 사암혼(三魂)은 저승 포도리청 호안성 지나가 행기뭇을 가안 보난,.....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pp.215~217.

239) 재생과 환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공통되나, 재생은 원래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생은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거나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여 차이가 있다. 무가 속에서 나타나는 환생은 재생과 환생의 의미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본문을 인용할 때는 원문대로 환생이라 쓰고, 그 외의 경우는 재생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자 한다.

렸더니, 정수남이 매방석 ㄱ뜯 머리 박박 긁으멍,

“아이고, 봄잠이라 오래 잤수다.”

와들랭이 일어나.(p.290.)

즈청비가 이 일을 알고 날이 정그니 (죽은) 문도령을 업어단 구들 안에 눕저
이불을 더꺼놓고,···중략···

즈청비는 알(下)엿 녀 서천꽃밭디 들어가 따시 서천꽃밭 도환생꽃을 타단 죽은
낭군 살려두고 나오더니,(pp.297~298)

주천강 연못이 삼시에 쫓아지난, 어머님 죽은 뼈(骨)는 슬그랑허여시니(고스란
히 있으니) 도리도리 모다 난 도환생꽃을 놓고 금풍채로 후리니, 감태 ㄱ뜯 머리
허봉치멍,

“아이고, 봄잠이라 늦게 잤저.”

어머님이 인간 도살아 오랴구나.(p.345.)²⁴⁰⁾

죽은 존재의 뼈를 모두 모아 놓고 도환생꽃을 놓으니, 망자는 언제 죽었던 적이 있느냐는 듯이 잠에서 깨듯 다시 살아난다.²⁴¹⁾ 분리된 영혼을 찾아서 몸에 붙어넣었다는 표현도 없을 뿐더러, 되살아난 이들도 저승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표현하지 않는다. 환생한 이의 인식에는 죽어 있었던 동안의 시간은 배제되고 죽음 직전의 시간과 환생의 순간이 바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생하면서 ‘봄잠을 오래도록 잤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만약 영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죽었던 동

240)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차례대로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이외에도 「강림차사본풀이」에도 염라왕이 금부채로 버무왕 아들 삼형제를 살려내는 것도 꽃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육체의 회복이 재생으로 연결되는데, 그 양상이 위의 예와 같은 사생관으로 나타난다.

241) 제주 무가에서는 모두 죽은 이의 뼈를 모아 놓고 도환생꽃으로 살린다. 이때 흩어진 뼈를 온전히 다 찾아내어야 재생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바리공주>에서는 육신 자체가 잘 보존되어 있어야 환생이 가능하다는 설정이다.

‘여섯 형님이여, 삼천궁녀들아 대왕 양마마님께서 한 날 한 시에 승하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재까지 기달여서, 인산거동(因山舉動) 내지 말아.’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같은 책, p.38.

안에는 영혼도 그 상태로 정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은 육체의 훼손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재생은 육체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위의 예시 문에서는 모두 도환생꽃으로 죽은 이를 살려냈다고 되어 있지만 이본(異本)에서는 훼손된 육체를 회복시키는 다양한 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24> <이공본풀이>의 이본에 나타나는 환생꽃의 종류

구송자	환생꽃의 종류	기타	
조홀대*	팥(삻) 오를 꽃, 살 오를 꽃, 오장육부 만들 꽃	+ 족낭회초리 3회	p.82
고산옹*	살 오를 꽃, 팥 오를 꽃, 말하게 할 꽃 숨 쉬는 꽃, 오장육부 만드는 꽃	+ 족낭회초리 3회	p.96
박봉춘**	삻 오를 꽃, 고기 오를 꽃, 살 피어오를 꽃 피 흐르는 꽃, 오장육부 생기는 꽃	+ 물종남회초리 3회	p.266
고대중***	힘 오를 꽃, 살 오를 꽃, 오장육부 생길 꽃 삼백육십 여러 피 생길 꽃, 말할 꽃 웃음 웃을 꽃	+ 송낭막데기 3회	p.124

이본에 나타난 다양한 환생꽃들은 결국 삻만 살그랑하게 남은 것을, 죽기 전 상태의 육체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진 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꽃의 효과로 육체가 본 모습을 되찾자 잠에서 깨어나듯 재생하는 것이다.

또한 악인을 징치할 때, 악인은 그 자리에서 죽음과 동시에 각종 미물로 환생을 하는데, 물리적인 육체의 변화가 곧 존재의 변환으로 나타난다.²⁴²⁾ 즉, 저승 공간을 매개하지 않고 징치 즉시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죽었으나 악한 존재로 환생한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육체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로 이어진다.

관념적 형태의 영혼이나, 그 영혼이 거주할 저승 공간보다는 물질적 형태의 육신을 더욱 중요시 하고 육신의 온전함이 곧 생(生)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가

242) 과양생이 부부(모기, 각다귀), 노일제데귀일의 딸(해조류, 바다생물, 모기, 각다귀 등), 서수왕애기(풍문조화를 주는 각종 새), 지장애기(풍문조화를 주는 각종 새)를 예로 들 수 있다.

를 향유했던 집단이 기본적으로는 죽음보다 현세적 복락과 이승에서의 삶을 더욱 중요시 했던 것과 상통하는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사관은 저승 공간을 상징하고 영생을 갈망하는 생사관보다는 더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세에서 복락을 누리며 장수하는 것이 좋은 삶이며 이러한 삶이 바로 극락의 삶이다. 따라서 죽는 것은 서럽고 원통한 것이며 모든 것을 이별하고 잃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승 공간을 상징하고 저승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념한다. 그런데 저승에서의 영생은 인간이 영육의 결합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영육의 조화롭고 온전한 결합 상태는 삶의 상태이고 영육의 분리 상태는 죽음의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근원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더욱 중요시 한다.

그러나 꽃과 관련된 재생·환생 서사에서는 이와는 다른 삶과 죽음의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낼 때, 육체의 모태가 되는 뼈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며 이 뼈에다 환생꽃을 놓아 살려내게 되는데, 환생꽃들의 기능은 모두 육체의 원형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육신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다. 이로 볼 때, 영육 결합을 삶으로 인식할 때 육체는 영혼의 안식처요, 삶의 부수적 조건처럼 여겨지는데, 육신의 원형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 육신의 온전함이 곧 삶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의 생사관은 무가 전반에 함께 나타나고 있어 무가가 다층적 생사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제주 무(巫)의 큰굿에서 구송되는 제의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저승 형상화 양상을 고찰하여, 저승에 대한 인식 및 저승 공간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제주 무(巫)는 여타의 지역에 비해 무속제의를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무가의 종류가 다양하고 서사가 풍부하고 체계가 정연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 무가의 저승을 대상으로 그 형상화 양상을 살피고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무가의 공간 양상 전반을 살펴보았다. 육지 무가는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제주 무가는 일반본풀이를 중심으로 공간 양상을 살핀 다음 육지 무가와 다른 제주 무가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주 무가의 일반본풀이에 나타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육지 무가의 공간과 그 기능이나 의미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무가 속에서 형상화된 공간의 양상에서는 제주 무가가 현실밀착형 공간 특성을 보인다. 공간 구조적 측면에서도 육지 무가보다 다양한 층위의 공간 양상을 보인다.

III장에서는 제주 무가에서 저승이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를 노정과 공간 요소 그리고 등장인물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의 자연지리를 많이 반영하여 육지 무가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육지 무가의 경우 저승은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제주 무가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걸어서 가는 지상의 거리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한라산 방향으로 저승의 위치를 설정하여 거칠고 험한 산비탈길과 수많은 갈림길로 표현하였다. 저승이 산 속이라 하더라도 역시 먼 거리감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도 설화에 등장하는 독특한 공간인 행기뫼를 설정하여 그 물 속에 빠지도록 하여 시·공과 존재의

충위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저승의 공간 요소로는 시왕과 저승 마을 그리고 꽃밭을 들 수 있다. 육지 무가에서 시왕이 사후 심판을 담당하는 저승왕의 개념이면서 심판을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혼용되는데, 이는 제주 무가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육지 무가에서는 공간 개념으로서의 시왕이 심판의 장소, 지옥의 의미로 쓰이면서도 극락과 저승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제주 무가에서는 비교적 심판과 지옥의 의미로 한정되며, 공간의 기능과 특성이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심판과 동시에 영생을 위한 통과례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인 10시왕이 아니라 15시왕으로 특히 제12생불대왕의 경우는 이승에서의 결핍을 보상하고 위무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제주 무가 향유자들의 삶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저승 마을은 시왕에서의 심판을 거쳐 죄가 없거나 죄값을 치른 망자가 영생하는 곳이다. 현실의 여러 사회 제도를 반영한 장소와 직함이 나타나며, 특히 여성 전용 마을도 제시되어 있다.

저승의 등장인물로는 우주와 신·인의 세계를 모두 관장하는 신으로 천지왕이 등장하며 이는 이후 옥황상제천지왕으로 불리다가 다시 옥황상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저승을 관장하는 신으로는 대별왕이 있으나 이후 염라왕으로 그 명칭이 변한다. 또한 저승왕으로서의 염라왕과 염라왕을 포함한 시왕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시왕은 심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 저승왕들은 생명의 원리를 관장하는 왕으로, 또 이승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자로, 또 이승의 인간들을 심판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승의 질서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저승왕들을 통해서 저승이 이승의 질서 회복을 돕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저승차사도 염라왕과 시왕의 성격이 다르듯이 그 소속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시왕 소속의 실무자인 차사는 억세고 사나우며 매우 무서운 존재로 망자를 죄인 취급하여 저승으로 끌고 가는 존재이다. 저승왕인 염라왕의 소속인 강림차사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신직을 부여받는 존재로, 바리공주처럼 망

자를 저승의 좋은 곳까지 인도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또 인정에 약한 차사들도 등장하는데 이들 차사는 배고프고 지친 상태로 묘사되며 방액을 원하는 인간이 차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설정된 존재들이다. 이들은 공짜로 남의 음식을 먹지 않고 반드시 보상을 하는 존재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인간의 소망을 투영한 존재로 나타난다.

망자들은 죽어 저승에서 영생을 하고 조상신으로서 대접받고 자손을 돕는 존재가 되기도 하나 원한이 많은 망자의 경우는 곁을 통해 조령(祖靈)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가에 등장하는 여러 망자들은 죽음과 환생을 통해 신으로 좌정하기도 하고, 악인의 경우는 징치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망자들의 형상과 역할을 통해서 저승이 새남과 통과례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저승 형상화 양상을 토대로 저승관과 생사관을 살펴보았다. 저승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무가 속에서는 그 범주가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저승①은 인간이 죽어서 존재가 전환되자마자 바로 대면하는 세계로,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다. 저승②는 망자들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극락의 개념을 지닌 곳이다. 제주 무가에서는 극락이나 서방정토라는 용어보다는 ‘조은 국(좋은 곳)’으로 표현된다. 저승③은 신들의 세계로 <천지왕본풀이>나 <이공본풀이> 등에서 신들의 세계를 저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저승④는 이승에서 신을 청하여 곁을 벌일 때의 공간으로, 신들이 강림하거나 내임한 시공간으로서 곁이 진행되는 동안 저승으로 공간이 전환된다고 인식하는 곳이다.

저승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중성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무(巫)에 다양한 가치관이 수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의 공간이면서도 생명의 원천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저승은 맑고 청량한 법이라고 하면서도 인정이 통하는 세계로 인식하기도 한다.

무(巫)에서는 무엇보다 현세에서의 복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죽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며, 인간 존재를 영육의 결합체로 보고, 영육의 분리를 죽

음으로 보며, 죽으면 영혼이 저승으로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꽃과 관련된 서사에서는 꽃으로 육체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재생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저승 공간을 매개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중시하는 사고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였다.

<바리공주>와의 비교·고찰에서 생사관이나 저승관 그리고 저승 형상화 양상에서 많은 부분 유사한 점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묘사나 인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공간 양상에서는 제주 무가가 풍부한 서사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간 묘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지리·환경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제주 무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공간의 양상과 저승의 양상을 고찰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공간 연구가 미진한 현실에서 독자적 연구의 첫 삽을 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부분적이거나 제주 무가의 저승이 그 형상화 측면에서 육지 무가와 다른 점을 찾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무가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까지 대상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주 무가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에 한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바리공주>와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제주 무가의 큰 곳은 그 연원이 육지 무가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제주의 역사와 자연·문화·지리를 수용하면서 변모한 점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을 세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화의 한 갈래로서 서사무가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상상력이나 환상의 측면에서 서사무가를 재조명하는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상 매체의 발달로 신화의 영상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육지 무가와 제주 무가를

아우른 작업으로, 한국 무가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본풀이와 풍부한 서사, 독특한 공간 요소를 갖춘 제주 무가를 제대로 구현해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위에서 제기한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제주 무가를 소개하고 독특하고 환상적인 공간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 赤松智城, 秋葉隆,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東文選, 1991.

2. 단행본

-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진영·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 _____, 『바리공주 전집』 2, 민속원, 1997.
- 김태곤, 『한국무가집』 1, 집문당, 1979.
- _____, 『한국무가집』 2, 집문당, 1979.
- _____, 『한국무가집』 3, 집문당, 1979.
- _____, 『巫俗과 靈의 세계』, 한울, 1993.
- _____,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95.
- 문무병 외, 『제주도 큰굿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당클굿』,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 안진호, 『釋門儀範』, 동아출판사, 1983.
-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6.
-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2012.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 장주근,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 _____,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88.
-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홍윤, 『巫 한국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 _____,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남국의 무속』, 민속원, 2003.
- 현용준, 『濟州道 巫俗 研究』, 집문당, 1986.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2011.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2010.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 _____, 『바리공주 전집』 4, 민속원, 2004.
- 홍태한·이경엽, 『바리공주 전집』 3, 2001.

3. 논문

<학위 논문>

- 김태곤, 「황천 무가 연구- 한국무가의 민속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5.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박선희, 「18세기 지옥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오선근, 「서사문학에 나타난 타계여행모티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이선근, 「서사무가에 나타난 저승인식과 그 교육적 가치」,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수자, 「韓國 說話文學의 空間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_____,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최진봉,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일반 논문>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권복순, 「<차사본풀이>의 해설적 기능과 의미」,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2011.

권태효, 「서사무가에 나타난 이계여행의 양상」, 『한국문학연구』 제3집,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3.

_____,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민속학』 제31집, 한국민속학회, 1999.

_____,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제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김영민,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 영육관과 저승관」, 『문화연구』 제7집, 한국문화학회, 2002.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2003.

_____,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 김창호, 「한국 무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새남-의사소통의 단절과 재생-」, 『한국무속학』 제5집, 한국무속학회, 2002.
- 김태기, 「오구굿의 원리 연구」, 『배달말』 24, 배달말학회, 1999.
- 김태훈, 「죽음관을 통해 본 시왕신앙-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33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9.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 박종성, 「서사무가의 세계관 일고」, 『국문학연구』 제6호, 국문학회, 2001.
- 송미경, 「사령형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전형성」,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 오세정,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 the other world) 연구-수평적 방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 이길용,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선교신학회』 제28집,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2011.
- 이수자, 「저승, 이승의 투사물로서의 공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창, 1990.
- _____, 「무속신화 <지장본풀이> 연구」,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 장미진, 「불교문화권에 있어 ‘지옥’의 원신화적 요소와 그 의미」, 『미술사학』 7, 미술사학연구회, 1995.
- 장주근, 「고대 한일양국의 민간신앙」,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 조홍윤, 「한국 지옥 연구 - 무(巫)의 저승」, 『민족과 문화』 제7집,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8.
-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 한상우, 「제주 민담·설화의 한국적 사유구조와의 동질성 및 이질성에 관한 해

- 석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집, 한국교원대학교, 2003.
- 홍태한, 「한국 무가에 나타난 저승」,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3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 _____, 「서울 진오귀굿 <바리공주>의 저승관과 그 의미」,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4. 기타

<인터넷 사이트>

새롭게 펼쳐지는 신화의 나라,

<http://koreamyth.culturecontent.com/common/index.a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4a3127n10>

<TV 프로그램>

제주큰굿 제1부 굿과 제주, KBS 특집프로그램(제주), 2011. 12. 02.

제주큰굿 제2부 굿 중의 굿 제주 큰굿, KBS 특집프로그램(제주), 2011. 12. 09.

제주큰굿 제3부 제주 큰굿, 세계로, KBS 특집프로그램(제주), 2011. 12. 16.

제주큰굿 뒷이야기, KBS 특집프로그램(제주), 2011. 12. 18.

http://jeju.kbs.co.kr/tv/tv_02_03.html?Key=&KeyWord=¤t_page=9

우리문화의 원류 제주큰굿, KBS 특집프로그램(제주), 2012. 01. 26.

http://jeju.kbs.co.kr/tv/tv_02_03.html?Key=&KeyWord=¤t_page=7

A B S T R A C T

A study on the aspect of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derworld rendered in the shamanistic songs of Jeju

Jun, Koung-H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Oh, Yoon- Sun, Doctor of Literature

This thesis aims to interpret the meaning and an awareness of jeoseung, the lower world, by considering the aspect of the materialization of that place, which analyzes the shaman's ritual language that is invoked at a big shamanistic rite in Jeju. This research tries to look up the spatial aspect of the underworld and the characteristic since although the shamanistic rite has been actively handed down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the kind of shamanistic song and narration are plentiful and ordered, it has intended not to be approved as the independent object of study.

The underworld is typically thought to be a place where the souls of the recently departed go, an afterlife or realm of the death. As regarding the death as a sort of rite of passage that one has to undergo, the underworld is the invisible ideational place where people embody to overcome the mortal fear.

Examining the aspect of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derworld in the shamanistic songs of Jeju through a journey, spatial factors and the

characters, I can find that there are small but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part of the materialization of the place, while the shamanistic songs of the place of the mainland is not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 terms of the function and meaning.

As the underworld is ideational space, the real world cannot help being projected to embody that place. On the fact that the real world is projected, the underworld in the shamanistic songs of Jeju considerably and concretely reflects nature, history and a way of thought of the enjoyment group of the songs.

As this thesis considers the aspect of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derworld targeting the shamanistic songs of Jeju, it is meaningful to arrange and grasp the changing points accepting the history, nature, culture and landscape through the big shamanistic rite and ilbanbonpuri of, a kind of shamanistic rite, the shamanistic songs of Jeju originate from the those of the mainland. Also this study will function as the fundamental materials to transform the shamanistic songs into other genre and mythology into images over shedding new light on the shamanistic songs in terms of a imagination or illusion fantasy.

Key words : the underworld, materialization of the underworld, a viewpoint on the death, shamanistic song of Jeju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3.